현대불교

제 78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4월 21일 수요일 (음력 3월 8일 · 불기 2554년 · 주간)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

승가원, 동대부중 · 고 돌며 장애인식 개선 교육

"최근 장애인의 분포를 보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보다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늘고 있다. 일반인들도 모두 예비 장애인인 셈이다."

승가원(이사장 성관)이 4월 13일 동국대 부속 여중 법당에서 1학년 6반 학생들과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행사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4월 둘째 주부터 5월 부처님오신 날까지 동대부여중을 시작으로 동대부고, 동대부여고, 동대부중에서 실시된다.

동대부여중에서 시작된 첫 교육에는 장애관련 영화 상영, OX퀴즈, 시지각협응 체험이 실시됐다.

원하정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에게 서울대 이승복 교수, 탤런트 신은경 씨, 가수 강원래씨 등의 후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했다. 또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기봉은 지적장애, '웰컴 투 동막골'의 여일은 정신장애, '말아톤'의 초원은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 지각협응 체험은 시각과 지각에 장애가 있어 손과 협응(協應)이 잘 이뤄지지 않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손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종이 앞에 거울을 두고 그 거울을 보며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원하정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뇌에 전달 돼 뇌가 명령을 내려야 행동이 이뤄진다. 하지만 지적장애인들은 왜 인지능력이 떨어질까요?"라고 질문하며 시지각협응 체험을 실시했다.

색연필로 종이에 그려진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모양을 따라 그리던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한나 학생은 "선생님 제 별에 발이 달렸어요"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신기해했다.

시 · 지각협응 체험을 한 아이들이 소감을 한마디씩 발표했다.

주자영 학생은 "엄마가 건강하게 낳아 줘서 감사하다", 장인선 학생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다", 길예림 학생은 "장애우들을 차별 없이 보겠다. 승가원에 봉사활동 가고싶다"고 말했다.

동대부여중 이학주 법사는 "학생들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자비심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법사는 학생들이 교육 후 장애우들에게 측은지심을 가진 경우를 보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4대강 개발 중단… 최소 이용해야"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 일 지역회의서 성명서 발표

동아시아 불자들이 4대강 개발 중단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는 4월 5~7일 일본 동경 스키지홍간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포럼에서 4대강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INEB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불자들의 모임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국제사회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은 60여 참가자들은 "수많은 생명을 죽게 만드는 한국의 4대강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실천하는 불자들에게 마음 깊이 연대한다.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4대강 개발이라는 거대한 사업에 대해 세계불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불자들에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곧 생명이 사는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며 곧 살생이다. 신중한 조사를 거쳐 최소규모로 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또 "4대강 사업은 자연형하천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20여 개의 댐(보)을 만들어 흐름을 막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인공에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 개발 자립적 발전에 대한 불교의 입장 △젠더 문제와 불교 △종교와 신앙의 자유와 인권문제 △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의 준비 등을 논의했으며, 4대강 반대 성명서는 한국 참가자의 제안으로 채택됐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재미불교학자 이민용 교수, JTS 유정길 공동대표 등 14명이 참가했다.

한편, INEB 2011년 공식행사는 스리랑카에서 열린다. 2013년 공식행사에 앞선 2012년 지역포럼은 대만 혹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알림

본사 수송동으로 이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선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4월 17일 사무실을 서울 수송동으로 이전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주소: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대표 전화:
(02)2004-8200
팩스:
(02)737-0697





1배 100원 108배 서울 조계사에서 4월 14일 봉행된 '1배 100원 108배 모금법회' 에서 초하루 및 무진장 스님 취임법회에 참석한 1000여 불자가 108배 하는 모습.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자비나눔을 위한 '1배 100원 108배 모금법회'가 동시 봉행됐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행사를 통해 각자 108배로 적립된 1만800원씩을 모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장학금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00여 사찰이 동참해 1억3000여 만원을 모금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천안함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애도문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16일 애도문을 통해 침몰한 천안함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스님은 애도문에서 "지난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사고로 희생된 승조원의 극랑왕생을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 혈육을 잃은 슬픔을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해드리며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이번에 희생된 천안함 승조원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왔다.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열악한 여건에서도 몸을 던진 고(故) 한주호 준위와 금양98호 선원들 또한 숭고한 동체대비의 뜻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보여 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신뢰 있는 조사와 사후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 희생자 가족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를 기도했다.

조동섭 기자

▶14 선지식-거부 스님 ▶4 인터뷰-김용표 ▶16 강의실-윤창화 ▶9 현장-평화통일순례

광주 청학 스님이 5재 봉행한 까닭

"법정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삶의 씨앗 삼아 수행 정진하는 것이 스님의 뜻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4월 14일 법정 스님 5재가 봉행된 광주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과의 인연을 풀어놓기 보다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기리고 따르는 실천을 강조했다.

청학 스님은 1997년 2월~ 1999년 2월까지 길상사 초대 주지를 지냈다. 맑고향기롭게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한 스님은 법정 스님과 20여 년을 함께 했다. 오랜 인연이 있었음에도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 입적 전까지 한동안 만날 수 없었다. 청학 스님은 2007년 8월 13일 무각사 주지로 취임한 후 1000일 기도를 입재해 바깥출입을 금했기 때문이다.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의 입적을 조용히 애도해 왔다. 법정 스님 입적과 동시에 무각사 홈페이지에 스님의 입적 소식을 알렸고, 무각사 대웅전에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후 스님은 "법정 스님에 대한 도리"라며 법정 스님의 5재를 무각사에서 봉행하겠다고 밝혀왔다.

5월 8일 1000일 기도 회향을 앞둔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과의 인연에 대한 말빚을 지고 싶어하지 않았다. 청학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모셔왔지만 곁에서 잘 모시지 못한 사람"이라며 인연에 대한 말은 아꼈다.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과 함께 했던 맑고향기롭게 활동의 뜻을 살려 광주 무각사에서도 사회환경 운동을 펼쳐 왔다.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구호로 그치는 것을 막고자 스스로 나섰다. 이에 청학 스님은 2009년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재활용 나눔장터 '보물섬'을 열었다.

보물섬은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4대 종교와 시민, 단체, 지자체가 무각사 주차장에서 재활용 장터를 여는 한마당이다. 참석자들은 보물섬을 통해 북한동포돕기 헌책 모으기, 청소년 나눔 축제 등 특색 있는 테마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도 장터 참여자들의 수익금 10%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다. 청학 스님은 "재활용과 나눔의 생활이 습관화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소통의 장터"로 자리 잡도록 매회 직접 참여하며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상언 기자

"부처님진신사리만다라는 부처님이 이룩하신 위대한 깨달음과 진리와 기쁨이 충만한 바라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송광사 천지암 조실 활안스님 極大同 活眼

부처님의 세계를 형상화한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를 모시는 것은
불상이나 탱화와 같이 부처님의 큰 지혜와 복덕을 가정에 모시는 것입니다.

건강 · 합격 · 취업 · 스트레스해소 여러분을 소원성취의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성화(聖畵)가 만다라이고,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 사리입니다.

만다라와 사리를 함께 표현한 것이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입니다

이 만다라에는 가운데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주변에
가섭불, 목련존자, 사리불, 용수보살, 라훌라존자의 사리를
최첨단기법으로 정밀 재현해 만다라에 모셔져 있습니다.

만다라는 불길한 기운을 막아주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우주의 신비로운 생기가 걸어놓은 곳에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이런곳에 꼭 필요합니다!
·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의 서재와 다실
· 건강을 기원하는 가정과 각종 고시를 앞둔 수험생의 공부방
· 계약과 입찰이 많은 건설회사 대표의 집무실
·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바라는 분
· 개업 선물, 승진 선물, 집들이 선물, 불사회향 선물

제품규격

A형 60Cm X 60Cm, 4Kg	B형 80Cm X 80Cm, 6Kg
C형 95Cm X 95Cm, 10Kg	D형 105Cm X 105Cm,12Kg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의 모든제품은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점안의식을 봉행한 생명력을 얻은 성물(聖物)입니다

불 · 교 · 미 · 디 · 어 · 연 · 구 · 소
바라밀다院
종오합장
제품가격문의
121-87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1-92번지 가원 201호
대표전화 02-3275-0108 핸드폰 010-2022-0108

선각 스님 참회 촉구

해인사승가대학동문회

해인사 승가대학 동문회가 해인사 고불암 경매 건과 인근 골프장 건설 재추진 대장경 축전 주차장 부지 매각 등 일련의 해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주지 선각 스님의 참회와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도 해인사가 신청한 매각 처분 승인 반려를 조계종 총무원에 요청했으나 결국 총무원이 해인사가 신청한 부지 매각 승인을 내렸다.

해인사 승가대학 동문회(회장 원학)는 4월 12일 '해인사 사태에 대한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해인사와 관련한 몇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로 해인사 뿐만 아니라 종단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며 "해인사 주지는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과 불신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발로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문회는 현각 · 승원 · 주경 스님 등 7명을 위원으로 '해인사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에 앞선 5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무분과위 해인사 소위원회(위원장 진화)는 "해인사 토지 처분 승인을 반려할 것"을 총무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총무원은 13일 종무회의에서 해인사가 매각 승인을 신청한 3만 6820㎡(1만1100여 평) 중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될 2만5153㎡(7600여 평)에 대한 매각을 승인했다. **조동섭 기자**

"콘텐츠 개발보다 기조 확립부터"

조계종 포교원, 모바일 포교 주제 종책연찬회 열어

스마트폰 시대에 맞춘 모바일 포교 종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정호)은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불교 디지털 옷을 입다'를 주제로 제37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종단 모바일포교를 위한 기반과 지향'(송주실 포교연구실 주임)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전망'(박준규 SK네트워크 솔루션사업팀 대리) △'불교콘텐츠 Social Publishing(사회적 출판) 플랫폼'(김종민 이미지 홀딩스 대표)이 발표됐다.

송주실 주임은 발제에서 "불교 고유의 매력을 지닌 채 각종 디지털 매체에서 구현되는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는 총무원 · 포교원 · 불교문화사업단 등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송 주임은 "포교를 위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에 앞서 종단의 기조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웰빙 불교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콘텐츠, 아날로그 감성을 유지한 콘텐츠, 단순한 이식이 아닌 모바일 포교를 위한 특화된 콘텐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SK네트워크 솔루션사업팀 대리는 발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 출시를 기점으로 종교생활이 바뀔 수 있음을 설명했다.

박 대리는 "스마트폰 도입으로 단순한 통화수단이었던 통신기기가 다양한 정보의 유통 창구가 되고 있다"며 "꼭 절에 가지 않고서도 불교의 수많은 콘텐츠들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등 종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대표는 발제에서 불교 관련 플랫폼 콘텐츠개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적 출판'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불교 콘텐츠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픈 퍼블리싱 플랫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출판(Social Publishing)은 소셜리싱(Socialishing)이라고도 하며, 사회적 · 공익적으로 유익한 콘텐츠를 발굴 · 기획 · 출판하는 일련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또, 오픈 퍼블리싱 플랫폼은 개인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콘텐츠 자원을 전문적인 디지털 출판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게 돕는 작업 공간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불교문화사업기획단 관계자 다수가 참여해 모바일 포교와 관련한 종단적 관심이 적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포교원은 모바일 포교와 관련해 현재 각종 콘텐츠 개발 업체의 제안서 및 견적 요청을 검토 중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디지털 옷을 입다'를 주제로 열린 제3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봉은사 토론회 30일 개최

총무원 · 봉은사 · 단체

2시부터 8시까지

봉은사 사태와 관련한 조계종 총무원-봉은사-불교단체간 토론회가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서 개최된다.

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론회 일정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김동건 상임대표, 정웅기 재가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종무원 2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과 외 2인, 불교단체에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법안 스님,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이 참석한다. 사회는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는 주요 논제별 3자 입장을 듣고 조율하는 100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법안 스님은 "토론회 결과가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지만 봉은사 사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종도평가에 따른 여론 형성과 종책 반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1일 봉은사 직영철회를 위한 다섯 번째 특별법회에서 이동관 청와대 수석의 개입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부적절한 언행 의혹을 폭로해 물의를 빚었다.

스님은 11일 법회에서 △기획실장 원담 스님이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었다. 종무회의에서 봉은사 직영 전환 결정 후에도 청와대에 출입했다. △자승 스님이 대통령 선거 당시 힐튼호텔에서 "이명박 장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건배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총무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봉은사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원담 스님은 입장서를 통해 "△기획실장은 평소 청와대를 '밥 먹듯이' 드나든 적이 없다. 3월 3일 역시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고,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없었다. △자승 스님은 대선 시기에 힐튼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만난 사실도, 힐튼호텔 자체에 간 일이 없다. △12월 15일 총무원장 스님와 이명박 대통령의 조찬 회동은 이미 언론에 기사화된 바 있다. 종단 최고 지도자와 국가 수반이 만난 자리에서 한 사찰의 문제가 다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봉은사 측은 12일 입장서를 내고 "총무원이 '확인되지 않은 일' '허위사실' '거짓주장' '비방'이라고 치부한 명진 스님의 발언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2009년 11월 30일)과 기획실장 원담 스님(2010년 3월 27일)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반박했다.

성효 · 초격 스님 등 초 · 재선 종회의원 스님 13명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명진 스님의 정치활동 중단과 김영국씨의 총무원 보직 해임, 총무원의 조속한 직영사찰 지정 절차 집행을 촉구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영국씨에 대해서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안상수 대표 사퇴 요구

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법일, 이하 환경연대)는 4월 16일 '불교의 자주권을 유린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연대는 성명서에서 "종단개혁 이후 자주적이고 대사회적인 불교계의 긍정적 행보가 명진 스님이 폭로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종교권력에 대한 억압과 통제, 간섭과 자율환경연대는 성명서에서 △수행자를 좌파 스님으로 매도한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퇴 △자주성 침해 당한 조계종단의 참회 △불교 육화 정신에 의거한 총무원과 명진 스님의 소통과 화합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봉은사 · 東大 약학대 연관 주장 파문

조계종 "김동철 의원 사퇴"… "심려끼쳐 죄송"

MB정부가 동국대 약학대 선정을 빌미로 봉은사 직영전환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민주당 김동철 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조계종 총무원은 김 의원의 사퇴와 민주당 차원의 해명을 촉구하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김동철 의원을 잇따라 항의방문 했다.

김동철 의원은 4월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봉은사 외압 사건은 청와대가 나서서 교과부에 동국대 약학대 신설 승인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신 조계종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스님들을 내쫓아 불교계를 친정부 성향으로 바꾸려 한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승 총무원장은 지난해 11월 2일 예방 온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서 '불교계 현안들을 잘 알고 있다.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12월 15일 자승 총무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15분과 독대했고, 올해 1월 19일 예방 온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에게 약대 신설을 부탁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승 총무원장은 진 수석을 만나고 수일 후 '약대 유치 못하면 사표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은 약대 신설 확정 15일 만에 전격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3년 전 동국대 신정아 씨 학위 위조 사건과 연결시켰다.

같은 날, 조계종 총무원은 대변인 원담 스님 명의의 입장을 통해 김동철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 차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14일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총무국장 종민 스님 등 국장급 스님이 김동철 의원을 각각 만나 항의했다. 같은 날, 조계사 신도 200여 명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원담 스님은 "김동철 의원의 발언은 조계종과 동국대를 모독하고, 불교 자주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민주당 차원의 해명과 조치, 김동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김동철 의원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 차원에서도 내용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철 의원은 13일 동국대 간부 10여 명의 항의 방문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것이지 불교를 폄훼한 것은 아니었다"며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총무원 국장급 스님들에게 "제 불찰로 스님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공식 석상에서 다시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천태종, 영통사 봉축법회 추진

천안함 사태와 금강산 부동산 동결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천태종이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개성 영통사에서 합동봉축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정산)는 4월 21일 개성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회담을 열고, 5월 21일 개성 영통사 합동봉축법회 봉행 등을 협의한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는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의 추이가 불확실 하지만 이미 3월 경 통일부에 방북 허가를 신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천지가 모두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은 모두 나와 한 몸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4대강 개발을 반대하며 -

생명의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자연과 5천만 국민의 젖줄인 4대강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종교인과 각계 전문인을 비롯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4대강 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간절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행위는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여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사전 환경성 검토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 만능주의적 발상은 이미 곳곳에서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의 침수와 발암 유발물질 추출, 수천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과 희귀동식물 멸종, 문화재 훼손, 유기농 농민들의 축출 등 우려했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벽암록에 이르길 "천지가 모두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은 모두 나와 한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홍수 예방, 물 확보, 고용창출, 관광 수익 증대라는 허상을 내세워 자연의 순리를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현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나와 우리 그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후손들의 삶의 기반마저 훼손할 것입니다. 지난날 탐욕을 겸허히 성찰하고, 뭇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참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 번 1천만 불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4대강 개발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삿된 것을 파하고 정법 수호를 위해 모인 우리는 오늘 수륙대재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현 정부의 무분별한 4대강 개발을 반대하고 생명의 강 살리기에 동참하는 모든 후보들을 적극 지지 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남한강 여강선원을 필두로 4대강 지역에 법당을 개원하고 매주 수륙재를 봉행하여 4대강 개발 중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전국의 주요 사찰에 4대강 개발 중단 촉구 현수막을 내걸고, 주말 법회와 초하루 법회 등을 통해 4대강 개발의 부당성과 비경제성, 반사회성, 환경파괴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할 것이며, 불자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오늘과 같은 극단적인 현실이 우리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의 부족함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뭇 생명에 대한 공경심과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삶, 소욕지족의 소박한 일상 등을 담은 청규를 제안함으로써 생명살림에 대한 불자들의 의지를 모아낼 것입니다.

강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정화하고 자연의 생명을 잉태하고 보존하는 생명체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강의 줄기를 막고 보를 쌓는 그 자체가 이미 살생의 과정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악업임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해야합니다. 오늘 4대강 개발 반대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가 큰 울림이 되어 위정자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기2554(2010)년 4월 17일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 동참자 일동



낙동강 낙단보 현장 Before



낙동강 낙단보 현장 After

역경원 정체성부터 바로 잡아야

동국역경원장 무비 스님 취임… 역경 사업 재정비 목소리 높아

역경보살로 불리는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의 역경원장 해임 이후 2년 여간 표류하던 동국역경원장에 최근 무비 스님이 취임했다. 무비 스님 취임을 계기로 종단 안팎에서는 종단 역경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역경사업은 포교 · 도제양성과 함께 조계종단의 3대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사업이 지체와 서행을 거듭해온 까닭에는 역경원의 위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동국역경원은 종단 3대사업 중 하나를 추진하는 기관임에도 조계종도, 동국대 소속도 아닌 애매모호한 기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동국역경원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으라면 단연 정체성 문제"라며 "역경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역경원은 동국대 산하 기관으로 속해 있다. 최근에는 불교학술원으로 편입됐지만 여전히 조계종도 동국대 기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역경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호하다. 조계종 총무원에 소속되던지, 학교기관으로 완벽히 자리 잡던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역경원의 정체성 문제는 소요예산 확보 및 직원의 신분보장에 따른 사기 문제와도 직결된다. 2007년 동국역경원의 수입은 국고보조금 4억원, 동국대에서 2억원, 역경원후원회 1억원, 조계종 교육원 2000만원, 재단법인동국역경사업진흥회 2000만원, 불교서적 출판 수입 1억4000만원 등 8억8000만원이다.


4월 7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된 무비 스님의 동국역경원장 고불식에서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왼쪽)이 무비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08년 월운 스님의 역경원장 해임 당시 역경원장직이 계약직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2년 여가 지난 지금도 역경원 직원 7명 중 1명만 동국대 교직원일 뿐, 나머지는 비정규직 계약직이다. 역경원은 단지 기관으로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무비 스님 취임 전 동국역경원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원장인 박인성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가 맡아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이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로 비상근직임을 감안할 때 박 교수는 불교학술원의 최고 행정책임자이다. 동국역경원의 상위기관인 불교학술원 부원장이 역경원장임에도 불구하고 2년 여 동안 역경원이 표류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박인성 교수는 "역경원장 취임 이후 새로운 역경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월운 스님을 쫓아낸 사람으로 오해 받아 아무 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며 "역경원에 번역부도 만들었으나 학교 측이 인력충원, 재정지원 등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 해임 이후 동국대가 역경원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반증하는 발언이다.

이어 박인성 교수는 "역경원의 역경 인력에 재가불교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다양하게 개방돼야 한다. 범어 · 빨리본 경전 번역 사업과 어린이를 위한 역경사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임역경원장 무비 스님은 "당분간 <한글대장경> 개역 등 역경원이 기존에 진행해 온 사업을 충실히 하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님은 "역경사업에 종단의 관심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는 일단 성과를 보인 후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무비 스님의 취임으로 2년 여 표류하던 역경원이 새롭게 도약할 계기를 맞았다. 역경연수생 제1기 출신인 스님은 취임사에서 "역경원으로 환지본처했다"고 말했을 만큼 역경원에 강한 향수와 애정을 갖고 있다.

前 역경원장 월운 스님은 역경원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선문염송>의 게송을 인용해 "피를 토하면서 울어봐야 쓸 곳이 없으니 차라리 입을 닫고 남은 봄을 보내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啼得血流無用處 不如緘口過殘春)"고 말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이사장 정련 스님이 3월 4일 역경원을 둘러보고는 사무실이 초라한 것에 충격을 받으신 것으로 안다. 이사장스님이 '이래서는 안된다' 며 '연말까지 기다려보자' 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한 · 미 친선교류협회 미얀마의 날 맞아 물축제 봉행 4월 16일 미얀마의 날을 맞아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회장 목탁)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얀마의 날 선포 10주년 기념식 및 미얀마 전통의식인 물축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우 묘르윈 주한 미얀마 대사를 비롯한 한국주재 외교관, 친선협회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재완 기자

사용법 몰라 향로 뒤집어 전시

도쿄국립博 소장 금산사 향로 환수해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금산사 향로은 박물관 측이 사용법도 몰라 뒤집어 전시되고 있었다. 해외 반출된 우리 문화재로서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금산사 향로(사진은 위 아래가 바로 잡힌 모습).

문화재제자리찾기(의장 김의정, 조계종 신도회장)는 4월 15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이 단체의 사무처장 혜문 스님은 "향로에는 '금산사 대전 미륵전(金山寺大殿 彌勒殿)' 이란 명문이 있어 '금산사 미륵전'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보관 중인 금산사 향로는 일반적인 형태로, 현재 몸체 부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스님은 "금산사 향로가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상하가 뒤집혀 전시됐던 것으로 보아 일본이 약탈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뒤집혀 있던 향로는 문화재제자리찾기의 지적으로 지금은 바로 놓여 있다.

혜문 스님은 "금산사에 봉안됐던 향로가 약탈돼 일본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다는 것은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환수 이유에 대해 밝혔다.

문화재제자리찾기가 향로의 일본 약탈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황수영 박사가 1963년 집필한 <고려 청동은입사 향완의 연구>에는 "(금산사) 향로가 일본의 약탈로 일본에 간 뒤 법융사에 헌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혜문 스님은 "금산사 측과 협의해 구체적인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금산사 향로 외에도 문화재청이 미파악했던 조선왕실의궤 5종 13책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일본이 보관 중인 조선시대 장군의 투구와 갑옷, 왕 · 세자가 쓰는 익선관의 환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관람료 소송 취하 합의

자재암 · 동두천발전연합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3년 여 소송을 이어 온 소요산 자재암과 지역단체가 관람료 징수에 대한 합의 후 관련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자재암 주지 혜림 스님(중앙종회의원)은 4월 12일 "동두천발전연합과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자재암 문화재 관람료 징수 여부는 조계종 문화재관람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동두천발전연합은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자재암 소유의 소요산에 동두천시가 공익 목적으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수행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9년 2월 의정부 지방법원은 자재암을 대상으로 서정호 외 21명이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서씨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1인당 1000원씩 2만 2000원의 관람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조계종 총무원은 "재판부가 문화재관람료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항소했었다. 이에 앞서 2008년에는 동두천 주민 1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이 나는 등 지역사회와 송사가 끊이지 않아왔다. 조동섭 기자

죽비와 목탁

선학과 · 인도철학과 살려라

최근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의 제1차 회의에서는 선(禪) 관련 교육내용 개편을 포함한 종단 승가대학 교과과정 개편(안) 등이 논의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계종 전국 9개 지방 승가대학의 교과과정은 동국대 선학과 · 중앙승가대 수준으로 한글화 · 현대화 · 표준화 된다.

하지만 정작 벤치마킹 대상이 된 선학과에서는 커리큘럼 및 학부제 전환 등으로 불만이 많다. 이 같은 불만은 지난 3월 동국대 선학과 교수 · 강사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쏟아져 나왔다. 최근 몇 년간 선학과 커리큘럼이 교양대학에서나 배울 법한 커리큘럼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교강사회의에서는 오영교 총장의 개혁드라이브로 불교대학 내 학과가 없어진 것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한 교수는 "불교대학에 불교학 전공만 남고 선학과와 인도철학과가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교수는 "학과의 커리큘럼이 과 교수인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다"고 말해 학사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동국대는 단과대학별 학부제 전환을 강행하다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학과 · 학부제 전환을 각 단과대학에 맡겼다. 사회과학대 등은 학과제로 남았지만 불교대학의 경우 대다수 교수가 학과제 폐지 · 학부제 전환에 찬성했던 까닭이었다.

선학과와 인도철학과는 국내 유일의 학과이다. 현대화된 승가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던 승가학과가 전신인 선학과를 비롯해 인도철학과도 희귀학과이다. 인도철학과에서 유학했던 한 외국인은 "일본 동경대로 가려다 비행기를 잘못타 동국대에 왔다"고 우스개를 하기도 했다.

두 학과의 희소성을 떠나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조계종립 동국대에서 선학과와 인도철학과의 위상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선학과와 인도철학과를 살려야 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일주문



통도사 호국수륙방생대법회 봉행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4월 21일 통도사에서 호국선열과 순직장병 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륙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법주사 제2회 어르신한마당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4월 21일 보은군청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회 어르신한마당을 개최한다. (043)543-3615



마곡사 신록축제 개최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5월 1~2일 마곡사 대광보전 앞마당에서 2010마곡사 신록축제를 개최한다. (041)841-6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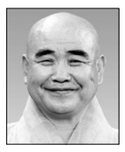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대회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5월 9일 불국사 범영루 광장에서 제25회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054)746-9913



쌍계사 다맥전수대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상훈 스님은 5월 2~3일 쌍계사 팔영루에서 초의선사 다맥전수대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55)883-1901



향봉 스님 '육조단경' 강연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은 5월 12~7월 14일 서울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열리는 경전학교에서 강주 '육조단경'을 강연한다. (02)576-1886



광진복지관 해인사 문화유산 답사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4월 21일 해인사 일대에서 '복지관과 함께하는 해인사 문화유산 답사'를 실시한다. (02)466-6242



대구 삼국유사연구원 개원

대구 정토사 주지 상인 스님(前 군위 인각사 주지)은 4월 10일 정토사 내에 삼국유사연구원을 개원했다.



제3회 낙동강 수륙재 봉행

대구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4월 25일 10시 제3회 낙동강 수륙재 대법회를 봉행한다.



평화재단 제4기 열린아카데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4월 23일 '변화속의 북한, 북한 사회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열린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581-0581

"국제적인 학술의 장 만들 터"

김용표 동국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제19대 회장 선출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한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학회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학술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4월 10일 한국불교학회 임시총회에서 제19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용표 교수(동국대 불교학부 · 사진)는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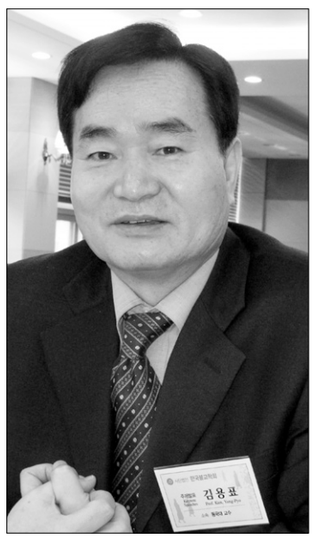
김용표 교수는 "학회지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국제 학술지에 버금가는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학자들 간의 교류에서 벗어나 국제 학계와의 교류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의 불교 연구자들이 한국불교학회를 중심으로 집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국내에는 20여 개가 넘는 불교학회가 있다. 한국불교학회는 1973년 불교학계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학회다"며 "때문에 한국불교학회가 불교학계의 모(母) 학회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진 불교 학자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학술대회가 동국대에서만 열렸다. 학술대회를 전국으로 확대에 새로운 불교학자들을 발굴하고 회원들의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6월 1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김용표 교수는 "그동안 불교학계에서 이슈화 됐지만 소홀히 대했던 특정 주제를 선정해 집중 조명하는 주제별 학술 발표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주전공이 종교학인데 불교를 종교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관심이 있다. 특히 불교와 세계종교 및 비교종교를 학회의 주테마로 다뤄볼 생각"이라고 개인적인 소망도 밝혔다.

불교계 최대 국제학술행사인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2008년 이후 그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20여 나라의 저명한 학자들과 신진 연구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불교학결집대회를 한국불교학회를 중심으로 복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재정적 여건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불교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용표 교수는 "한국불교학이 새롭게 나아가려면 문헌학 · 역사학 연구에서 더 나가 실천적 · 해석학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새로운 문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불교학회 회원들이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개척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BK21 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한국종교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글로벌시대 젊고 패기 있는 협회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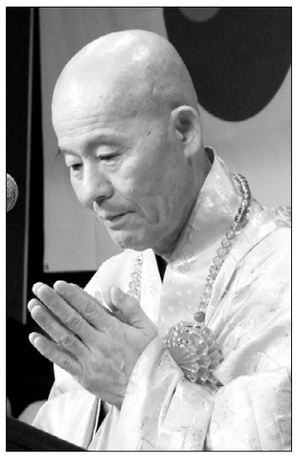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신임회장 월인 스님 취임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9대 회장에 월인 스님(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사진)이 취임했다.

협의회는 4월 9일 부산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회장 이취임대법회 및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법회에서는 상임부회장 보광 스님(중앙불교조계종 제1세종정), 부회장 혜륜 스님(한국불교호국조계종 종정), 감사 의천 스님(대한불교아미타여래종 종정) · 용담 스님(대한선불교조계종 종정), 재무 법정 스님(조선불교대선종 종정) 등 새 집행부가 구성돼 2년 임기에 돌입했다.

월인 스님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 보다 젊고 패기가 넘쳐나는 본회를 이끌며 불교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과 걱정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실천하라고 하셨다"며 "모든 불자들이 바른 뜻을 세우고 바른 양심을 갖고, 온 국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실천행을 부처님 전에 서원하자"고 말했다.

전임회장 혜철 스님(한국불교원각종 종정)은 이임사를 통해 "현재 협의회에서 건립하고 있는 종정협의회회관과 대웅전 불사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집행부에서 이사장 지산 스님과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1996년 6월 창립해 부처님 사상의 실현, 불국토 건설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군부대 위문, 교도소 교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042)285-1227, 서울사무처, (02)756-1227

박지원 기자

원심회 청각장애인 봄나들이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4월 18일 청각장애인봉사단체 조계사 원심회와 함께 청각장애어르신 나들이 '아름다운동행'을 개최했다.

나들이에 참가한 100여 명의 어르신과 자원봉사자들은 여주 신륵사와 사슴마을 일대를 방문해 천연염색스카프만들기, 인절미 떡메치기, 유기농딸기 수확 등을 체험했다.

관장 가섭 스님은 "청각장애어르신들도 일상에서 벗어나 새 인연을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동행'이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02)6911-9506

노덕현 기자

교정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2010년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만청, 부여 미암사 주지) 정기총회가 4월 15일 대전지방교정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교정연합회 회원들은 심리상담, 웃음치료 등 다양한 교화프로그램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제9대 회장에 현 회장 만청 스님을 유임했다.

또 그동안 고문으로 활동해 온 진공 스님과 오갑돈 고문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천태종 동대사 창립 2주년 법회

대구 천태종 동대사는 4월 10일 창립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8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경천 스님이 동대사 창립기념 법회에서 천태종도들의 수행정진을 당부하고 있다.

법회에서 초청법사 경천 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은 "일신청정 수행기도처인 이곳 관음도량에서 '늘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 '잘못했습니다'라는 반성의 마음 등 뜻 말 행동을 실천해 관세음보살의 만법에 부합하는 불제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 발대식

대구 지역 불교계의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대구불교 호스피스센터 개원식에 참가자들은 봉사자선서를 낭독하고 호스피스 활동에 적극나설 것을 다짐했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신도회(회장 임문우)는 4월 10일 불교대구회관에서 대구불교 호스피스센터(센터장 은장권) 창립 발대식을 갖고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구불교 호스피스센터는 20여 의료진과 사회복지전문가, 140여 자원봉사자를 갖춰 지역 불교계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병상수계 활성화, 전문가 양성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남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의 분열을 선동하는 봉선사의 불법적인 행보를 규탄한다"

본회가 창립된지 어느덧 2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86년 초대 발기인이신 월운 큰스님(봉선사),남정 큰스님(수진사), 흥국사 (일면 큰스님), 선덕사(학현 큰스님), 송암사(형민 큰스님), 영선사(광선 스님), 보현사(개현 스님), 보광사(故화담 큰스님)를 주축으로 40~50개 사암이 동참하여, 구리시 꽃길 예식장에서 구리시, 남양주군 불교사암연합회란 명칭으로 창립식을 갖고, 지역 불교발전과 시민사회를 위한 "요익중생"을 기치로 불교가 표방하는 이념을 실천하고, 회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3.29. 남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 명칭을 도용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며 29개 사찰명의(동의하지 않은 사찰포함)로 불법 공고문을 각 사암에 발송하고, 또 다른 남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를 조직하겠다며, 회원의 양분화와 암투를 조장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 봉선사의 행각은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종단을 달리하고 지역 불교 사암연합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전하고, 정토사회를 구현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건만, 아직도 가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힘의 논리를 앞세워 불법적인 방법으로 본회를 붕괴시키려는 행각은, 역대, 큰스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이룩하였던 자취에 큰 흠집을 내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역대 회장을 살펴보면 "초대 회장(1986) 월운 큰스님(현, 봉선사 조실), 제2대 회장 밀운 큰스님(현, 조계종 원로의원), 제3대 회장(1990) 남정 큰스님(미금시 불교사암연합회 초대 회장/현 총화종 총무원장), 제4대(1992) 회장 운경 큰스님(전 봉선사 주지), 제5대 회장 일면 큰스님(현 불암사 회주), 제6대 회장 밀운 큰스님(현, 조계종 원로의원 / 봉선사 회주) 제7대 회장 일면 큰스님(전, 봉선사 주지 / 현 불암사 회주), 제8대 회장 철안 스님(전, 봉선사 주지), 제9대(2005) 공동 회장 철안 스님(봉선사 주지), 금담 스님(무량사 주지), 제10대(2008) 공동 회장 금담 스님, 인묵 스님 제11대 공동 회장 석전 큰스님(2008, 인묵 스님 사퇴로 보궐선거), 제13대 회장 선진 큰스님(남.구사암 분리후, 남양주 불교사암연합회 초대회장), 제14대 회장 석전 큰스님(남양주 불교사암연합회 통합후 초대회장)을 모시고, 활동하였던 정통성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군소사찰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북부 사암연합회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는 봉선사 주지가, 지역 사암연합회의 분쟁이 있으면 수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치키고,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며, 본회의 공금횡령과 이중,삼중 승적으로 인하여 제명되었던 모 스님을 앞세워 본회의 양분화를 시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탈취하려는 작태는 봉선사의 도덕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지 인묵 스님은 회원 여러분께 참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와같은 봉선사의 불법적인 행보에 대하여 당당하고, 단호히 대처하여 군소사찰의 권익을 지키고 연합회의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길 앙망합니다.

본회는 지면을 통하여 정통성을 확고히 이어갈 제15대 임원진을 공고하고,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가풍의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13대 집행부는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며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회장 금담, 수석부회장 보선, 부회장 행원 스님 和南

◆원 로 의 원 : 일면 큰스님, 법은 큰스님, 각하 큰스님, 원광 큰스님, 남은 큰스님, 혜명 큰스님, 혜성 큰스님, 정안 큰스님, 마월 큰스님
◆명 예 회 장 : 남정 대종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회 장 : 금담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무량사 주지)
◆수석 부회장 : 보선 스님 (선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 행원 스님 (석본사 주지) / 사 무 총 장 : 동진 스님 (원광사 주지)
◆사 회 부 장 : 승일 스님 (석가사 주지) / 복 지 부 장 : 탄허 스님 (천도사 주지)
◆홍 보 부 장 : (성현사 주지) / 문화국장 : 지철 스님 (길상 선원 주지)
◆감 사 : 영산 스님 (지장 천궁사) / 감 사 : 성덕 스님 (지혜정사)
◆(사)남양주, 구리시 천수천안 자원봉사단 운영위원장 : 원광 큰스님
◆남양주시승법사위원장 : 금담 스님
◆무료진료분과위원장 : 성덕 스님 / 장애인 분과위원장 : 지성 스님

불기2554(2010)년 4월 13일

남 양 주 시 불 교 사 암 연 합 회

"템플스테이 100만 시대 열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2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개최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의 목표의식 공유와 불교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4월 9~11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 마곡사에서 '제2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 연구 · 학술 세미나, 문화공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시연, 템플스테이에 기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 등이 진행됐다.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을 위한 특별강연 유승민의 '커피, 오해해서 미안해', 선재 스님의 '음식에서 찾은 우리의 건강(사찰음식)', 이운재 명인의 '95℃ 뜨거운 물로 나를 녹여줘(녹차)'도 진행됐다. 또 군산대 권기욱 교수의 특강 '포행과 걷기의 운동과학'도 마련됐다.

9일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종훈 스님은 "외국인들은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후 평화롭다고 이야기한다. 고급 호텔처럼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비싼 레스토랑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밥상이지만 많은 것이 넘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비운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한국불교가 가진 자산으로 템플스테이 100만인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니르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문화 공연.

이번 행사에는 전국 108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자와 실무자 300여 명, 템플스테이 참가 외국인 15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서 진행된 각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커피에 대한 강연을 들은 진해 보답사의 최유진 간사는 "커피도 건강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다.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커피를 사찰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공연은 무주 안국사의 태권도시범, 골굴사 선무도, 도신 스님과 니르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등과 동참한 사찰 실무자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이튿날인 10일 마곡사 앞마당에서는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 스님들과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은 외국인들에게 부처님 그리기, 차 시연, 소원 초 만들기 등을 지도했다.

통도사 이채현 간사는 "이번 문화축제를 통해 템플스테이 담당 스님들과 실무자들과 체험을 공유하면서 미처 알 지 못한 것을 많이 배웠고, 사명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템플스테이 모범사찰과 개인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총무원장상은 대승사 철산 스님 · 삼화사 원명 스님 · 약천사 성원 스님이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월정사 월수국 · 백담사 백거 스님 · 전등사 김태영씨에게 돌아갔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상은 천은사 김혜경 · 모각사 이석 · 골국사 설현희 씨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행사에는 마곡사 원혜 스님, 수덕사 옹산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혜오 스님, 문화체육관광부 조창희 종무실장, 이준원 공주시장 들이 참석해 템플스테이 문화 축제를 격려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한국불교학회 '순례' 국제학술회의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가 4월 1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순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선묵혜자 스님(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주)이 '108산사순례-21세기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패러다임'을, 박성배 교수(뉴욕 스토니브룩대)가 '21세기의 보현행원'을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S.R. 바트 인도 델리대 교수가 '인도에서의 순례'를, 왕방위 중국 북경대 교수가 '중국에서의 순례'를, 요리토미 모토히로 일본 종지원대 교수는 '일본에서의 성지순례'를 주제로 나라별 성지순례의 의미를 조명했다.

혜자 스님은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수행법이 있다. 신심과 환희심을 배양할 수 있는 수행법의 하나로 부처님의 성지를 찾아 가르침을 되새기는 순례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배 교수는"자신을 돌아보는 순례는 보현행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결국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조성택 고려대 교수, 혜자 스님, 박성배 교수.

S.R. 바트 인도 델리대 교수는 '인도에서의 순례'를 통해 "인도대륙은 전체가 하나의 장려하고 지속적인 성지순례지"라며 "교통수단이 발달한 오늘날 성지순례 종교의례가 아닌 즐거움과 휴식을 위한 여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종교적인 순례 코스는 여행상품과도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유엔 스텝재단은 원효 트레일(trail, 길)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원효 트레일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원효 대사가 중간에 발길을 돌려 돌아온 여정을 관광 상품화한 명칭이다. 경주를 출발해 경산-문경-여주-수원-평택-괴산-구미-경주를 잇는 697㎞ 코스다.

원효 트레일이 코스를 중심으로 한 순례라면, 108산사순례단은 신행을 중심으로 한 순례길이다. 얼마 전 입적한 법정 스님의 행적을 따라 순례하는 법정 트레일 등 주제별 여행을 신행과 포교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이나은 기자

운암 김성숙 41주기 추모재

운암 김성숙 선생(태허 스님, 1898~1969) 서거 제41주기 추모재가 봉행됐다. 내년부터는 서울 봉은사에서 스님의 추모재가 봉행될 전망이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4월 12일 국립현충원 임시정부 묘역에서 운암 김성숙 서거 제41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에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이희범 국가보훈처 남부보훈지청장, 김성숙 선생 유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운암 김성숙 선생(태허 스님, 1898~1969)은 봉선사 승려 신분으로 유일하게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선민족전선연맹 선전부장 등을 지냈다.

이상언 기자

여주군 장애인 복지관 개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사회부장 혜경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이기수 여주군수, 이범관 국회의원, 안태근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장, 김수영 여주경찰서서장,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은메달리스트 김명진씨가 여주군 장애인 복지관 개관 기념행사에 참여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박선주 기자

100자 뉴스

월정사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숲길걷기대회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5월 8일 제7회 오대산 천년숲길걷기대회를 개최한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및 생명, 평화, 나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이어지는 흙길 10km 구간의 숲길체험 뿐만 아니라 달구지 체험, 사진촬영전시회, 오대산음식시연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서울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 종합안내실 설치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4월 13일 '서울노인복지센터 종합안내실'을 개소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종합안내실은 입회상담실, 자원봉사자 오픈상담실, 중앙상담실, 대기실 등으로 구성돼 상담, 민원 등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 개소식에서 관장 가섭 스님은 "종합안내실 설치로 4만 5000여 어르신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불교 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02)6911-9528

박선주 기자

서울 심곡암 효문화 산꽃축제 열어

서울 정릉 심곡암(주지 원경)이 5월 9일 정릉 일대에서 '제23회 심곡암 효문화 산꽃 축제'를 개최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산꽃축제는 전통다례시연을 시작으로 효주제 국악 공연과 연극, 시 낭송 등의 프로그램과 불자 가수 장미화 씨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02)914-8860 노덕현 기자

범불농 2010 도농교류 시행단체 선정

범불교농어촌돕기운동본부(이사장 성우, 이하 범불농)가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협력사업 시행단체로 선정됐다. 도농 균형발전을 모토로 2009년 설립된 범불농은 농어촌 체험 및 '공양米는 우리쌀로', '자비의 안테나 달기 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범불농은 4월 24일 임실치즈마을 체험을 시작으로 5월 느리실마을 6월 우포가시연꽃마을 7월 연천나룻배마을 8월 비봉내마을 9월 비학봉마을 등에서 농어촌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02)3270-3353. www.farmlove.or.kr 노덕현 기자

송산노인복지관 개관5주년 행사 · 합동결혼식

송산노인복지관(관장 송호식)은 개관 5주년을 맞아 4월 22일 오전10시 복지관 3층 강당에서 개관 5주년 기념식 및 '제6회 무료 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

무료합동결혼식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어르신 부부나 다문화 가정 부부를 위한 행사로 올해에는 5쌍을 부부가 식을 올린다. 결혼식에 필요한 신부 화장, 드레스, 사진, 피로연 등 모든 경비는 복지관이 무료 제공한다.

박선주 기자

미륵사지석탑 기단 하부 백제 진단유물 출토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미륵사지석탑 기단 하부에서 진단구(鎭壇具)로 추정되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4월 16일 발표했다. 진단구는 탑지나 건물지 붕괴 방지를 위해 액을 예방하려는 의식으로 땅 속에 묻는 그릇 등이다. 유물들은 미륵사지석탑 1층에서 남측 통로(폭 1.5m, 길이 3.5m) 바닥석 해체과정에서 출토됐다. 출토된 유물들은 토제 나발(螺髮, 부처의 머리카락을 표현한 것. 껍데기처럼 틀어 말린 모양), 금동 장식편, 유리구슬, 청동뒤꽂이, 청동구슬 등 27종 290여 점으로 모두 백제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이은정 기자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들이나 불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든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뵙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달라이 라마와 함께한 '이타주의 경제' 대화마당

경제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마음과생명연구소 주최, 9~11일 스위스 취리히 의사당

유럽의 금융, 문화 그리고 과학의 교점에 위치한 스위스 취리히에서 현 세계경제체제의 난관을 극복키 위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마음과생명연구소(Mind&Life Institute, 미국)는 '이타주의와 관용의 경제학'을 주제로 4월 9~11일 3일간 취리히 의사당(Kongresshaus)에서 포럼을 열었다.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타니아 싱거(Tania Singer) 스위스 취리히대학 교수, 리차드 데이비슨(Richard Davidson)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매튜 리차드(Matthieu Ricard) 네팔 세첸수도원 원장 등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학 · 심리학 · 인류학 · 신경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했으며, 불교적 관점에 기반을 둔 이타주의와 관용의 경제시스템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이번 행사에는 1960년 이후 스위스에 정착한 티베트 난민과 스웨덴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이탈리아에서 온 티베트인 4천여 명이 함께 했다.

달라이 라마는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서구 중심의 경제학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존중의 협력 관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바탕으로 '이타주의'를 강조했다. 다음은 달라이 라마의 발언 요지.


4월 9~1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이타주의와 관용의 경제학' 포럼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달라이 라마.

#왜, 이제야 이타주의 경제학인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인간 내면의 평정심이 불균형 상태임을 의미하는 표상이다. 이 자리에 모인 목적 또한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고민해보기 위해서다.

사실 나(달라이 라마)는 경제학에 무지하다. 그러나 방향은 제시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공통적으로 진실하고 선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매튜(Matthieu Ricard, shechen monastery)의 부언처럼, 개개인이 행하는 동정, 공감, 관용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증장시키는 촉매제이다. 또한 밖으로 드러나는 친사회적 연민은 타인이 지닌 욕망의 고통을 경감시켜준다.

불교는 불자를 위한 신앙생활을 제안한다. 불교경제학의 근본인 자비의 이타주의가 오늘의 난관을 극복할 절대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종교는 인류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불교의 기술적인 부분과 몇 가지 지식이 이 시대에 적절히 활용되고, 오늘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욕망에서 서원으로 전환되는 경제학

현대 경제학은 소비가 경제활동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정의해 왔다. 그러나 대량 생산과 편향된 이윤 추구에 의한 성장은 결국 거품경제를 초래했다. 대량 실직은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가족은 붕괴됐다. 인간의 부정부패와 탐욕에 의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또한 과정이다. 기존 서구 중심의 경제학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졌고, 비로소 인간을 둘러싼 모든 현상은 연기적인 관계에 의해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깨우치게 됐다.

지금을 살아가는 경영 리더들은 긍정적인 공유로 그 뜻을 함께 해 가고자 한다. 비대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창조와 변화의 경제 중심에 인권이 핵심으로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이 승리인가? 비로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간애의 회복임을 되짚어 보게 됐다. 나는 그것을 바르게 정의내리기 위해 스위스 취리히에 왔다고 생각한다. 물질적 성장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그 위에 올라선 이들이 잠시 잊고 있던 부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지금이야말로 물질적 영역에서 인간의 욕망은 절대 충족될 수 없음을 깨우칠 시점이다. 앞만 보고 달려온 인간의 갈망은, 이제야 돌이켜 본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옳은가?" 다시 시작이다.

#이타적 협력, 멀리 높이 나는 출발점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은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는 현대의 경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이유'를 물어야 한다. 행복은 G20(Group 20; 세계경제협의기구)에서 결코 찾을 수 없다. 타인이 당신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이전에 당신 먼저 "나는 행복을 원한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손을 뻗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존중의 협력 관계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스위스 금융에 종사하는 아서(Arthur Vayloyan)는 연민과 이타의 경제시스템 가운데 소액금융(Micro Finance)이 세상의 빈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모델임을 확인시켰다. '맨발의 대학(barefoot college)' 창립자 산지트(Sanjit)는 간디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회 활동가이다. 불교의 자급자족 이념을 십분 활용, 가난한 사람에 의해 지어진 마을에서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 체제를 확립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 600여 개 마을에서 태양 전기 사용을 현실화 했다.

오는 9월 나는 산지트와 함께 '맨발의 대학'에 방문할 것이다. 항상 고민해온 숙제 가운데 하나가 '티베트 망명정부의 난민들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바르게 현대화 교육으로 입문해야 하는가'였다. 실마리를 그곳에서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당신에게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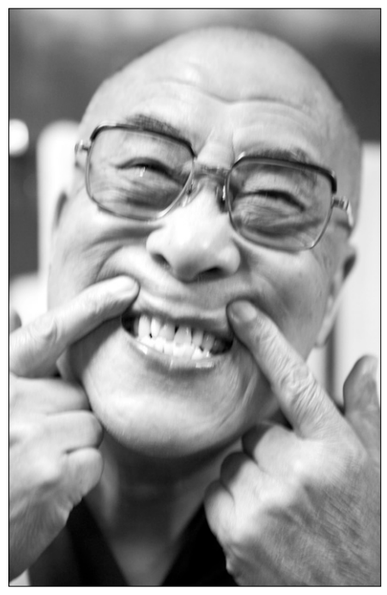
우리의 두뇌는 '경제적 안정과 진보가 시간과 비용의 이익에 비례 한다'고 고정관념화 되어있다. 인간의 욕망은 죽는 순간까지 만족을 모른다. 돈과 행복을 동일시 해온 이유다. 행복의 척도는 소비의 양이 아니다. 실제로 미래는 불확실하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대화의 결핍에 기인한다. 현재의 위기는 기본적인 도덕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행히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행복은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의견의 일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은 보편적인 부의 증대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했으나, 불황과 실업의 불경기를 초래했다.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생활이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하다. 경제는 인생을 이끌어 준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생산자와 경영인 그리고 소비자의 탄력 있는 협력에 있다. 경제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스위스 취리히 =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왜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할까?

비탈리 만스키 연출, '선라이즈' 5월 13일 개봉



평화의 절대적인 수호자라 불리며 전 세계인에게 존경과 덕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달라이 라마 14세. 달라이 라마의 하루 24시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다.

러시아 출신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선라이즈 선셋'이 5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왜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를 주목하고 열광할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영화는, 달라이 라마의 업적, 종교인으로서의 그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달라이 라마 곁에 머무르며 한 인간의 담담한 일상모습을 그려냈다.

영화에서 달라이 라마 14세의 모습은 소탈하고 인간적이며, 진솔하다. 영화는 특별한 설정이나 주입식 메시지를 따로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달라이 라마 14세의 곁에서 조용히 그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부담 없이 일상적 대화를 나누고,

소탈하고 인간적이며 진솔하다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며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와 진정성을 관객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끼게 연출했다.

2부로 나눠져 전개되는 '선라이즈 선셋'은 새벽 3시에 기상해 런닝 머신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달라이 라마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기도하고 명상하는 달라이 라마의 모습, 법회를 하는 장면 등은 또 다른 특별함을 선사한다.

또한 제작팀이 달라이 라마와 헤어진 후 러시아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메시지를 깨닫는 과정 등은 영화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달라이 라마 14세가 전하는 전 세계 인구 과밀과 빈부격차, 세계적인 분쟁 등을 주제로 나눈 대화 속에 오고갔던 많은 말들이 잘나에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뜀뛰기를 한다.

"우리 마음에는 연민이라는 기본성질이 있어. 불교에선 그걸 인간의 훌륭한 특성 중 하나로 치지. 이런 걸 고양시켜야 돼. 새것만 찾지 말고. 우린 일종의 씨앗을 품고 태어나네.… 불교적 관점에서는, 온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 온정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면 좋아. 믿음은 굳이 없어도 괜찮아. 허나 온정과 분별력은 마땅히 갖춰야 돼. 그럼 괜찮아."

300편 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칸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30번 이상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비탈리 만스키 감독은 "'선라이즈 선셋'을 준비하면서 전 작품들과 다르게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촬영 소감을 밝혔다.

이미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모스크바국제영화제 등 10여 개 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에 출품돼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선라이즈 선셋'이 과연 어떠한 감동으로 관객들에게 보여 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은정 기자

조계종출판사 TEL 02.733.6390 FAX 02.720.6019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독후감 대회

《부처님의 생애》 읽고 성지순례 떠나자!

응모요강

기간 2010년 3월 30일~5월 2일까지(마감당일 소인 유효)
대상 누구나 가능
요령 『부처님의 생애』를 읽고 독후감 제출, 분량은 원고지 15매 이상 30매 이하
보낼 곳 e-mail. inyeon@buddhism.or.kr
우편접수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전법회관 7층 조계종출판사
발표 2010년 5월 10일
조계종출판사 홈페이지 및 불교신문 · 법보신문 발표(시상식은 추후 공지)
부문 대상 1명 인도 불교성지순례 상품권
최우수상 1명 중국 불교성지순례 상품권
우수상 5명 템플스테이 상품권(1인 2매 국내) 20만원 상당
가작 10명 조계종출판사 도서 10만원 상당
단체상 조계종출판사 도서 100만원 상당



독후감,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이메일 접수 시 '제목란'에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예: 부처님의 생애 독후감 응모-홍길동). 가급적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고를 작성해주세요. • 응모 시 소속을 밝혀 주세요(재적사찰 및 학교) • 원고에는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 응모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접수는 등기로 발송해주시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봉투 겉에는 '부처님의 생애 독후감 응모'라고 써 주십시오.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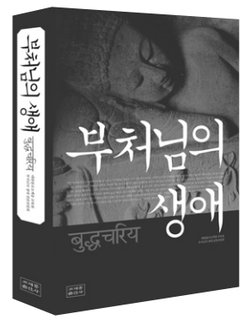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주관 조계종출판사 후원 불교신문 · 법보신문 · 불교방송 · 불교TV · 중앙승가대학교 ·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조계종출판사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 • • 크게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집대성하고 작게는 글자 한 자 한 자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인간적이면서 초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담아낸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의 삶을 바르게 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종단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집필
472쪽
24,000원
올컬러 양장본

2010년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

부처님의 생애

"조선 전기 왕실 출가녀는 불교 수호자"

황인규 교수 한국불교학회 학술대회서 발표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국시(國是)로 불교를 억압하는 시책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숭유억불로 표현되던 조선시대 동안 불교는 도심지에서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산중불교시대'였다.

하지만 산중불교시대에도 도성에서의 왕실불교가 없어진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특히 왕실녀들의 적지 않은 불교신행활동이 그러했다.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가 4월 10일 개최한 제51회 전국불교학술대회에서 '조선전기 왕실녀의 가계와 비구니 출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인규 교수는 "조선시대의 왕실녀 출신의 비구니들은 정업원과 후궁을 중심으로 왕실불교의 주축을 이루면서 조선불교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성리학적 예제(禮制)가 조선 중기이후에야 정착됐다"고 주장했다.

황인규 교수는 "조선 전기에는 왕후, 후궁, 공주, 왕자군의 부인들이 정업원에 출가하거나 후궁에 머물면서 신행활동은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며 "국가시책과는 달리 사후의 세계에 대한 추념을 불교가 담당했기 때문에 능침(陵寢) 사찰의 운용과 더불어 도성 궁궐에서도 정업원과 인수궁 · 자수궁 등의 후궁에서는 왕실녀의 불교신행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조선 전기에 걸쳐 나타난 왕실녀의 비구니 출가를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정종 · 세종 · 성종대로 구분해 각 시대의 비구니 출가 사실을 조명했다.



황인규 교수는 4월 10일 전국불교학술대회에서 "왕실 출신 여인들과 비구니들의 신행활동이 성리학적 예제를 조선중기 이후에야 정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청룡사 내 정업원 비각. 사진=박재완 기자

태조 이성계의 셋째 딸인 경순공주(?~1407)는 1392년 개국공신 흥안군 이제에게 출가했다.

이제는 개국원훈으로 전주 이씨 성을 하사받는 등 공주의 부마로 예우를 받지만, 태조 7년인 1398년에 왕위계승권을 둘러싼 '제1차 왕자의 난'으로 태종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공주의 어머니 신덕왕후가 죽은 지 2년 후의 일이었다.

황인규 교수는 "당시 공주는 몇 년 사이에 어머니와 두 동생 · 남편의 잇따른 죽음을 지켜봐야했고 그 직후 출가해 비구니가 됐다"며 "경순공주의 비구니 출가는 올케인 의안대군 방석 처 심씨의 출가와 더불어 조선 건국 초 왕실녀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정치적 암투에서 사랑하는 막내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태조의 조치였을 것이며, 태조의 불교신행과 그 시책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해석했다.

왕실녀의 비구니 출가와 더불어 후궁들의 출가는 태종 이후 조선중기 무렵까지 왕의 사후에 계속됐다.

황 교수는 "세종 4년인 1422년 태종이 죽자 이를 비관한 후궁들은 세종에게도 고하지 않고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됐다. 다른 후궁들도 이를 본받아 앞을 다투어 머리를 깎았다"며 "태종의 후궁 9명 중 출가한 비구니는 3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1397~1450)이 임종한 직후에는 후궁 10여 명이 한꺼번에 비구니로 출가하기도 했다.

왕후가 비구니로 출가한 사례도 있었다.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였던 허경 스님이 그 예.

단종은 1456년(세조 2년) 사육신의 단종복위사건 때는 세조의 보호로 처벌을 면했지만 그 이듬해 다시 단종의 복위운동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유배됐다. 이어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 정순왕후도 노산군부인으로 강등됐다.

황 교수는 "이 때 노산군 부인은 세조가 내려준 집을 마다하고 따로 청룡사 곁에 초가를 짓고 스스로 정업원 주지라고 칭했다"며 "정업원은 공식화된 비구니 도량이었고 적어도 왕실의 시책과 가까이 하는 자가 주지에 내정됐을 것이다. 노산군 부인이 정업원에 머무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궐 밖에 기거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종의 죽음 직후 중종대 무렵까지 후궁의 출가는 계속됐다.

황인규 교수는 "왕실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하는 왕의 임종 후 출궁이나 개가가 허용되지 않은 제약된 삶이라는 한계가 분명 있었다. 하지만 억불시책이 강화되는 시기에 굳이 비구니로 출가를 하게 된 것은 그녀들의 개인적인 불교신행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숭유억불 시대였다고는 해도 조선시대 전반에는 신라-고려에서 이어온 불교 신행의 분위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다.

황 교수는 "불교신앙에 전념한 왕실녀 비구니들로 인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가장 굴절되고 폐쇄적인, 특히 여성에게 '한 맺힘'의 시기였던 유교문화시대는 조선 후기에나 가능했다. 결국 조선 전기 왕실녀 출신의 비구니들은 우리의 자유롭고 개방 · 통합적인 불교전통문화를 수호한 선봉자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로구청은 서울시의 후원으로 정순왕후와 단종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 '비애비(妃愛悲)'를 4월 8~20일 공연했다. 공연 첫 날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문화부장 효탄 스님 외 주요스님들이 참석해 관람했다. 이나은 기자

정업원(淨業院)은 조선시대에 후궁이나 남편을 일찍 잃은 왕녀들이 비구니가 돼 여생을 보낸 곳이다. 사찰은 고려 시대인 922년(태조 5) 태조 왕건의 명으로 창건됐다. 1771년(영조 47)에 영조가 절 내에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비석을 세우고 단종을 애도했는데, 이때부터 절 이름을 정업원이라 불렀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현 청룡사 부근)에 그 터가 있다.

선리연구원 학술상 최선일 박사

김용태 · 이병욱 · 원혜영 선정



최선일 김용태 이병욱 원혜영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우수상에 최선일 박사, 학술상에 김용태 · 이병욱 · 원혜영 박사(무순)가 선정됐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4월 12일 이같이 발표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 및 논문 발표회는 6월 중 개최된다.

최선일 박사(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는 연구주제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勝浩)의 활동과 불상 연구'로 선정됐다.

선리연구원은 "조각승 승호(勝浩)를 중심으로 한 그 유파의 조각 양식과 그 변화 등에 대한 고찰은 한국불교미술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문헌기록 등을 기초로 한 연구방법론은 조선후기 불교계의 동향까지 살필 수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학술상에 선정된 김용태 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의 '한국불교의 종명(宗名)과 종조론(宗祖論)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종조(宗祖) 규명이 아닌 종명(宗名)의 변천과정과 당위성을 검토하고자 한 점에서 연구내용이나 방법론이 돋보였다.

이병욱 박사(고려대 철학과 외래교수)의 '천태의 사상과 원효의 사상의 공통점 연구'는 천태 지의와 원효의 사상을 비교해 특별한 교섭과정이나 양자의 유사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 한 · 중불교의 단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불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원혜영 박사(대진대 철학과 외래교수)의 '마라(Māra)의 악몽'에 대해서는 문화원형의 측면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나은 기자

"보리달마 안심사상에 교리 · 수행 함축"

보조사상연구원 월례학술대회서 묘경 스님 발표

혜가 스님은 달마 대사에게 "스님, 저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달마 대사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편안하게 해 주겠소"라고 대답했다. 혜가 스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마음으로 마음을 구했으나 마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달마 대사는 "그대의 마음은 이미 편안해 졌다"고 말했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4월 17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90차 정기 월례학술대회에서 묘경 스님(동국대 박사과정)은 '보리달마와 대승안심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묘경 스님은 "부처님 · 보리달마 등 역대조사들의 수많은 가르침 모두가 안심입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보리달마의 안심사상은 중국불교 교학의 핵심인 반야사상을 중심으로 중생들에게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고 말했다. 안심입명은 여타 교학사상을 아우르고 번잡한 불교수행의 체계를 단순화 시킨 부처님이 전하고자 했던 본질이었다는 설명이다.

묘경 스님은 "인간의 마음은 사고작용이고 사고는 기억의 반응이며, 기억의 반응은 다름 아닌 내면 경험의 표출이다. 마음이란 바로 내면 경험의 표출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선정이나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경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진리에 도달하는 중요한 힘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것을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내면 경험의 흔적을 제거함으로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번뇌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얻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묘경 스님은 달마 대사와 혜가 스님의 안심법문을 예로 "안심법문의 가르침에는 벽관의 실천과 연기법의 자각, 그리고 반야공의 지혜가 녹아들어있다"며 "달마와 혜가의 안심법문은 단순한 심리적 치료로서의 종교성을 띠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의 실천인 좌선의 본질적인 의미도 그 속에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리달마의 안심사상에는 종교의 본질적 요소와 중국불교의 교학체계, 인도의 실천수행법인 선의 사상이 살아있다.

스님은 "안심입명이란 안심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입명인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는 삶이다. 근본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수행에 철저한 것이요, 대승불교의 견지에서는 보살의 실천"이라며 "'반야공(般若空)'과 '삼매(三昧) · 정(定)' 그리고 '안심(安心)'은 사용되는 장소와 용법이 다를 뿐이지 선불교에서의 실질적인 체험의 과정에서는 같은 의미로 귀결이 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인도철학회 23일 불전번역 학술대회

유럽 산스크리트 사본 연구 현황 등 포함

인도철학회(회장 서행정)는 4월 23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불전번역의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주제로 제30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대회는 유럽의 산스크리트 사본 연구 현황과 한역 불전 번역에 있어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음역어에 대한 연구 내용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동국대 정승석 교수가 이끌고 있는 '범어음역 한자어의 의미체계 심화연구' 프로젝트팀의 발표가 눈길을 끈다.

정승석 교수는 '번범어(飜梵語)의 원어 착란 사례'를 주제로 고려대장경에 입장된 대표적 범어 어휘집인 '번범어'에서 나열하고 있는 어휘와 원어를 고찰한다. 정 교수는 초기에 제작된 '번범어'가 원어를 착란해 잘못 음역한 사례가 있음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전문 학자들은 △한역 <중아함경> 상당 산스크리트 사본 잔엽들 조사 현황과 전망-정진일(독일 괴팅겐 학술원) △<아미타경>대조 연구-최종남(중앙승가대) △철학용어의 의미 만들기-강성룡(서울대) △동음이의 음역의 난맥상 분석-김미숙(동국대) △비구(比丘)와 필추(苾芻:비구)를 둘러싼 빨리어와 범어의 다양한 뉘앙스-황순일(동국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불교 자주 실천운동을 위한 대중결사(大衆結社)를 선언하며

우리는 헌 상황을 오만한 정치권력의 불교 능멸과 자주성 침탈사태로 규정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과거회귀적인 정치권력의 횡태로 인해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법회 발언 등을 통해서 드러난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씨의 망언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이며 위압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현 집권세력의 핵심부가 불교에 대한 편향된 사고와 오만한 태도로서 종교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불교를 능멸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이를 불교 자주성에 대한 침탈행위로 규정하며,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안상수 씨의 정계은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현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안상수 씨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 부자 절의 좌파 주지를 그냥 놔둘 수 있나' 운운하면서 불교계 내부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종단의 자주성을 침해했다. 우리 불자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가 무조건 정계를 떠나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밝힌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쓴 채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국민분열적 종교편향 정책 등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 정권의 오만한 국정운영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는 물론 전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참회와 종단의 개혁정신 회복을 촉구한다.

우리 불자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1994년 사부대중의 주체적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종단개혁의 정신이 실종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86년 해인사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불교 자주를 위해 사부대중은 각고의 성찰과 부단한 실천운동을 전개했다. 1994년에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낸 종단개혁은 우리 현대 불교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안으로는 굴욕적인 정치예속의 고리를 끊어 종단을 바로 세우고, 밖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의 등불로 삼아 국민과 사회의 희망이 되고자 하였다. 우리 불자들은 이 개혁불사로 인해 종단이 우리 사회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정법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자로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지지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개혁불사의 정신이 퇴색하고 오염되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다. 종단의 지도자들이 '종단발전'을 내세워 물질적 · 외형적 성장에 치중된 '불사'를 만들어서, 국가권력과 밀실에서 야합해 자주성을 팽개치고 실리를 챙기려는 '정치적 거래'를 서슴지 않고 있는 행태가 이번 사태를 야기하였다는 일각의 지적을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들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교의 자주성 훼손에 대한 종단적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아울러 조계종단은 94년 개혁불사의 정신을 회복하는 선언과 그 실천지침을 여법하게 만들어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불교 자주성 수호와 종단 개혁정신 회복을 위한 '불교 자주 실천운동'을 선언한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과거회귀적인 이념논쟁이나 반민주적인 정치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만큼 성숙했다. 불교계 또한 소수의 '매불 정치승'에 의해 자주성이 훼손되면서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굴욕의 길로 회귀하는 것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우리 불자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불교에 대한 자존과 사랑의 마음으로 작금의 우려스러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오만불손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침탈당한 불교의 자주성을 수호하고, 정치예속을 끊고 종단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고자 했던 1994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교 자주 실천운동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안상수 씨는 정계를 은퇴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헌 정권의 종교편향과 불교 자주성 훼손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참회하라.

하나. 종단은 종단개혁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지침을 제시하라.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피로서 천만 불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불교 자주 실천운동에 용맹정진할 것을 결의한다.

1.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를 결성한다.
2. 불교 자주성 침해사례 수집과 대국민홍보를 전개한다.
3. 불교 자주성 수호를 위한 전국사찰 시국법회를 제안하며 적극 동참한다.

강미숙, 강민수, 강병수, 강병희, 강선중, 강선희, 강순례, 강순자, 강승혜, 강영희, 강원구, 강윤도, 강은영, 강정언, 강홍언, 강효마, 고경희, 고근창, 고명숙, 고명희, 고명화, 고명훈, 고오규, 고정임, 고진경, 고춘애, 곽수자, 곽정숙, 구민주, 구본진, 구영신, 구인식, 구자춘, 구자희, 권미숙, 권미영, 권미희, 권수진, 권오걸, 권은영, 권혁성, 권혁윤, 기영숙, 길려근, 김경애, 김경호, 김경희, 김광범, 김광수, 김광일, 김광진, 김귀란, 김균환, 김근영, 김근희, 김금영, 김기곤, 김기권, 김녀, 김녜환, 김대홍, 김덕희, 김도영, 김동률, 김동수, 김동혜, 김두라, 김만희, 김명길, 김명희, 김문순, 김문자,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정, 김미태, 김미현, 김미혜, 김명연, 김명준, 김보라, 김봉준, 김상기, 김상은, 김선순, 김선애, 김선영, 김선희, 김성규, 김성수, 김성숙, 김성원, 김성일, 김성장, 김소영, 김송자, 김수원, 김숙란, 김숙영, 김숙자, 김숙희, 김순옥, 김승자, 김승희, 김시내, 김신애, 김양배, 김영보, 김영숙, 김영순, 김영옥, 김영은, 김영자, 김영준, 김영철, 김영현, 김영희, 김옥, 김옥구, 김옥문, 김옥배, 김옥안, 김옥임, 김우준, 김은혜, 김choe혜, 김혜숙, 김혜옥, 김혜원, 김혜윤, 김혜정, 김혜진, 김혜천, 김혜화, 김혜희, 김현모, 김현철, 김현희, 김형모, 김혜린, 김혜민, 김혜원, 김홍매, 김홍주, 김희숙, 김희애, 나세은, 나정혜, 나중금, 나춘수, 남경우, 남경현, 남금진, 남기순, 남동화, 노민혁, 노세철, 노승호, 노승혜, 노정남, 단정남, 류원섭, 류혜원, 류혜숙, 모강현, 모정서, 모정우, 문대성, 문미옥, 문성화, 문연옥, 문영숙, 문용필, 민윤지, 민화식, 민희도, 박갑주, 박강희, 박경자, 박기철, 박난, 박노섭, 박동수, 박만규, 박묘숙, 박미스, 박미현, 박미혜, 박민수, 박병섭, 박복희, 박상기, 박선영, 박성규, 박성혜, 박성은, 박성진, 박세림, 박소연, 박숙경, 박순옥, 박순화, 박연화, 박영모, 박영희, 박옥순, 박은진, 박정희, 박재훈, 박점순, 박정선, 박정수, 박정애, 박정우, 박정하, 박정희, 박종덕, 박준태, 박찬식, 박철희, 박태만, 박혁, 박현민, 박현숙, 박현식, 박현희, 박혜경, 박혜진, 박희숙, 배외숙, 배원심행, 배은주, 배혜숙, 배진미, 배혜수, 백승재, 백영은, 백정은, 백호심, 범진, 변경화, 변미숙, 변신희, 변영신, 변재용, 사기순, 서대석, 서동석, 서동수, 서동호, 서명자, 서미희, 서병하, 서신영, 서유진, 서현희, 성기석, 성낙주, 성동주, 성무용, 성혜자, 성혜자, 소명호, 손남분, 손세희, 손영주, 손정현, 손정연, 손혜재, 손혜진, 송건호, 송구영, 송명근, 송미호, 송보영, 송세연, 송수민, 송영철, 송옥희, 송진, 송현숙, 송호경, 송희숙, 신동숙, 신명근, 신성미, 신수정, 신연정, 신옥분, 신용산, 신윤경, 신종규, 신종화, 신준식, 신진, 신진수, 신진호, 신하은, 신혜정, 심영주, 심영혜, 심종목, 심종섭, 심성식, 심유석, 안경석, 안경화, 안고열, 안병권, 안삼숙, 안성원, 안영숙, 안원식, 안종배, 안종은, 안지훈, 안혜선, 양경덕, 양혜원, 양춘승, 양혜근, 엄명자, 여계화, 염규홍, 오경란, 오경종, 오길숙, 오명엽, 오세광, 오세연, 오순지, 오수희, 오영숙, 오인숙, 옥식천, 왕성욱, 왕수덕, 용부임, 우선주, 우성란, 우희종, 유계숙, 유명자, 유미란, 유병문, 유복동, 유선옥, 유순근, 유연식, 유영숙, 유영화, 유윤순, 유재득, 유재부, 유제신, 유한울, 유희숙, 윤은진, 윤도현, 윤란, 윤미옥, 윤석빈, 윤석인, 윤성남, 윤숙희, 윤영화, 윤옥순, 윤은주, 윤정왕, 이경숙, 이경애, 이경옥, 이경자, 이계순, 이관영, 이광분, 이규희, 이근덕, 이명법, 이명세, 이명순, 이명혜, 이문기, 이미숙, 이미용, 이병주, 이복순, 이봉수, 이봉환, 이상경, 이상곤, 이상기, 이상민, 이상아, 이상언, 이상옥, 이상주, 이서경, 이선화, 이성배, 이소영, 이수희, 이순남, 이순옥, 이승희, 이승훈, 이시우, 이시은, 이시현, 이신애, 이신희, 이안경, 이안나, 이안순, 이안재, 이어진, 이연경, 이연화, 이연희, 이영근, 이영애, 이영훈, 이영희, 이옥례, 이왕재, 이용범, 이우영, 이우일, 이우철, 이원열, 이원표, 이유경, 이유미, 이윤미, 이윤희, 이은경, 이은봉, 이은진, 이은주, 이정선, 이정애, 이정연, 이정은, 이정혜, 이정희, 이정훈, 이종모, 이종숙, 이종환, 이주미, 이주영, 이주현, 이준, 이지범, 이지선, 이지연, 이지향, 이진숙, 이창희, 이천욱, 이태숙, 이태원, 이필승, 이해숙, 이현숙, 이현애, 이현희, 이혜선, 이혜원, 이호윤, 이화분, 이화영, 이화자, 이효분, 이희선, 이희심, 인현숙, 임나경, 임동석, 임동욱, 임동현, 임동화, 임민수, 임복순, 임상락, 임선자, 임수경, 임순혜, 임은환, 임인숙, 임영규, 임영길, 임영림, 임영애, 임현숙, 임혜영, 장경숙, 장기옥, 장대일, 장미성, 장미애, 장성옥, 장성준, 장원식, 장은옥, 장혜모, 장호석, 장호정, 전대식, 전명희, 전은성, 전진곤, 전정애, 전진혁, 정경자, 정기옥, 정기호, 정덕순, 정명희, 정미경, 정미숙, 정미애, 정민굴, 정문희, 정민경, 정상진, 정선희, 정성숙, 정성혜, 정영경, 정영미, 정은선, 정의행, 정재규, 정정옥, 정진화, 정찬동, 정창진, 정창현, 정현미, 정현숙, 정현애, 정홍엽, 제종호, 조경자, 조명혜, 조무용, 조병기, 조상연, 조성삼, 조승원, 조영숙, 조오희, 조원옥, 조은호, 조유성, 조인숙, 조재복, 조정향, 조준구, 조창원, 조춘엽, 조치성, 조필숙, 조형덕, 조혜주, 조환기, 주명숙, 주상하, 주영숙, 주은숙, 주혜숙, 지영희, 진교남, 진상실, 진아름, 진철순, 진혜원, 최기수, 최남숙, 최병용, 최선경, 최성우, 최신영, 최완일, 최윤복, 최진호, 최춘지, 최혜선, 추대식, 추순자, 추양호, 편영우, 하재훈, 한경숙, 한경희, 한광자, 한대희, 한도검, 한문호, 한상준, 한선향, 한숙경, 한숙동, 한숙종, 한정주, 한창은, 한홍식, 한희자, 합석경, 허명숙, 허성자, 허숙자, 허연숙, 허외숙, 허은경, 허정심, 허정희, 현상옥, 홍미영, 홍선희, 홍종표, 황다솜, 황선화, 황성식, 황성옥, 황성은, 황영수, 황주은, 황혜은, 황희성(이상 가나다 순 696명)

(가칭)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freebuddha 후원계좌 : SC제일은행 107-20-196209 김용문(불교자주실천)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열두살 어린 아내와 산지는 2년이 다 돼갑니다. 아내는 이혼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딸과 이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15년을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마약을 탐닉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반듯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람이 임신 7개월 넘도록 아이를 안 낳겠다고 버티며 술 · 담배를 끊지 않는 탓에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인근 사찰의 스님 말씀에 겨우 예쁜 아들을 낳았지만 아내는 모유를 먹이면서도 술 ·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소한 일에까지 제 잔소리가 늘어갑니다. 아내가 제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예전의 일까지 떠오르며 한없이 화가 일어납니다. 화해하지 못한지도 보름이 돼갑니다. 싸울 때마다 숨 죽이고 있는 아들을 보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며 굳게 다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내는 이해심 많고 검소하며 가사일도 잘하는 편입니다. 본래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나를 방황하게 만들었는데 내 자식에게 똑같은 슬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가정과 제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부인을 도와주세요

A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으시군요. 부인이 술 · 담배를 하는 행동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큰소리를 내며 싸우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해심도 많고 검소하며 가사일도 잘하는 착한 부인이 지난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화를 참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 결혼했으면 지난 날은 잊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몰라주는 부인이 야속하기도 하시겠지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한숨 쉬는 부인의 마음은 무얼까요? 부인이 왜 아기를 안 낳으려 했을까요? 부인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너무 커서 아기를 안 낳으려 한 것은 아닐까요.

이혼과 딸과의 이별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힘든 일이지요. 딸을 낳기만 하고 키워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그 어머니만 알 것입니다.

아내에게 큰소리로 말을 하면 아내는 자신을 비난한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비난의 말과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작아져서 말이 줄게 됩니다. 칭찬을 많이 듣고 생활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차갑고 강한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하지만 따뜻한 햇살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랍니다.

엄마가 우울하면 아기에게도 좋지 않은 환경이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으니 부인을 잘 보듬어 주시면 담배와 술에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남편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쁜 아들이 조금 더 커서 재롱을 부리고, 내담자께서 부인을 이해하고 도와주시면 부인도 마음 정리를 하고 생활을 잘 할 것입니다.

Q 교도소에서 3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동거하던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고아출신의 저는 어디 갈 곳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협심증 당뇨 고혈압과 원인미상의 마비증세로 거동에도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하루에 한끼만 먹으면서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보니 범죄에 유혹될 때도 있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생각 뿐입니다.

A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힘들더라도 사회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현재는 힘들더라도 미래는 좋은 가정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할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갱생보호공단(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척동길 18번지 · 02-6346-0915)에 문의하시면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이곳에서 만난 불법이 삶의 '빛'

사랑법당 탐방
여주교도소 불교실


4월 13일 여주교도소 불교실에서 성무 스님과 어윤식 포교사, 봉사자들이 수용자들과 함께 다과를 먹으며 덕담을 주고받고 있다.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최고의 법문
정기법회 · 교리강좌 · 사경 등 프로그램 다채

봄꽃이 만연한 4월 13일 바람은 유달리 찼다. 4월 중순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바람은 거셌다. 가뜩이나 추워보이는 여주교도소를 들어서는 길은 더 을씨년스러웠다. 몇 개인지 셀 수조차 없는 철창문을 지나 여주교도소 불교실에 들어섰다. 휘몰아치던 바람은 없었고 따뜻한 봄햇살만이 법당 안을 비추고 있었다.

"잘들 있었지?"

성무 스님(안양 삼막사 주지 · 여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 위원장)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고 불교실 안에 있던 10여 수용자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여주교도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법우상담 법회가 진행된다. 불우수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법회는 수용자의 가족문제, 생활의 어려움 등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다.

상담법회가 진행되기 전 성무 스님과 수용자들은 불교경전을 낭독하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전공부를 마친 후 스님은 "오늘은 그간 못 보던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소개를 부탁했다. 잠시 쑥스러워하던 수용자는 이내 짧은 자기소개를 이어갔다. 수용자들이 자연스럽게 한 마디씩 자신의 이야기를 보탰다. 이내 불교실은 봄 햇살 만큼이나 따사로운 이야기로 가득 찼다.

상담법회에는 안양 삼막사 신도로 구성된 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마련한 과자, 과일, 떡 등의 공양물들을 전해주며 수용자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재소자 교화활동 봉사에 2년 여 가까이 참여해 온 정연숙(52)씨는 "봉사자들이 마련해 오는 음식들을 수용자들이 항상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규정상 음료수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오늘 같이 떡을 가져오는 날에는 시원한 음료수도 함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가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 그럴 때면 수용자들이 은근히 봉사자들을 기다려 책임감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규정상 속 깊은 대화를 서로 많이 나누지는 못했더라도 그간의 정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상담법회에는 봉사자들과 수용자들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성무 스님은 여주교도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교행사에 모두 참여하며 재소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교정교화 봉사활동을 해 온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난 스님은 "법문을 특별히 들려주지 않아도, 몸소 실천을 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용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단지 스님으로서 해야할 공부가 하기 싫어 이런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하는 스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수용자들 걱정뿐이다.

"교도소에서 특별히 불교포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종교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취급받는 이곳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빛을 밝혀주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여주교도소는 4~5월 크고 작은 행사를 앞두고 있어 스님도 함께 분주한 상황이다. 4월 20일 장애인 날을 앞두고 장애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행사'가 준비 중이다. 이 날은 종교를 초월해 수용자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봉축행사 준비도 한창이었다.

이 밖에도 여주교도소에는 정기법회, 불교기초교리반, 경전 사경 공부, 합창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성무 스님은 여주교도소가 이렇게 왕성하게 불교행사를 진행하는 된 것을 두고 "모두 불교담당자인 어윤식 포교사 덕분"이라고 말했다. 어윤식 포교사는 "단지 스님과 다른 봉사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거들기만 할 뿐"이라고 답했다.

현재 여주교도소는 불교와 더불어 개신교, 천주교 등에서도 종교교정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어 포교사는 "타종교는 종교행사가 있을 때, 외부 봉사자들도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교화활동에 적극 참여하는데 비해 불교행사시에는 스님 혼자 법문을 설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불교도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에 관심을 두고 자비사상을 많이 실천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성무 스님은 "재소자들이 사회로 나가게 되면 방황과 혼란이라는 고비가 찾아와 더욱 살기 힘들어 합니다. 한 출소자는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처자식과 먹고 살기 힘들어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생활 당시에 접했던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훔친 물건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참회했다"며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기는 힘든 법인데 너무 대견하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고쳐 바르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겐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어윤식 포교사는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교의 이런 가르침을 알고 수용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항상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부처님의 법을 '빛'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나가 자비와 지혜로 사람들에게 회향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4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5월 26일까지 접수
◆ 개강일시 : 2010년 5월 27일 매주 (목) 오후 5시 ~ 8시 (3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 780 호 현대불교
2010년 4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buddhanews.com

2010 민추본 평화통일순례



강화평화전망대 북한땅 조망실에서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들이 이창희 민족공동체추진운동본부 교육홍보간사(동국대 북한학과 박사 수료, 왼쪽에서 세 번째)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생들이 망원경으로 북녘 땅을 보고 있다(위). 순례지인 강화도 전등사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참가자들.

'분단선' 앞에서 통일을 기도하다

수업으로 접하는 북한 실상으로 다가와
전문 기행해설사 설명으로 분단 체감

"어디? 나도 좀 봐봐"

"우와~ 완전 신기해. 저기, 저기, 저기 봐봐, 움직여! 보여! 보여!"

망원경에 눈을 떼지 못하고 서로 보려고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꿈속에서만 보던 것을 눈으로 보고는 못 믿겠다는 듯,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은 듯.

동국대 북한학과 학부 · 대학원학생 30여 명은 4월 10일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가 주최하는 평화통일순례에 참석했다. 순례지인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학생들이 보고 이토록 반가워한 것은 무엇일까.

"낚시 하나? 어디로 걸어가지? 오~ 저기 사람 다니는데요?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보이세요?"

학생들이 찾은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이는 움직임에 그토록 신기해 한 것은 똑같은 말과 글을 쓰고,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북쪽 사람들이었다.

'북한학입문' '북한정치론' '북한의 사회와 문화' '북한의 법과 행정체계' '북한교육론' '북한의 언어와 생활' 등 학교에서 늘 '북한'을 접하는 학생들에게도 북녘의 일은 현실적이지 못한 '우리의 소원'일 뿐이었다.

순례지인 광성보, 마니산 전등사, 부근리 강화 고인돌에 이어 마지막으로 찾은 강화평화전망대에 도착하자 북한학과 학도들답게 학생들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해졌다. 강화도 평화전망대는 남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주민의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안타깝게도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는 비와 운무로 북녘 땅이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김샌 표정으로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다. 여전히 멀기만 한 일인 듯했다. 매순간 변하는 바다 상황에 따라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것이나, 500원을 넣고 망원경을 보다보면 순식간에 툭 꺼지는 모습이 왠지 현재의 남북정세와도 비슷한 것만 같았다.

모든 순례에는 전문 기행해설사의 설명이 뒤따랐다. 분단된 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설명 덕분에 자칫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단이 현실로 쉽게 다가온다.

조미애 해설사는 "남 · 북의 대치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는 긴밀한 당론을 통해 이끄러 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밖에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관광하는 안보관광은 그동안 이뤄 놓은 남북교류의 성과다. 많은 사람들이 안보관광 등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설사 조씨의 설명은 생소하면서도 쉽게 다가왔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휴전선'의 공식명칭인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으로 2km씩 후퇴해 있는 북방한계선(NLL)과 남방한계선(SLL) 사이의 공간인 비무장지대(DMZ)가 역으로 100만 발의 지뢰로 뒤덮인 '중무장지대'인 안타까운 현실도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북한 인민군 출신이라는 한철우(북한학과 학생회장)군은 순례 내내 남다른 관심과 집중도를 보였다. 한군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북한이 낯설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의 모습을 볼 기회는 드물었다. 한철우군은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죠. 하지만 지금 북한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현실을 알게 됐죠. 저도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통일부 장관 같은 거요"라며 꿈을 내비쳤다. 새내기인 10학번 최수지(동국대 북한학과 과대표)양은 "북한에 대해서 책으로나 사진, TV 등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만 알고 지내다가 직접 와서 보니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며 "통일부 장관이 돼서 무조건적인 대북지원 사업과 교류 사업으로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싶다"고 말했다.

정하늘해군은 "통일 전망대에서 넓지도 않는 이 땅에서 가까운 곳을 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북한과 혈연적 지연적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소감했다.

윤보영 행정조교(북한학과 박사과정 3학기)는 "대학 시절에는 방북할 기회가 많았는데 최근 남북경색관계로 금강산 관광마저도 할 수 없게 돼 많은 학생들이 가기 어려워져 안타깝다. 경색된 남북 관계가 하루 빨리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멀찌감치에서 바라만 보다 발길을 떼려는 찰라, 멀리서 바다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북한 동포를 대신한 갈매기의 인사 같다. 학생들도 '또 보자'며 인사를 했다. 비도, 바람도, 바닷물도, 갈매기도, 먼지도 모두 멀지 않은 북녘 땅을 가는데 우리만 가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겨진 마음의 분단선이 이곳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아닐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 진 30여 학생은 이날 통일이 노래 속의 소원이 아닌 당장 이뤄지는 현실이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식당서 법회보는 장병들 안쓰러워

울산 군포교문수팀 · 정토사 신도들 7765부대 2대대에 혜민사 개원

울산지역 불자들이 군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경남포교사단 군포교문수팀원과 정토사 신도를 비롯한 울산지역 불자들은 제7765부대 2대대 군법당을 건립했다.

4월 10일 문을 연 군법당은 '혜민사'라는 이름을 걸고 여법하게 봉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열린 개원법회에는 200여 장병이 참여해 혜민사 개설을 축하했다.

제7765부대장은 "병사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호국 혜민사가 더욱 값진 군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장병들이 군생활을 하는 동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법당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불자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부산경남포교사단 군포교 문수팀은 2007년부터 매월 2차례 병사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장소가 여의치 않아 예비군 식당을 빌려 법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정토사 신도들과 울산지역 불자들이 불사를 발원했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가운데)과 군관계자, 정토사 신도들이 호국 혜민사 현판 제막식에 참가해 즐거워 하는 모습.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법당을 지어야겠다고 발심한 포교사분들과 원력이 정말 대단했다"며 "이런 뜻을 함께 나누고 열심히 동참해준 신도 분들과 법당건립을 흔쾌히 허락해준 2대대장님과 지휘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당 명칭인 '혜민사'는 2대대 소속 군장병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국민 모두가 근심걱정 없도록 안전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덕진 스님이 명호했다.

전기택 부산경남포교사단 군포교 문수팀장은 "많은 불자들이 군포교에 관심을 두는 일은 흔치 않은데, 단일사찰의 불자들이 직접 원력과 보시로 군부대 내 법당을 조성해 놀랍다"며 "앞으로 군장병들이 혜민사를 안식처로 삼아 자비의 정신으로 총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저도 옆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국 혜민사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마다 장병을 위한 법회를 연다. (052)258-9944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불국토 창립 16주년

복지 프로그램 다양화 모색

불국토 자비카드 등 제휴 후원금 기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4월 8일 영주암 원통보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2010년 우수프로그램 당선자 포상금 수여식 및 제휴업체의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2010년 우수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 민간기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프로그램 공모전이다. 당선작은 개금사회복지관의 박준영 · 이세리 사회복지사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노인들을 위한 웰리빙(well-leaving) 프로젝트: 찬란한 유산' 등 13편이다.

현재 13편의 프로그램에 쓰인 사업비 2억5000만원 중 약 2억600만원을 각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실제 자부담금은 4300만원 안팎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농협비씨카드와 불국토가 제휴한 '불국토 자비카드' 사용액 중 0.5%인 500여 만원이 후원금으로 기부됐다. 또 삼성화재 도솔대리점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포인트 적립금도 전달됐다.


범산 스님(가운데)과 올해 우수프로그램 선정 사회복지사들.

한편, 불국토는 1994년 사단법인 불국토(대표이사 정관, 영주암 회주)를 설립한 이후 1995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혜총, 조계종 포교원장)와 1998년 재단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대표이사 범산,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등 3개 법인으로 이뤄져있다.

현재 불국토에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컴넷하우스 수영구자원봉사센터 보현어린이집 용당어린이집 용호어린이집 영주암어린이집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상락정배산실버빌 상락정영주홈 수영구노인복지관 부산시노인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 양정청소년수련관 부산시청소년쉼터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등 총 17개 산하기관이 부산 전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부산 불교축제 세계화 한 목소리

부산불교聯 · 한나라당 부산시당 간담회

2010 부산연등축제와 봉축행사를 한 달여 앞두고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와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유기준)의 축제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

4월 10일 코모도호텔에서 마련된 간담회에는 불교연합회 임원스님 및 한나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연등축제와 팔관회 등 부산지역 대표 불교축제 세계화를 위한 예산 확대편성과 관심유치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부산시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은 "고려시대 팔관회를 부산에서 가장 먼저 복원해 매년 시행해오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세계적인 불교문화행사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세계적 행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문화재 등록 및 해외관광객 유치방안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팔관회, 사명대사 성역화사업 등 불교계 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부산시당 유기준 위원장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많은 불교행사를 진행해 생명의 존귀함과 무소유의 정신을 일깨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석암장학회, 14명에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 석암장학회(회장 정련, 동국대 이사장)는 4월 14일 오전 11시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71번째를 맞은 이번 전달식에는 동국대스님들과 재가자 학생 14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련 스님은 "건물은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지만 사람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석암장학회 출신이 우리 사회 내에서 덕망 있는 지도자로 성장해준다면, 건물 몇 백개를 짓는 불사보다 훨씬 크고 값진 일일 것"이라며 "작은 성의가 모아져 결국 이 나라의 지도자를 기르듯 우리의 원력과 신심을 담아 본 장학회를 발전시키자"고 설했다. 박지원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 Shop
봄맞이 Sale 사은품 증정

축육기 145,000
☎ 02) 2004-8216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쵤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 시작 조심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 용량 : 약 170개

전통문화체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익산 숭림사, 제5차 중창불사 회향

익산 함라산 숭림사(주지 지광)가 수행과 교육, 포교를 아우르는 전통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났다. 10여 년의 중창불사를 마친 숭림사는 청소년, 다문화가정, 도시와 농촌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숭림사는 4월 10일 지난 10년간의 불사를 회향하는 '제5차 중창불사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에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금산사 부주지 성우 스님, 심곡사 화평 스님,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박중근 익산신도회장, 조배숙 국회의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숭림사 중창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지광 스님은 "숭림사가 올해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됐다" 며 "청소년 한문교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쉼터 역할 뿐만 아니라 송천 블루베리 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와 연계해 종교간, 도시와 농촌간 화합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숭림사가 10년간의 중창불사를 마치고 4월 10일 회향법회를 열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중창불사는 보물 825호 보광전과 적묵당 등 20여 전각을 해체 보수했다.

월주 스님은 그동안 불사와 가람수호에 노고가 많은 지광 스님을 비롯한 숭림사 사부대중의 노고를 치하했다. 월주 스님은 "불자로서 견성성불, 포교 · 전법, 가람수호의 본분사를 잊지 말고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임문규 신도회장 등 불사에 공로가 큰 불자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상이 시상됐다. 또 익산시 함라면에 거주하는 김재석, 판티밍팅 부부 등 6가구의 다문화가정에 격려금과 불교 경구가 새겨진 액자를 선물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불사에는 숭림사 사부대중의 노력이 컸다. 이번 불사에는 보물825호 보광전 해체보수 및 벽화 보전처리, 템플스테이 전용관 적묵당 수리까지 크고 작은 불사 20여건이 진행됐다. 가람 중창불사에는 국고 보조비 29억 7000만원과 신도들의 시주금 8억 5000여 만원까지 38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interview

전통불교의식 교육장 개설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제14대 원장 호산 스님

"광주전남지역 태고종도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산 스님(곡성 무각사 주지)은 3월 27일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제14대 원장에 취임했다. 스님은 140여 사찰로 구성된 태고종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무원 원장 소임을 4년간 맡게 됐다.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군산 스님

호산 스님은 "사찰 주지스님들의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종무원의 발전의 관건"이라며 "모든 종무행정도 화합에 중점을 두고 펼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종무원부터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종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호산 스님은 "종무원은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는 각 사찰의 스님들을 직접 찾아가 종무원 발전과 참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운천사 전통불교의식 교육장 개설, 역대 종무원장 스님 합동 다례재 봉행, 연수교육실시, 운천사 전통사찰 지정 추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통불교의식 교육장은 스님들이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의식을 비롯해 상용의식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역대 종무원장 스님들의 다례재를 연1회 봉행하고, 1980년대 없어졌던 종무원 연수교육을 다시 시작해 사찰별 포교비법 교육에도 힘쓴다.

현재 종무원 회원들의 참여율 재고도 호산 스님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현재 종무원에는 태고종의 광주전남지역 사찰 65%가 회원 사찰로 참여 중이지만 회원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호산 스님은 "종무원이 사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회원사찰이 종무원과 공감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회원사찰의 80% 이상을 종무행정에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산 스님은 1965년 해남 대흥사에서 상덕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완도 수향사, 해운사 주지와 종무원 재무국장, 사정원장을 비롯해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사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스님은 곡성 무각사 주지와 광주전통불교영산회 고문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지역 다문화지원 본격화

광주지역 불교계가 다문화가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광사(주지 정선)는 4월 10일 광주 동구 학동에 '해 뜨는 다문화 가족복지센터' 개소식을 갖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 2월에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해뜨는 다문화 가족 복지센터는 상담심리, 다도 · 한국어 · 전통악기 교육, 부모교육 등이 진행된다.



'해뜨는 다문화가족 복지센터'는 10일 문을 열고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3월에는 본지 후원으로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스님, 길상사 주지)와 공동으로 다문화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개소식에는 혜월 스님(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상운 스님(흥룡사 주지)등 30여 행사관계자가 참여했다.

정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다문화가족에게 희망이 되고 따스한 자비의 손길이 되며, 화합의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센터를 건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 개최

호남지역불자들에게 불교의 다양한 산업을 알리기는 국제불교박람회가 개최됐다.

(주)엑스퍼트는 광주불교방송과 공동으로 4월 15~1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0 국제불교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

행사 첫날인 15일 개막식에는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시몽 스님(백양사 주지), 범각 스님(대흥사 주지), 종삼 스님(화엄사 주지)등 500여 사부대중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영조 스님은 인사말에서 "박람회가 호남불교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불교의 다양성을 일반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불교용품을 비롯해 100여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불교상품과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백양사와 송광사 등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가 각 부스를 설치해 템플스테이와 사찰행사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선운사 조사전 낙성식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4월 13일 석전 영호 대종사 열반 61주기를 맞아 역대 조사스님들의 진영을 모신 조사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조사전 낙성식에는 선운사 창건주 검단 스님을 비롯해 의운 · 설파 · 백파 · 경담 · 환응 · 석전 스님의 진영도 함께 봉안됐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백파연구소 개원, 석전 스님의 독립유공자 지정 추진, 승려노후 수행마을 조성, 복지법인 설립 등 수행과 복지 문화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월운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백양사 前주지 성오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석전 문도회 재곤 · 재덕 · 혜산 · 범여 · 법현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 참석했다.

봉선사 조실 법만 스님은 조사전 낙성에 공로가 큰 상봉 스님, 전경복 거사, 이륵화 보살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승 · 차 · 동백 · 음악이 어우러진 자리

백련사 다례문화제

아름다운 절 백련사 동백숲에서 그윽한 차향기와 음악에 젖었다.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가 4월 10일 '2010 백련사 팔국사 다례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백련사 다례문화제는 고려 후기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 백련결사를 맺었던 팔국사 스님들의 뜻을 기리는 제례의식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음악회 사회자로 현직 목사를 초청하는 등 전통제례의식에 생명과 평화, 종교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10일 오전 백련사 대웅전에서 예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팔국사 위패가 봉안된 대웅전 옆 명부전에서 전통사찰의식인 다례제가 거행됐다.

또 백련사 앞 동백숲(천연기념물 제151호) 부도밭에서 차를 마시고 다식을 즐기며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들차회'도 열렸다. 이어 저녁에는 동백숲 부도전에서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주제로 숲속음악회가 개최됐다.

이번 숲속음악회에는 최명진(미래에서온교회 목사)씨의 사회로 가수 홍순관씨의 생명과 평화의 노래, 늦봄학교 보컬팀의 공연 , 김세화씨의 색소폰 연주, 권형윤씨의 풀잎피리 공연 등이 펼쳐졌다.


4월 10일 팔국사 다례문화제에 모인 200여 사부대중이 고려 후기 나라를 위해 애쓴 스님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주지 여연 스님은 "강진은 백련사의 팔국사와 김영랑 시인, 다산 등 문화콘텐츠가 풍부하다. 앞으로 팔국사 다례재가 강진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 8일부터 만경루에서는 이호신, 박정호, 송필용씨가 백련사를 그린 작품과 대웅보전 벽화를 담은 그림과 사진을 전시하는 '천년의 숨결전'이 25일까지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꽃보다 진한 선지식들의 법향 올 봄에도 붉게 피었네

㉜ 동백꽃 속의 극락 선운사

선운사 골째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디다.

미당 서정주(未堂 徐廷柱, 1915~2000)의 절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바람 불어 설운 날'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을 노래한 송창식의 유연한 가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붉은 동백이 후두둑 눈물처럼 지고 나서야 선운사의 봄은 봄으로 피었습니다.

선운사의 봄은 붉은 눈물을 바람결에 흩뿌리고서야 제대로입니다. 누이의 분홍 치맛자락 같은 진달래 무더기와 노오란 산수유, 화사하게 피었다가 후르르 후르르 흩날리며 풍장(風葬)을 치르는 벚꽃 잎들이 도솔암 내원궁 지장보살의 품으로 귀의하고 나서야 선운사 봄은 제대로입니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그 단순한 가르침 앞에 뭇 생명들이 일제히 숨통을 터 봄을 여는 것입니다. 꽃이 이미 열매고 열매 속에 꽃이 있음을 알아차리라고.

너른 주차장을 지나 선운사 경내로 들어가는 어귀에서, 도랑 건너 잊어진 역사처럼 자그맣게 앉은 돌덩어리를 먼저 만납니다. '미당서정주시비'. 요즘은 새로 세워진 커다란 시비가 있지만, 애초의 그 자리에서 육자배기 가락에 묻은 동백꽃의 환영(幻影)을 노래했던 미당의 시혼(詩魂)이 더 진한 감동으로 다가 옵니다. 시인이 이승을 떠난 지 10년, 아직도 막걸리 같이 걸걸한 목소리로 입을 쩝쩝 다시며 동백꽃을 어루만지는 시인의 얼굴이 거기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근래 새롭게 단장된 선운사 부도밭. 근현대 고승 부도와 탑비 20여 기가 정연하게 모셔져 있다.

백파 탄영 정호 스님 등 부도와 비 정갈하게 정돈
'대기대용' 했던 근현대 스님들의 법문 들리는 듯

선운사 부도밭은 절 오른쪽 동백나무와 전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있습니다. 터를 넓게 잡고 눈썹담을 두른 사각(四角)의 부도밭. 근래에 말끔하게 단장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날의 정경을 응시하고 있는 부도와 비석들이 봄나들이 나온 행락객들의 발자국 소리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곧은 진입로를 따라 배알문을 들어서면 큰방에 모여 앉으신 큰스님들을 배알하는 느낌이 저절로 듭니다. 봄기운에 들썩이는 흙냄새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의 체취일 것만 같습니다. 스승은 가고 후학은 남아 그 가르침을 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는 일, 그 경건한 순환이야말로 중생계에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소식에 다름 아닙니다. 선운사 부도밭에서 만나는 선지식들은 이름만 들어도 저절로 마음이 청량해 지는 스승들입니다.

부도밭 가운데서 걸음을 멈춥니다. 화엄종주백파대율사대기대용지비(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之碑). 사각의 오석 빗돌에 두 줄로 내려쓴 긴 비명이 알지 못할 기운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비문을 지은이 역시 추사입니다. 비의 뒷면을 가득 채운 추사의 찬문은 그 아름다운 문장 속에 한 선지식의 일생을 응축하고 있지만 글씨도 활달자재하게 살다간 도인의 풍모를 닮아 있으니 과연 추사입니다. 대기대용, 큰 기틀로써 크게 쓴다? 자고로 수행자는 그릇이 커야 합니다. 큰 그릇은 비우는데서 만들어지고 비워진 그릇은 온 세상을 담습니다. 담아서 다시 버리고, 버린 곳에 다시 담기를 반복하는 동안 진리의 향기가 스미고 스미어 법의 만리향(萬里香)을 응결시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한국불교의 종장 가운데 한 분인 백파긍선(白坡亘璇 1767~1852). 고창에서 태어나 열두 살에 선운사로 출가한 백파 스님은 당대 화엄학의 대가였던 설파상언(雪坡尙彦)에게 일승원교(一乘圓敎)를 배우고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26세에 백양산 운문암에서 설법을 했던 스님은 구암사에 들어가 설봉(雪峰)의 법을 받고 백파당이라는 호를 받습니다.

수행자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발길을 돌려 떠나고 마음을 돌려 출가에 재출가를 거듭하는 것이 수행의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흔 다섯 살, 백파 스님은 문자에 얽매여 강의하는 자신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5년간 선에 매진합니다. 사교입선(捨敎入禪). 문자로서의 교학을 버리고 선정에 들라는 것은 무조건 책보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공부를 투과하여 선정에 뚫으로써 완전한 진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이해하여 글공부를 하면 선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가 없지 않으니 크게 잘못된 풍조입니다.

말과 뜻은 문자라는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 드러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삼처전심(三處傳心)으로 언어가 끊어진 자리의 맛을 본다고 하여 누구나 참선만 하면 꽃을 든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라는 견해도 결국은 마음과 말씀이 둘이 아니게 회통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백파 스님 역시 문자놀음을 반성하고 정혜결사(淨慧結社) 운동을 벌였고 자신의 선사상을 <선문수경(禪門手鏡)>이란 책으로 밝혀냅니다. 여기서 백파 스님은 임제의 선사상을 마음의 청정함(佛)을 큰 기틀로 삼고(大機) 마음의 광명을 크게 써서(大用) 청정과 광명이 함께 베풀어지는 도(道用齊施)를 재천명 했습니다.

백파 스님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자 초의의순(草衣義恂 1876~1866)이 다른 견해를 드러내며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들 선지식들의 논쟁은 추사 김정희에게도 전이(轉移)되는데, 추사는 백파 스님의 오류를 편지로 적어 보내고, 다시 백파 스님은 13가지의 논증을 담은 답을 보냅니다. 서신으로 교환하던 이 논쟁은 조선 후기의 불교사상계를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으며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니 아름다운 논쟁은 시대를 초월해 구법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철종 3년(1852) 구례 화엄사에서 입적한 백파 스님의 부도는 순창 구암사에 있지만, 비는 입적한 지 6년 후에 조성되어 선운사에 모셔졌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쓴 백파 스님의 화엄종주백파대율사대기대용지비 후면.



근대 선운사를 대표하는 영호당 정호 스님의 부도.

부도밭 맨 윗줄 오른쪽에 영호당 정호(映湖堂 鼎鎬1870~1948) 스님의 부도가 있습니다. 그리 화려하지 않아 질박한데, 그 질박함이야말로 위대한 삶의 주인공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널리 알려진 박한영(朴漢永)이라는 호칭은 속명이고 석전(石顚)과 영호는 법호입니다. 석전이란 법호는 추사가 백파 스님에게 '석전'과 '만암(曼庵)'이라는 글씨를 써 주면서 '법손 가운데 도리를 아는 자가 있게 되면 이 호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한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정호 스님은 백파긍선 스님의 법을 이었다는 뜻이겠습니다.

선운사 아래 질마재에서 태어난 서정주를 시인으로 만든 것은 선운사의 선지식 정호 스님이었습니다. 미당은 정호스님에게 불교정신을 배웠고 그 인연으로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그 인연의 끈이 미당을 동국대에서 재직하게 하고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전북 완주에서 출생한 정호 스님은 장성 백양사 환응(幻應)스님에게 사교를, 선암사 경운(擎雲)스님에게 대교를 이수했고, 1895년 순창 구암사에서 설유(雪乳)스님의 법을 이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운망실(國運亡失)이라는 시절인연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세간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과 불교유신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왜색불교로 변해가는 조선의 불교를 지키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고 시문에도 능해 400여 수의 시를 수록한 <석전시초(石顚詩抄)>를 남겼습니다.

조국의 광복 후 조선불교중앙총무원의 초대 교정(지금의 종정)에 추대된 스님은 1948년 초, 정읍 내장사를 찾아가 주지인 매곡(梅谷) 스님에게 "나 여기서 죽으려고 왔다"는 농담 같은 한 마디를 남기고 입적했습니다. 도인에게는 죽음도 하룻밤 잠자리에 드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그렇게 천진한 한 마디가 가능했을 겁니다. 정호 스님의 문하에서 청담순호(靑潭淳浩)와 운허용하(耘虛龍夏) 스님, 미당 서정주 시인이 나왔으니 한국 현대불교의 청정승풍과 교학의 토대가 여기서 마련되고 한국문학의 찬란한 깃발이 여기서 게양된 것입니다.

선운사 부도밭에서는 경담당 서관, 환응당 탄영, 금호당 동일, 운기당 성원, 청우당 경운, 석문당 남곡, 운파당 원규, 향엄당 대화 스님 등등 선지식들의 쩌렁쩌렁한 법문이 들리는 듯 합니다. 동백이야 시간이 되면 피고 지는 것. 시간 자체를 초월해 한 덩이 돌로 남은 선지식들의 삶과 가르침은 꽃이 피고 지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며 깊은 침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속세의 땟국물에 절은 순례자는 선운사 부도밭을 나서는 순간부터 막걸릿집 여자의 구성진 육자배기 가락에 취해 버리고 싶어집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햇차 선금주문 할인 | 제다 실습

단 한 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한(최고급상)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우전은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세작 50,000원→20,000원(4월20일까지)
중작 30,000원→10,000원(4월30일까지)
배송 : 4월25일~5월30일
※ 행사기간 이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 됩니다.

차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 제다실습
· 차잎따기
· 차의 종류와 제다법 특강
· 제다실습 및 심사평가

● 실습 茶 종류
2010 햇차(녹차) · 청차 · 황차
보이차 · 떡차 제다실습

※ 단체 · 개인 모두 접수 가능하며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다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 실습비 : 1인 1만원, 차잎 1kg당 1만원~2만원 (5월 부터)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
후원 : 무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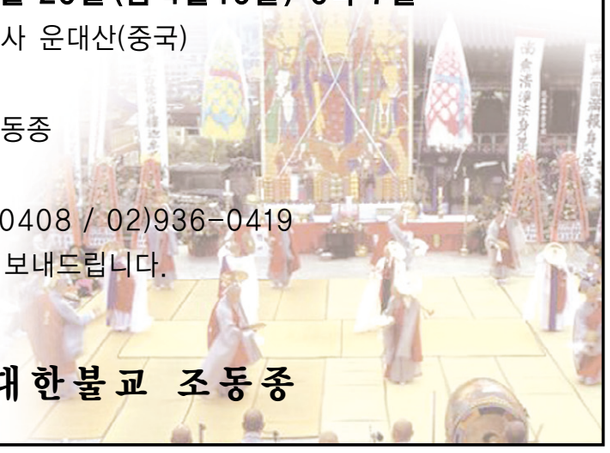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원 ▲제다체험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

서해 천안함 전사 장병 추모 및
국가의 안녕 기원 수륙 고혼 천도 대재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에서는 서해 천안함에서 전사하신 장병들의 고혼을 위로하고 나라에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대재를 서해 선상에서 봉행을 하고 7일간 중국 선종사찰 성지순례를 봉행하오니 수륙천도대재에 수희 동참하시어 모든업장이 소멸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2554년 5월 29일 (음 4월 16일) 6박 7일
■ 장 소 : 구련산 소림사 운대산(중국)
■ 동참금 : 63만원
■ 주 최 : 대한불교 조동종
■ 후 원 : 풍경여행사
■ 문의처 : 02) 2091-0408 / 02)936-0419
■ 전화주시면 일정표를 보내드립니다.



묵조선풍 대한불교 조동종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2>

불법은 영원하지 않다

한 스님이 물었다.
"이 일을 어떻게 가려내야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자네를 괴이하다고 생각한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네가 가려내지 못한 것을 괴이하게 생각한다."
스님이 물었다.
"그러면 보림(保任)하면 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보림(保任)하고 보임하지 않는 것은 네 스스로 살펴라."

問 此事如何辯 師云 我怪你 學云 如何辯得 師云 我怪你不辯 學云 還保任否 師云 保任不保任自看

한 스님이 물은 '이 일'이란 '도를 얻는 것' '깨달음' '화두 타파' 등을 말한다. '가려냄'은 탁하고 가변이 되는 것들을 모두 털어내고 진정한 불법의 정수를 얻는 것을 뜻한다. 학승은 '어떻게 가려내야 진정한 법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참과 거짓, 부처와 중생, 도와 도 아닌 것을 가려내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하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조주 스님은 뜬금없이 "나는 네가 그렇게 묻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된다"라고 대답했다. "가려내다니, 자네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다고 더 가려낸다는 말인가?"라는 반문성 힐책이다.

두 번째 질문은 학승이 못 알아듣고 거듭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다시 물은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너는 이미 가려내고 있어. 다만 가려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네가 이상할 뿐이야"라는 가르침이다. 학승이 무엇인가 알아듣고, "그럼 여기서 보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조주 스님은 "그것은 네가 스스로 나는 완벽한가 부족한가 살펴서 해라"라며 말을 마쳤다.

스님이 물었다.
"지해(知解)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問 如何是無知解底人 師云 說什麽事

지해(知解)는 아는 것을 말한다. 흔히 알음알이라고 한다. 진실을 알려면 아는 것을 버려야 한다. 사람이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약속한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진리는 못된다. 예컨대 '높다'라는 개념은 실제 높은 것이 있어서 높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사람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이다. 지구는 둥글다.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 위에 서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옆으로, 혹은 거꾸로 서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어찌 '높다'라는 말이 진실이겠는가. 이런 식으로 진리를 찾아들어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말도 진실이 아닌 사람들의 약속된 언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알음알이가 진실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선문(禪門)에서는 아는 것을 버리라고 강조한다.

학승이 조주 스님에게 지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었다. 학승은 선문에서 말하는 무지해자(無知解者)는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조주 스님은 현재 학승이 질문한 것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백치와 같은 사람의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무지해자를 인지시켜주었다.

스님이 물었다.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와 전하려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은 법상에서 내려 왔다.
스님이 물었다.
"그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

진실을 알려면 아는 것을 버려라

진리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問 如何是西來意 師下禪床 莫便是否 師云 老僧未有語在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선문의 골수 법문을 말한다. 학승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조주 스님은 선상(禪床)에서 내려온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선상에서 내려온 뜻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조주 스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대답은 화두가 될 수 있다.

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번 탐구해 볼만하다. 여기에는 이중 삼중의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을 찾아야 한다. 대략 일주일 정도 탐구한다면 선사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 답으로 선사를 찾아가서 한번 법거량 해보기 바란다.

스님이 물었다.
"불법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조주 스님이 되물었다.
"자네, 한번 생각 해봐. 옛날 전한과 후한의 천자들은 천하를 손 안에 쥐고 흔들었지만 임종할 때는 동전 반쪽조차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았는가."

問 佛法久遠如何用心 師云 你見前漢後漢把攪天下 臨終時半錢也無分

불법이 영원하다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불법을 불법이라고 부르는 이상 불법은 영원할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없어진다. 천하 영웅들이 세상을 쥐고 흔들어도 죽을 때는 동전 반쪽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무엇을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조주 스님은 불법은 영원한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특별히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스스로 부처인 것을 깨닫고 의연히 부처의 행을 하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불법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어느 종교건 그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곧 쇠퇴해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불변의 법칙이다.

스님이 물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귀한 보물을 존중합니다. 사문은 무엇을 존중합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당장 입 다물어라."
스님이 물었다.
"입을 다물면 되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만약 입을 다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問 時人以珍寶爲貴 沙門以何爲貴 急合取口 學云 合口還得也無 師云 口若不合爭能辨得

세상 사람들은 진귀한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만, 출가한 사람은 무엇보다 침묵을 귀하게 여긴다. 진리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진리에 다가가면 갈수록 말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도(道)를 아는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다. 입을 열면 도는 멀리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道)를 표현할 기회인데도 매번 침묵할 수는 없다. 설사 침묵하고 있다고 하여도 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조주록>에서 매번 기이한 행동과 은유 · 비유를 섞어서 도를 표현했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7

불도를 수행하는 것

또, 하루 여섯 차례 불도를 수행한다 하는 것은 이른바, 육근 안에서 항상 불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온갖 각행(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보살의 불도수행, 보리행)을 닦아 육근을 편안하게 다스려서 편안하게 다스려진 것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여섯 차례 도를 행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탑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니 각혜(분별하지 않는 지혜의 힘)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두루 돌게 하는 것을 탑돌이라고 하느니라. 과거의 부처님들도 이 도를 행해 열반을 얻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찌 도를 행한다 하리요. 우둔한 무리들은 안으로의 수행은 하지 않고 오직 밖으로만 구하느라 세간의 탑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분주히 돌기만 하니 공연히 피곤하기만 하지 진실한 본성에는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으니 매우 가엾은 일이로다.

[원문]

又六時行道者 所謂六根之中 於一切時 常行佛道 佛者覺也 卽時修諸覺行 調伏六根 六情淸淨

長時不捨 名爲六時行道 塔者身心也 常令覺慧 巡身心 念念不停 名爲 塔 過去諸聖 曾行此道 得涅槃樂 今時世人 求解脫者 不會斯理 何名行道 竊見今時鈍根之輩 曾不內行 唯執外求 世間塔 日夜走驟 徒自疲勞而眞性一無利益 迷愚之輩 甚誠可愍歎.



동성 스님 作

[해설]

사람에게는 안(眼) · 이(耳) · 비(鼻) · 설(舌) · 신(身) · 의(意)의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 기관을 통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느끼고, 춥고 더운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하루 여섯 차례 불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육근을 통해서 경계에 끄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행(覺行)은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항상 마음속에 한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육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심경계에 들어가게 됨을 뜻합니다.

각혜(覺慧)란 깨달은 지혜입니다. 몸과 마음을 두루 돌게 하는 것을 탑돌이에 비유한 것은 우주를 그대로 보고 마음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우둔한 사람은 내 마음이 부처인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끄달려서 행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형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이것을 하면 공덕이 된다'는 것을 믿고 행위를 하지만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행하지 못한다면 깨달음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또 재(齋 : 신 · 구 · 의의 3가지 행위를 삼가 몸을 깨끗이 하는 것)를 지닌다 하는 것에서 '재'라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다스려 어지럽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지닌다' 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으로 모든 계행을 법대로 지키되 반드시 육정(喜 · 怒 · 哀 · 樂 · 愛 · 惡: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여섯 가지 감정)을 붙들어 매고 삼독을 눌러, 깨닫고 살피는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니라.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야 '재'를 지킨다 말 할 수 있느니라.

[원문]

又持齋者 當須會意 不達其理 徒施虛功 齋者齊也 所謂勤治身心 不令散亂 持者護也 所謂於諸 戒行 如法護持 必須禁六情 制三毒 勤修覺察 淸淨身心 了如是義

[해설]

불교 달력에 재라는 날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생활 속에서 말 · 생각 · 몸으로 행하는 행위들이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재(齋)는 몸과 마음을 항시 편안하게 해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대로 지킨다'는 불교의 '오계(五戒)'를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마 스님의 '내 마음속에 대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로 본다면 모든 생명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게 되면 나를 죽이게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내 것을 훔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로 보고 행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연기나 인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여섯 가지 감정인 육정(六情)에 끄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익혀온 습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업을 녹이는 수행을 해야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게 됩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도 하나의 법으로 본다면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탐 · 진 · 치 삼독(三毒)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재를 지키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서 우주를 하나로 보고 있는,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석가세존진신 치아사리 봉안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2010년 경인년 봄 금강산 산신대재

소통과 화합의 봄은 금강산에서….
국내최초의 금강산 산신대재를 통해 금강산 산신님의 위신력에 흠뻑 취해봅시다.
〈사업번창, 가내길상, 건강증진, 우환극복, 부자되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금강산 산신대재의 봉행은 범음 · 범패와 전통의식을 통한 여법 한 행사로 진행됩니다.

■일 시 : 2010년 4월 24일 오전 10시
■장 소 :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동참금 : 3만원
■문 의 : 1) 서울, 경기지역 ⇒ 건봉사 서울포교원 벽운사
www.bwjisan.com 02-979-0108, 971-1544
2) 통합전지역 ⇒ 건봉사 종무소 (033-682-8100~3)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 7 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 구 교 육 원 053-566-1116 /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 산 교 육 원 051-636-2972 / 광 주 교 육 원 062-672-5432 / 울 산 교 육 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부처님 언행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 수행



밀양 무이정사 주석 거부 스님

거부 스님은 ...

1944년 대구의 명문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홀어머니의 입적으로 삶의 무상(無常)을 느낀 후 도광(道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법명은 거부(巨芙), 강호(講號)는 무이(無二). 뛰어난 한학 실력을 지닌 스님은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1994년까지 범어사 강원의 강사를 맡았다. 1996년 수덕사 승가대학을 개원한 스님은 <치문>부터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주해(註解)를 달아 승가대학 교재로 완간했다. 1986년 은사스님이 유언으로 남긴 일차 종단정화일지를 탈고해 <한국불교승단정화사>를 발간했으며, 2005년 <사명대사어록>을 번역 출간했다. 스님은 이듬해 <사명대사 난중어록>을, 2009년 말 <서산대사어록>을 번역 출간해 불교계와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현재 밀양 무이정사에서 역경과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서산-사명 대사 선교겸수 전통 이어야

수행 · 자기일에 충실… 묵언으로 감정 조절

십수년 전 전통강원(현 승가대학)에서 학인스님들이 배운다는 경전이 궁금해 한문과 한글을 대조해가며 공부한 적이 있다. 그런데 <치문> <서장> <도서> <절요> <선요>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기신론> <화엄경> 등을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경전의 표지에는 한결같이 '강사 거부(巨芙) 역주(譯註)'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이 방대한 강원 교재를 번역하고 주석을 단 스님이 어떤 분일까.

청명인 4월 5일 식목일 이른 아침, 경남 밀양 무이정사를 찾았다. 거부 스님께 일 배를 올리니, 스님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사명 대사 춘계 향사(享祀) 이야기부터 꺼내신다.

"올해는 사명 대사 입적 400주기를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호국성지 표충사에서는 4월 17일 오전 10시 제533회 '호국대성 사명성사 춘계향사'를 봉행합니다. 임란병화(壬亂兵火; 1592년)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신 3대 성사(서산 · 사명 · 기허 대사)의 호국충혼을 추모하고 선양하는 불사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거부 스님이 사명 대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까지 수덕사 강주를 맡았던 거부 스님은 건강이 악화돼 물 좋고 공기 맑은 밀양 표충사에서 휴양 겸 수행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창고 문을 열어보니 목판이 넘어져 있는데, 목판의 간지에는 '사명당 문집'이란 글귀가 쓰여 있었다. 1612년도에 판각된 목판이니 무려 400여 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본 순간이었다. 대학생 두 명과 함께 목판을 소금물로 씻어 살펴보니 하나도 분실된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사명 대사의 어록이 잇달아 출간되자, 세간의 일부 석학들이 "사명 대사는 수도자이기보다는 전쟁을 지휘한 장군이어서 서산 대사의 법맥이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에 거부 스님은 서산 대사의 문집인 <청허집>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사해와 자세히 연구했다.

아니나 다를까 <청허집>에는 서산 대사가 애제자인 사명 대사를 아끼는 시가 몇 수나 들어있었다. 송광사판 <선귀귀감>에는 사명 대사가 발문을 썼을 정도로 사제지간의 정은 각별한 것이었다. 특히 선암사판 <불조원류>에는 서산 대사가 편기언양 선사보다 빠른 상수(上首)제자 즉, 수제자로 확실히 기록돼 있었다.

아울러 세간에서는 사명 대사가 살생을 많이 한 장군이어서 과연 법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 분이 남긴 일화는 생사를 초월한 도인이 아니고서는 흉내 낼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거부 스님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 중 울산 서생포에서 왜장 가등청정(加藤淸正)을 만났을 때의 문답이다.

"조선에 보배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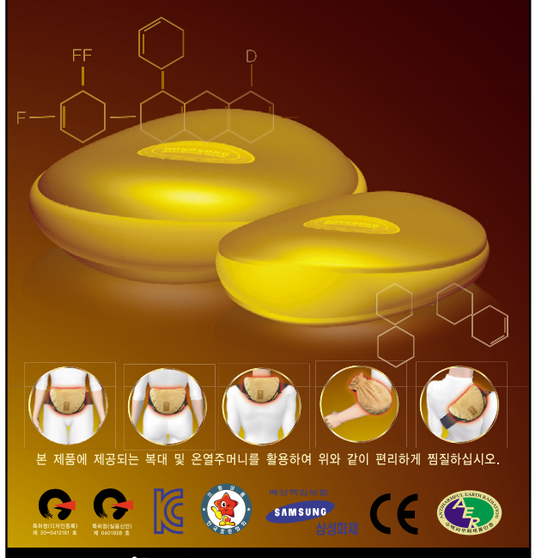
"없다. 보물은 일본에 있다."

"무슨 소리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대 머리를 보배로 보고 있으니, 이는 일본에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적장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 담대한 할(喝)을 날릴 정도의 부동심(不動心)을 지닌 사명 대사를 추모하는 표충비(表忠碑)가 세워진 것은 1742년. 그 이후 비석은 나라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렸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으니, 세인들은 이것이 사명 대사의 도력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명 대사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거부 스님은 세간에 잘못 알려진 관련 기록을 정정하기도 했다. 그 첫째는, 12세부터 17세까지 다양한 출가년도가 이설로 회자되는 사명 대사의 법랍 문제. 스님은 사명 대사의 제자인 해안 스님이 기록한 행장 등을 검토한 결과 사명 대사는 15세에 출가해서 67세에 입적했으며 법랍이 53세 3개월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학계에서 쓰고 있는 '사명당(泗溟

GOLD Bulgama
황금빛 찜질로 건강100세!
"우리 몸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황금빛 찜질" 불가마 골드의 온열요법은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찜질 문화를 선사합니다.
• 불가마 골드는 5분 충전으로 2~3시간의 무선온열 뜸 · 찜질 체험 •
• 삼마준바이오, 토르마린, 비장탄 등 배합으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 금 도금처리, 온열요법 및 파동요법, 유해파 중화 기능 •

본 제품에 제공되는 복대 및 온열주머니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편리하게 찜질하십시오.
(주)동성웰빙홈 | 심전 대리점 송정미
011·9865·9401/070·7523·940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사찰 (전문시공),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내 마음 깨끗해야 광명 비춰



堂)'의 '콧물 사(泗)'는 '넉 사(四)'자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조사 가운데 서산 대사를 특히 존경한다는 거부 스님은 수행법 역시 서산 대사의 선교양종존(禪敎兩宗尊)의 가르침을 따른다. 거부 스님은 학인들을 가르칠 때도 철저히 선교겸수의 전통을 따랐다. 낮에 경전을 공부하고 울력을 하더라도 새벽이나 밤에는 반드시 일정 시간의 좌선을 하도록 가르쳤다. 아울러 스님은 성철 스님이 강조한 '단박 깨침' 즉 돈오(頓悟)보다는 차츰 공부해서 깨닫는 점오(漸悟)를 강조한다. 하루아침에 확철대오한 육조 혜능 선사와 같은 대근기가 아니라면 돈오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차근차근 성실하게 공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선가귀감>에 '고지학불자(古之學佛者)는 비불지언(非佛之言)이면 불언(不言)하고 비불지행(非佛之行)이면 불행야(不行也)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언행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늘 부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온 거부 스님의 평상시 수행은 어떠할까. 경전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독송하는 일이 본업인 스님은 틈틈이 좌선하며 '이뭣고?' 화두를 드는 이외에 포행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하신다.

"범어사에서 강사 생활을 할 때는 이틀에 한 번 금정산 정상을 등산했습니다. 수덕사에서 강주소임을 볼 때는 덕숭산을 매일 2시간씩 올랐지요. 표충사 한주로 살 때나 여기 무이정사에 머물 때는 제약산(해발 1180m)의 사자평 갈대밭까지 매일 낮 2~3시간 정도 포행을 합니다."

포행 중에는 <금강경>을 외우거나 주력을 한다. 수행자가 할 일 없이 등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부 스님은 포행 중에 대중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칠 때는 대중이 모두 편안하게 공부해서 인천의 사표가 되길 발원하곤 했다. 오랫동안 <금강경>을 독경하면서 느낀 경험담을 여쭈니, 이런 말씀을 하신다.

"재가자들이 수행의 체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수행의 경계는 스승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계를 느끼거나 심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자랑삼아 공개하면 더 이상 진보하기 어렵습니다. 수행자에게는 꼭 필요한 3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수행의 과제에 충실함이요, 자기 일에 충실함이요, 묵언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 스님은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오가해(五家解)를 반드시 봐야 한다며, 재가자들이 동성상응(同聲相應)하고 동기상구(同氣相求)하는 도리즉,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며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구하는 도리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낸 소리가 산울림이 돼 다시 돌아오듯이, 사회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뱉은 만큼 자업자득이 돼 돌아오니,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삶이 돼야 합니다. 야보 선사는 '물 맑으면 구슬 빛이 나고, 구름 걷히면 달이 더욱 밝다[水澄珠瑩 雲散月明]'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즐겁고 깨끗해야 남에게 자비와 봉사와 같은 광명을 비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을 나타낸 게송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유명한 금강경 4구게 등이 있지만 스님은 의외로 말할 수 없다며 대신 이런 말씀을 하신다.

"경전에는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지대한 공덕이 있다고 설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부처님 말씀과 행동을 따라서 실천하는 공덕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거부 스님은 15년 여간 강원 교재를 직접 번역하고 주를 달아 책을 발간한 후 이를 전국 강원에 법보시하는 불사를 쉬지 않고 해왔다. 당시에는 탄허 스님이 토를 단 한문 경전이 주로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강원마다 교재가 다르고 책도 없어서 학인들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교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자 스님은 강사료를 모아 강원 교재를 일일이 만들어 법보시하는 보살행을 남몰래 해왔다. 강의하기도 바쁜 시간을 쪼개 방대한 경전을 번역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출판 비용을 직접 마련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사중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몇몇 신도들의 보시와 자비를 들여 출간한 책들의 무려 70%나 법보시를 해왔다니 스님의 원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거부 스님이 강의와 번역, 책 법보시 등을 한결 같이 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범어사 강원에서 공부할 당시 남몰래 법당에서 올린 서원 때문이라 한다. 스님은 강원에 입학하자마자, 삼천배를 하며 남몰래 서원을 하게 된다.

"그날 밤 일불제자(一佛弟子)의 이념으로 도제양성(徒弟養成)을 서원하고 평생 공찰의 주지소임을 맡지 않는 등 명예를 쫓지 않고 상좌를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스님은 그날 밤 서원한 자신과의 약속을 한 시도 어긴 적이 없다. 절 주지를 맡을 기회도 있었고, 은사로 모시려는 후학들이 적지 않았지만 스님은 한사코 사양하고 강백(講伯)으로서의 외길만을 걷고 있다.

1996년 수덕사에 처음으로 강원을 개설할 때의 일이다. 1995년 강원을 개설해 달라는 수덕사의 요청이 있었지만, 인연 없는 곳이라 여겨 가지 않았다가 은사 도광 스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에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은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받은 거부 스님은 故 법장 스님이 주지로 재임하던 시절인 96년 2월부터 수덕사 학인스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시작하고 7월 1일 강원 개원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고전 번역자가 없어서 큰 일입니다. 번역도 포교라는 사명감으로 남이 손을 대기 힘든 경전과 어록의 번역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현재 송광사판 <선가귀감>과 <경허집>을 번역 중인 거부 스님은 서산 대사의 <도가귀감>과 <유가귀감>도 번역할 예정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젊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부탁드리자, 거부 스님은 앞에서 한 이야기가 전부라며 부처님 닮아가는 삶을 살자고 거듭 당부한다.

"자연은 가식이 없어서, 농부가 키운 대로 보답을 해요. 자연과 더불어 욕심 내지 않고 사는 것이 부처님 언행을 따르는 수행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됩시다."

글 · 사진=김성우(작가 · 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9. 대만 불광산사 조실 성운 스님

1927년 중국 강소성 강도(江都)에서 태어난 성운 스님은 12세 때 의흥대각사에서 지개 법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41년 서하산(棲霞山)에서 비구계를 받고, 초산(焦山) 불산 불학원에서 수학한 뒤 임제종 제48대 법맥을 이어받았다. 호는 지개(志開), 법명은 오철(悟徹)이라 불렀다. 이는 뜻이 열리고, 깨달음이 철저하고, 지금 당장 깨달음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스님은 1949년 대만으로 건너와 1950년<인생월간>을 편집했다. 1952년 의란 뇌음사에 염불회, 홍법단 등을 조직하고 포교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1959년 대북 불교문화 복무처를 만들고, 불교서적 출판과 녹음테이프를 제작했다. 이처럼 성운 스님은 문화 사업에 일찍이 눈을 뜬 분이다.



(法力)을 쌓았다. 스님은 출가하면서부터 육자대명주 '옴마니반메훔'을 주로 외웠다. 성운 스님은 "걸으면서 묵송하는 육자대명주가 산길을 홀로 걸을 때 용기를 가져다주곤 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서는 <유마경>과 <약사경>을 독송하면서 인간정토(人間淨土)의 청사진을 그렸다.

기독교세 강하던 대만서 50년 만에 인구 80% 불자로 포교

성운 스님은 1963년 고웅 노도사를 창건하고, 1967년 불광산을 개산하면서부터 세계적인 고승으로 발돋움 했다. 스님은 1967년 고웅현 대수향에 불광산을 세우고 불광정사(양로원), 대자유치원(고아원), 불교진료소 및 보문중 · 고 등을 설립해 인재양성과 복지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대만 국부기념관에서 1991년 불광협회를 창립해 세계 각지에 '인간불교 및 인간정토' 건설을 발원했다.

현재 스님은 4개의 종합대학(대한남화 · 불광대, 미국 서래대, 호주 남천대)과 13개의 불교대학, 불광 의료원, 22개의 도서관 등 단일사찰로는 세계 최대 포교조직을 운영 중이다.

12세에 출가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온 몸으로 불법을 체득해 온 스님은 진언, 염불, 좌선, 묵언, 간경 등 여러 수행방편을 걸림 없이 닦아 남모르는 법력<심경>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유(有) · 무(無)를 초월한 법열을 즐겼다.

성운 스님의 제자는 200여 비구와 3000여 비구니가 있고, 재가법사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교육단체 중 부도위기에 처한 곳이 있으면 이를 인수해 불교사업 도량으로 만들었다. 그곳에는 정년퇴직한 불자 교육인을 투입해 불자들이 제2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

필자는 성운 스님의 제자 의인 스님이 동국대학에 유학오면서부터 성운 스님과도 인연이 됐다.

성운 스님은 기독교인이 대다수였던 대만에서 50여 년 만에 인구 80%가 불자일 정도로 기적 같은 포교 성과를 일궈낸 선지식이다. 그러나 소수의 불자들은 불광산사의 비약적인 성장에 성운 스님의 사상이나 수행력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스님을 '포교승' '행정승'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분별심은 성운 스님의 크나큰 발원을 알지 못하는 좁은 소견에 불과하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0만 신도들이 성운 스님을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존경하는 것은 스님의 깊은 수행력과 원력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난 것이다.

불교의 생활화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생활과 불법이 여일한 신행을 말한다.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여법하게 살아가는 생활이야말로 불자들의 이상이다. 대만의 성운 스님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자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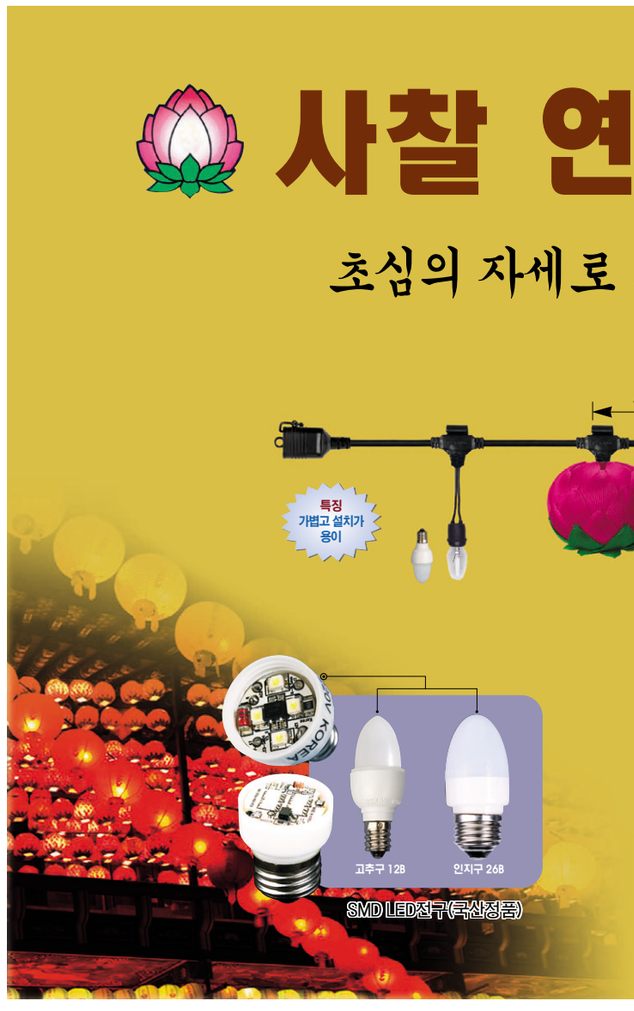
"인간성 회복을 위해 대중과 함께하는 교육을 펼쳐야 합니다. 과거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 부처님은 탁발을 하며 대중들과 늘 함께 했고 단 한 번도 사회와 격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불법(佛法)이라도 인간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불교, 세간 불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 불교는 윤리를 비롯한 경제관을 강조하고 우리들의 정서 감정처리도 해결해 줍니다. 더불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는 사람들과 더욱 가깝게 다가가 그 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성운 스님은 법문 할 때면 보통 인생, 보통 사람을 향한 법문으로 인간정신에 보살사상을 곁들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교를 주장했다.

"불교 홍포가 바로 수행이다. 불교는 기복적인 신행에서 실천불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성운 스님은 지금도 세계 100여 나라, 170개 협회의 불광회에서 모든 존재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 입니다.



불제광원기업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불교출판은 '나의 삶' 출판인으로서 긍지 갖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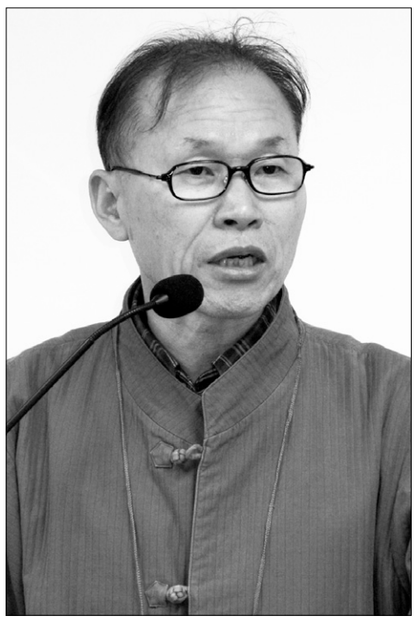
강 사 : 윤창화(민족사 대표)
일 시 : 2010년 4월 13일
주 제 : 불교출판을 성찰한다
장 소 : 동국대학교 충무로 영상센터
주 최 : 불교출판문화협회

불서 출판은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포교사업이다. 포교적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대부분은 "내적·경제적으로 열악하다, 인적자원이 없다, 풍부한 필자가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일색이다. 하지만 불교출판업계 관계자는"불자들의 독서문화 풍토도 한 몫하지만 열악한 불교계출판시장에서의 출판인의 자세와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는 불교출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자 '고전과 미래'를 주제로 5주간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불출협은 '고전과 미래'를 주제로 4월 13일~5월 13일 매주 화, 목 오후 7~9시에 동국대학교 충무로 영상센터 신관 101호 세미나실(한옥마을 입구)에서 강좌를 진행한다.

△4월 15일: 미래의 출판은 지식콘텐츠 사업이다(1)(유재건 그린비 대표) △4월 20일: Social Publishing 플랫폼은 무엇인가(김종민 前 청와대비서관) △4월 22일 미래의 출판은 지식콘텐츠 사업이다(2)(유재건 그린비 대표) △4월 27일 종합베스트 1위를 만드는 출판마케팅 전략(김선식 다산북스 대표) △4월 29일 경전번역과 불교한자의 이해(이인혜 역경원 역경위원) △5월 4일 국내외 불교학 연구 동향(김호성 동국대 교수) △5월 6일 일본의 불교, 그리고 불교학(김호성 동국대 교수) △5월 11·13일 고전에서 미래를 찾는다 (이동철 용인대 교수)의 강좌가 진행된다.

특별강좌 첫 주자인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4월 13일 '불교출판을 성찰한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윤 대표는 "좋은 책은 반드시 판매도 잘 된다"며 양서(良書) 출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교출판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날 강연의 요지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1930년대 식민지하에서 불교포교에 진력한 사람은 백용성 스님·안진호 스님·김대은 스님이었습니다. 이들이 택한 포교 방법은 책을 통한 불교 알리기였습니다.

용성 스님은 1921년 출옥해 불교포교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선언하고 삼장역회·대각교당출판부를 만들어 약 35종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진호 스님은 만상회를 만들어 불자들에게 불교지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대은 스님 역시 불교시보사를 설립해 불교시보라는 신문과 저술, 출판을 통해 불교포교에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불교출판인은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성인·지식인·문화인이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司徒)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표로 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불교출판인은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성취를 느끼지 못해 의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의미 부여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불교출판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상식 이상의 깊은 이해와 불교의 기초교리 이상은 숙지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초교리 정도는 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직업·사회적 관점으로 불교출판업을 하지 말고, 직업과 신앙의 일체를 추구해야만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긍지를 가지려면 너무 금전적인 문제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긍지가 밥 먹여 주나"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어떤 책이든 못 만들 책이 없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불교출판인만의 기업경영철학을 갖자

부처님 말씀, 불교 교양·지식 등을 전달하는 불교출판인들은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담아서 제공해야 합니다. 때문에 불교 편집자와 출판인은 사회적 지식에 대한 교양 외에도 불교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도록 독서를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춰야 합니다. 얼마만치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때론 부족한 원고가 훌륭한 책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또 출판은 소기업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문화적 역할이라는 상반된 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경영 위주로 가면 문화적 역할을 등한시 하게 되고, 너무 문화적 역할이나 출판의 의미부여에 치중하면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분야에 철학이 있듯, 출판을 포함한 '기업경영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출판의 경우 '불교를 보다 올바르게 서술·포교한다'등의 불교적인 생각이 추가돼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자·독자·거래처(특히 하청업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들과의 약속이행은 기업경영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대행사, 지업사, 인쇄소, 제책사 등과의 대금지불약속은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적 물적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한 곳만 공략해 출판사만의 색깔을 갖자

출판에 대한 감각과 재정능력이 충분해 종합출판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교출판은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것저것 손대봐야 결국은 손해보고 맙니다. 설사 손해는 안 본다고 해도 정신력·체력이 낭비됩니다. 특히 정신력 낭비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합니다. 지치면 출판은 끝입니다.

출판의 지향점이 비즈니스 위주로 간다면 출판사의 성격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의미와 경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추구하고자 한다면 출판사의 성격, 즉 출판사만이 지니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출판인들은 컬러를 갖지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돈 벌자는 위주입니다. 기업이고 사업이므로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특히 불교출판에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등 일간지의 1면을 보십시오. 일반 광고가 신문 1면 하단전체에 실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1면에 책 광고를 명함크기로 규정화해 싣습니다. 아무리 많은 광고비를 주어도 1면에 일반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이를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기업이 돈벌이에만 매달리고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출판은 문화적 역할이 우선이고 다음이 사회적 역할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사회적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이 우선입니다.

좋은 책은 반드시 판매도 잘 된다

좋지 않은 책이 잘 판매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좋은 책, 양서, 교양도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출판 사업을 할 때 7~80%를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나갈만한 책, 베스트셀러 쪽에 20%를 배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오늘날 국내 출판업계를 본다면 충실한 교양적 성격의 책을 내는 것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광고만 요란한 출판사 치고 잘 버티는 출판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출판 초기에는 한 권의 책을 낼때 마다 의미·가치 부여가 돼야 하고, 출판된 책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시시하거나 보편적인 책은 출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책 종수가 100권 이상이 되면 가능한 원고를 엄선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되는 책이든 의미가 있는 책이든 둘 중 하나가 돼야합니다.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년에 1쇄(2000부)로 10년 동안 나갈 수 있는 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순익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책의 함량은 100%를 기준으로 80% 이상은 돼야합니다. 한권의 책이 인생의 장래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 사마천의 사기 중 열전(列傳)을 읽고 인생의 진로를 잡게 됐습니다. 이처럼 출판은 지식전달의 가장 중요한 매체로서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기도 합니다.

직업의식, 프로의식을 갖자

'잠깐만 불교출판업계에 머물러야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불교출판은 나의 평생 직업, 나의 천직'이라는 의식 하에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단출한 책방일지라도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의미적으로도 성공합니다. 즉, '불교출판=나의 삶'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책이 한권씩 나올 때마다 출판사의 이미지가 제고돼야하고 동시에 그 출판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직원의 가치도 함께 상승해야 합니다.

삶과 일이 합일되지 않는다면 돈은 벌릴지 몰라도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판인, 편집자는 좋은 책으로 자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나이 40이 됐는데도 타인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 후의 인생은 볼 것도 없다"말했습니다. 책 한권이 출판사와 종사자 모두를 평가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리=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 불교출판인이 가져야할 마음자세 '긍지'
–지나친 상업위주의 출판, 시류에 편승한 출판은 긍지를 갖기 어렵다.
–긍지가 없으면 아무 책이나 출판하게 된다. 금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다.
–돈에 함부로 고개 숙이지 말라. 때론 돈을 돌처럼 볼 줄도 알아야 한다.
–아무 책이나 내면 출판사의 자산가치가 떨어진다.
–동시에 자신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이익만 추구하면 긍지를 갖지 못한다.
–역할이 없으면 긍지를 갖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윤창화 대표의 노하우
– 부단히 노력하라: 무슨 책을 만들까 부단히 골몰하라.
– 공부하라: 불교출판인은 경영자든 편집자든 불교교리공부+출판+기업경영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인생에 요행은 없다: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언제가 와도 성공하지 못한다.
–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시도해보고 결정하라.
– 자기 나름대로 출판경영철학을 세워라: 불교출판=나의 삶
– 안일, 안주는 그 자리가 무덤이라고 생각하라: 모든 것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아이템 개발을 게을리 하면 낙오자가 된다.
– 소 궁둥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닭 주둥이가 되라: 큰 조직의 말석을 차지하기보다 작은 조직의 우두머리가 돼라.
– '왜'라는 의문사를 던져라: 출판에서도 개인의
– 나는 '이런 책', '이런 것만'은 못한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불교출판인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司徒)

불교출판인은 한국불교에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최소한 종단에 포교원이 생기기 이전(1901~1990)만 해도 일반 사회인과 불자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기초적인 지식·전문지식을 전달한 것은 바로 불서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불교출판인이 있었고 이들은 100년 가까이 불교포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 불교전문서점에서 불자들이 진열된 불서들을 보고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요절복통 여래네 집

#8.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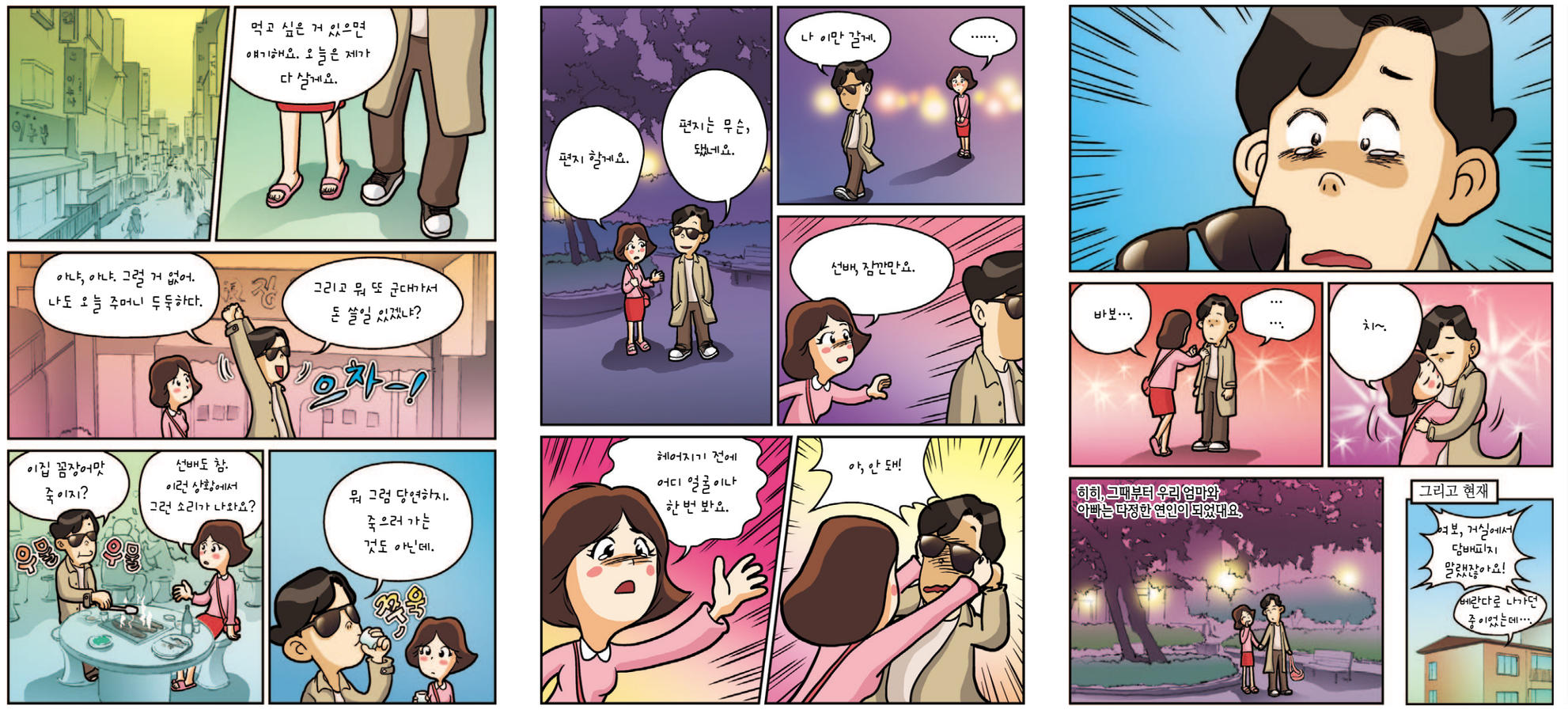


스튜디오 돌



이주일의 화두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질지라도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수행자는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보적경



(사)전통불교영산회 회원스님 초청

제3회 낙동강 수륙고혼 방생 천도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무심사에서는 해마다 봉행하는 '낙동강 수륙대제'(물,육지에서 헤메는 영혼과 아귀를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를 **영산회 회원스님 30여분**을 특별히 모셔 수륙고혼 방생 천도대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범패라는 불교음악으로 의식문을 창하며 여기에 반주악기로서 태징, 목탁, 요령,북등이 따르며 의식의 중요 부분에는 무용(춤)이 곁들여 짐니다.
공덕중에 으뜸인 수륙고혼대제 천도법석에 수희 동참하시어 스스로 자신을 닦고 조상과 자식의 복전을 일구워 한량없는 무량공덕을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0년 4월 25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무심사 경내
▶ 행사내용 : 1부 – 수륙제,천도법회
2부 – 색소폰 연주 음악회(연주 : 박정태 외 다수), 달마도 시연





※ 영가위패 올리실분,천도제 동참불자님들은 미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매주 토요일 천수다라니 철야정진 기도도량

– 무심사 사부대중 합장 –

■ 찾아오시는 길 – (구마고속 현풍IC – 구지, 이남 – 곽재우묘에서 2Km 지점 낙동강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 2리 810-10 (낙동강변) / 055)532-0408 , 010-9898-0108 (무심스님)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뀌드립니다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실증설(實證說)**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로 보인 1부와, 태초로부터 영겁에 이르는 성품의 이치를 낱낱이 법문으로 설한 2, 3부를 보아 실증하기를...
www.zenparadise.com

신간!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대원 선사 서문 중에서...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강은 흘러야 한다



낙동강과 삶을 함께 하는 인생이 있다. (사)낙동강공동체 대표 김상화 선생이다. 그동안 이력과 경험을 보면 '낙동강 아바타(化身)'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5년 동안 무려 1370번 낙동강을 답사했고, 787회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 낙동강 환경 과제를 제시했다.

김상화 선생은 이같은 경험을 담아 <강은 흘러야 한다>를 최근 출간했다. MB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이다. 자연환경론자의 낙동강 보존론의 핵심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근거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현장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책을 펴면 첫 장에 강물 같은 시(詩)가 흐른다. 강은교 시인의 '아아, 낙동강-내일이면 늦으리'라는 제목의 시다.

수천 살의 은빛 바람/푸른 허리에 꽂고/수만의 흰 구름 이마/안고가는 그대 … 중략 … 내일이면 늦으리/달려라 아름다운이여/이제 우리/푸른 그대 가슴에/빛나는 저 별 놓으리

<강은 흘러야 한다>는 모두 4편으로 구성됐다. 각 편 제목도 강물 같은 정서가 흐른다. 제1부 '결결이 아름다운 옥빛 생명의 강'은 낙동강과 첫 인연을 맺게 된 동기부터 1300리 물길에 흐르는 역사와 문학을 담고 있다. 1991년 페놀 유출 사고를 계기로, 당시 음악도의 꿈을 접고 낙향해, 민들레 홀씨처럼 야학을 하면서 낙동강 사랑을 시작한 사연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제2부 '재채기하는 강, 억장 무너지는 강이여'에서는 낙동강의 발원지 태백 함백산 황지 일대의 환경훼손 사례부터 토건족(일본조어인 건설업자-지방의회 의원-관료를 연결하는 '삼각 커넥션'을 지칭)이 벌인 낙동강 훼손과 개발 사례가 적시된다.

제3부 '천석의 종은 그 종채로 치면 울리지만, 낙동강은 하늘이 쳐도 울리지 않는다'에서는 개발사업으로 호소화(湖沼化) 오염지대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제4부 '산자분수령 같은 국민생각'에서는 4대강 사업을 경계하는 8가지 덕목을 말한다.

이 책은 그러나 낙동강의 환경은 물론 역사와 문화 등 전반을 다루면서, 문서매체의 전달력을 충분히 살리는 데는 조금 부족했다. 지도와 현장 사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장문의 문장으로 설명하다 보니, 읽는 이로 하여금 인내심을 요구하게 한다. 그러나 저자의 현장경험과 해박한 연구 성과가 녹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은 흘러야 한다 | 김상화 지음 | 미들하우스 | 1만2000원

진정화

35년 낙동강 사랑 담뿍 담긴 환경서

맑은 시선으로 본 일상 그리고 부처

'화가 났어요' '부처님나라 개구쟁이들' 천진불 공략



천진불이라는 말이 있다. 천진한 마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는 뜻일 테다. 그래서 예부터 어린아이를 부처에 비유하곤 했다.

천진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의 불심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그림 동화책 <화가 났어요>와 어린이 불교 동시집이 <부처님나라 개구쟁이들>이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을 통해서만이 아닌, 그림 동화와 동시 한 편으로도 작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감정을 느낀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모든 감정을 느낀다. 아이가 어떤 이유로 화를 내든지 간에,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대응하게 되면, 아이는 수시로 화를 내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한다. 반대로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억누르게 되면 아이는 화를 표현하지 못하는 수동적 공격형의 성격이 될 수 도 있다.

어린이를 위한 동화 <화가 났어요>에서의 얀은 자신의 새빨간 털투성이 '화'와 친구가 되고 금새 '화'를 다스릴 줄 알게 된다. 할아버지는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는 얀에게 그만 놀고 저녁을 먹자고 말을 한다. 얀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고 알 수 없는 기분이 들면서 큰 소리로 울어버린다. 화가 나있는 얀에게 할아버지는 "화와 함께 앉아 있어라"고 말을 한다. 방으로 들어간 얀은 새빨간 털투성이 괴물인 자신의 '화'를 만난다. 얀과 얀의 화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춤을 추기까지 한다. 그러다 조금씩 얀은 화를 가라앉히고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할아버지의 말은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과도 같다. '화도 손이나 발처럼 우리의 일부'라고 말한 틱낫한 스님은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 자책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했다.

이 책은 마음 챙김 명상과 요가를 오랫동안 지도해 온 작가 게일 실버가 전문적인 경험을 살려 어린이들이 자신의 화를 인식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경쾌한 글로 제시했다. 책의 그림은 붉은색 비단과 한지를 잘라 콜라쥬 기법으로 생동감있게 표현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불교 동시집 <부처님나라 개구쟁이들>은 71편의 시를 모두 불교소재로 다루고 있다. 절집에서 쉽게 보고 만나는, 절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시의 소재가 되고 있다.

"낑낑 숙제할 일 없고… 중략 …아니 아니 그 무엇보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한평생 먹고살 걱정 없는 왕자로 태어나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고 '해탈'이 무엇이기에 부처님이 되셨을까? 우와, 나는 부처님이 되는 것보다 왕자를 버리는 일이 더 어려웠겠다."-부처님은 왕자님 中.



저자는 어른이지만 동시에 어린이들이다. 저자가 오랜 시간 여행길의 절에서 만난 어린이들과 놀거나 대화하면서 끄집어낸 그들의 느낌과 생각을 차곡차곡 챙겨 어린이다운 시선으로 옮겨놓았다.

동아일보 등의 신춘문예에 당선된 동시작가 이봉직이 시를 지었으며 각 시가 담긴 페이지에는 부처님과 동자승을 용정운 작가가 부드러운 삽화로 담아냈다.

화가 났어요 | 게일 실버 글 · 크리스틴 크뢰머 그림 · 문태준 옮김 | 불광출판사 펴냄 | 9000원 |

부처님나라 개구쟁이들 | 이봉직 동시 · 용정운 그림 | 운주사 펴냄 | 8500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행복하려면 정진하라

김재성 교수 '초기불교산책1'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뿐이다"고 말씀했다.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펴낸 <초기불교 산책1>을 사성제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 보이고 있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불교 초기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포인트라는 설명이다.

한언 펴냄 | 1만 4900원

행복을 막지 마라

법상 스님 '…행복수업'

매주 일요일 인터넷 카페 '목탁소리'를 통해 내놓았던 법상 스님의 법문이 책으로 엮여져 나왔다.

법상 스님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며 "행복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거부하거나 막아서지 않으면 됩니다. 막고 있던 방어벽을 허물고 마음을 활짝 열어 행복이 파도쳐 들어오도록 삶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당부한다.

한국문학 펴냄 | 1만5000원

행복이란 '작은 것'

노우 스님 '작은 행복'

양산 통도사로 출가한 후 줄곧 참선수행에 전념해온 노우 스님의 수상록. 저자는 행복이란 '작은 것'에 있다고 말한다. "결국 문제는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로 귀결된다."

추운 겨울에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호빵을 한 봉지 사가지고 바삐 집으로 향하는 아버지, "퇴근길 아버지의 가슴속에는 소박하지만 전혀 모자람 없는 행복이 빛나고 있다. …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운주사 펴냄 | 1만1000원

안동일 변호사, 4 · 19 혁명 59일간의 기록

4 · 19 혁명이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서울대 법학도였던 안동일 변호사(동산불교대학 이사장)는 1960년에 4 · 19 현장에 있었다. 그의 경험은 "시위에 직접 참가한 학생의 손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낳았다. 그 사명감으로 안동일 변호사는 2월 28일 대구 학생시위부터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에 이르기까지 피로 물든 59일간을 기록했다.

저자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지기까지 4 · 19 혁명은 미완이며 진행형이다. 어떠한 독재에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 담긴 이 기록이 4 · 19혁명 50주년을 맞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4 · 19 | 안동일 지음 | 예지 펴냄 | 1만 5000원

이나은 기자

禪心으로 읽은 성경

활안 스님 '성서선해'



"진리는 하나다. 그러나 현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형태로 이를 설명한다." 힌두철학서 <우파니샤드>는 진리에 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도 "진실로 불경과 성경이 다 같이 우주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 두 성전에 담겨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없다. 오직 이 진리를 인간 지혜의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해석할 뿐이다"고 말했다.

<성서선해(聖書禪解)>는 활안 스님이 불경과 성경의 공통적 분모를 찾아 기독교 성경을 선(禪)의 마음으로 읽고 그 뜻을 해석한 책이다.

출가 전 기독교신자로서 잠시 생활했던 활안 스님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적대시하는 눈으로 타 종교의 성전을 폄하하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당 종교의 성전에 담긴 진리에 접근하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책은 성서교재간행사의 <마스타성경>을 사용했으며 각 성경 소절 밑에는 옛 선사들의 예지(叡智)가 담긴 말씀을 토대로 활안 스님이 해석을 썼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는 책이다.

성서선해 | 활안 지음 | 불교정신문화원 펴냄 | 1만5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무소유(문고본)	법정	범우사
3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문학의 숲
4	오두막 편지	법정	이레
5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인연이야기	법정	문학의 숲
8	진리의 말씀	법정	이레
9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10	숫타니파타	법정	이레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불교여자전문대학 학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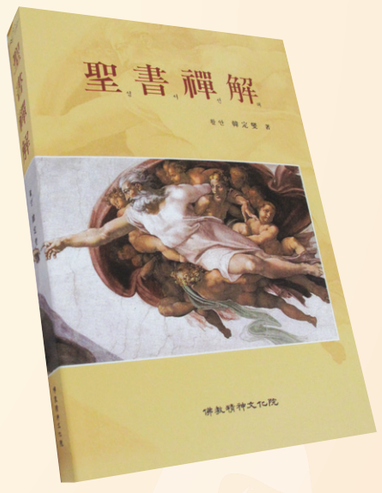
초발심자와 출가를 원하는 불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특히, 해외 포교 희망자와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환영합니다.

◈ 교육내용

	내 용
불교교리	① 경(아함 · 방등 · 반야 · 법화 · 열반 · 화엄경) ② 율(4분율 · 5분율 ·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 계율) ③ 논(구사 · 유식 · 3론 · 기신론) ④ 선(위빠사나 · 명상 · 선 실습)
불교의식	⑤ 포교론(군법당 · 교도소 등) ⑥ 밀교 ① 조석예불 · 종성기도 ② 불공 · 시식 ③ 송주 · 장엄염불 · 방생법회 ④ 승무(천수바라 · 공양무 등)
기타 교양강좌	외국어(영어회화) 꽃꽂이 · 다도 · 등공예

◈ 모집기간 : 2010년 4월 15일 ~
◈ 개강일자 : 2010년 6월 2일 (수) 오전 10시 입학식
(입학식 후 금강경오가해 특강 - 불교TV 방송녹화)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목요일 오후 4시 (매주 12시간)
◈ 모집인원 : 약간명 (기숙사 완비)
◈ 강의장소 : 제천 금강사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 특 전 : 1년 ~ 2년 과정으로 포교사 · 전법사 자격증 획득
출가를 희망하는 분에게는 삭발 · 수계
◈ 교 수 : 활안 · 도기 · 정명스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각계 전문인들
◈ 문 의 :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
제천 금강사 ☎ 043)646-3800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

성서선해(聖書禪解)



"진리는 하나이다. 그러나 현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형태로 이를 설명한다."
- 힌두성전 우파니샤드

불경과 성경이 다 같이 우주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 두 성전에 담겨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없다.
오직 이 진리를 인간 지혜의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해석했을 뿐이다.

"불경과 성경이 지난 수천년 동안 인류가 이에
의지하여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해왔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개척해 왔다"
- 성서선해 머리말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께서는
기독교 성경을 선(禪)의 마음으로 읽고 그 뜻을 해석하셨다.

聖書禪解 · 편저: 활안 한정섭 / 발행처 : 불교정신문화원 / 318쪽 / 가격 : 15,000원

· 구입문의 : 02)969-2410 / 010-5611-0657

혜암 스님 삶이 그림의 '화두'

최문정 화백, 한벽원미술관서 '유년의 기억' 개인전





전통불화와 동양화, 서양화가 접목된 최문정 화백의 비구상화. 본지 연재됐던 '가야산 정진불'의 삽화로 그린 작품들.

독특한 색채들이 날개를 단 듯 캔버스 안을 활보한다. 오방색이 화려하게 향연하는 이 작품(사진)은 불화가 최문정(41) 화백의 작품이다. 최 화백은 4월 21~30일 서울 삼청동 한벽원미술관에서 '유년의 기억'이란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문화재 수리 기술자 제417호라는 이력과는 대조적인 비구상화 70여 점을 선보인다. 작품들 중 다수는 본지에 연재됐던 정찬주 작가의 소설 '가야산정진불'의 삽화로 그린 것들이다.

30년을 넘게 붓을 벗 삼아 작품 활동을 해온 최문정 화백의 이번 전시는 그에게 '일탈'과 같은 존재이다.

최문정 화백은 "'가야산정진불'의 주인공인 혜암 스님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작품세계에 도전할 수 있어 기뻤고,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혜암 스님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동안은 마치 '화두'에 든 것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최 화백은 전통만 고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통과 현대를 함께 접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작품을 통해 표출해 내고자 했다. 1주일에 한번 씩 그림을 완성해 내는 일은 그림을 그리는 이에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최 화백은 60회의 연재를 여법하게 회향했다.

최 화백의 이력은 화려하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만봉 스님의 제자로 역량을 키워나갔던 그녀는 다수의 단청작품과 다양한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새로움에 목말라 하던 최 화백은 불화, 동양화, 서양화를 고루 접하며 단청과 탱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양식의 순수미술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넓혀갔다. 한지 및 소나무에 아크릴로 그린 그림들은 불화의 전통성을 현대화하려는 작가의 시도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다.

그의 작품들은 새로움을 향해 계속 정진하고는 있지만 결코 작위적이거나 인위적이지는 않다. 스탠리 카벨이 "잘 훈련된 기술은 오히려 기술적 규범 속에서 해방시켜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위와 작위를 제거한 예술적 표현으로 귀결되게 해준다"고 말한 것처럼.

최문정 화백은 불화, 동양화, 서양화를 각각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어떤 양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작품을 표현하고 있었다.

최 화백은 이번 개인전을 맞아 "탱화와 단청, 한국화, 벽화 등을 통해 배운 모든 기법과 정신상태를 현대미술의 비구상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러한 작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기쁘다. 앞으로 전통불화의 창조적인 계승과 불교적인 사상과 미학을 담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년의 기억'이란 전시 제목은 단순히 혜암 스님의 일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최문정 화백이 새로운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그간의 과정을 말해주는 듯하다. 앞으로 최 화백이 어떠한 여정에 올라 화장세계를 펼쳐 보일지 기대해 본다. 이은정 기자

조계사서 '100일 간의 승무이야기'



뿌림의 장삼놀음이 돋보이는 승무.

불교의식무용인 승무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봄, 여름, 가을로 나눠 공연되는 '100일간의 승무이야기'는 4월 25일부터 긴 여정의 춤사위를 풀어 놓는다.

'100일간의 승무이야기'는 대중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 대단원의 시작과 끝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펼친다. 그동안 1주일 이상을 넘기지 않았던 승무 공연은 전통 예술이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가 소통의 장을 열고자 이 같이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또한 우리의 전통춤이 보통 춤꾼과 보는 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춤판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감안해, 독무로 진행되는 승무의 특성을 과감히 버리고 야외공연도 시도했다.

승무는 독무로 이뤄지는 춤으로, 고깔모자에 얼굴이 가려져 춤꾼의 표정을 잘 살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관객은 춤꾼의 춤사위를 통해 그 내면의 세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연유 등으로 공연은 무용수의 숨소리 하나, 땀방울 하나까지 관객이 느낄 수 있도록 7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열린다.

또한 공연장 무대는 한적한 산사를 찾아가듯, 사랑방이나 정자처럼 구성돼 관객의 적극적인 공연관람을 유도했다. 이번 공연의 춤은 화려하고 다양한 멋보다 깊이 있고 정갈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는 승무완판은 무형문화재 제27호 벽사 한영숙(1920~1989)의 춤이다. 한영숙의 춤은 대나무에 비유될만큼 남성적인 것이 특징이다. 승무는 모든 춤의 기본이 되는 춤으로 아랫배와 하체를 올곧게 잡아주는 느리고 깊은 발놀음과 절제되지만 곧고 뿌림으로 넘어가는 상체의 장삼놀음이 춤의 중심을 이룬다.

이 밖에도 경기도당굿 장단에 정적인 손놀음과 빠른 발놀음이 백미인 '태평무', 춤의 정수로 불리는 '살풀이'가 풍류패의 생생한 반주에 맞춰 공연된다.

승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 이애주를 사사한 한국춤예술원대표 이철진의 독무로 꾸며진다. 이밖에 한국춤예술원 단원들과 전통예술단 아우름의 송영숙, 이철진풍류패도 함께 출연해 태평무, 살풀이, 기악연주 등을 선보인다.

공연은 △봄 4월 25일~5월 23일 △여름 7월 10일~8월 15일 △가을 10월 19일~11월 21일 열리며, 평일은 오후8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4시에 공연한다. 조계사 대웅전 앞 야외공연은 4월 25일 11~12시 사이 진행된다. (02)741-3581

이은정 기자

'법구경' 클래식과 조우하다

니르바나 봉축음악회 '칸타타 담마파다' 28일 KBS홀

<법구경>가르침이 음악으로 나투어 중생들에게 설법된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4월 28일 오후 7시 30분 KBS홀에서 봉축음악회 '칸타타 담마파다'를 개최해 부처님 진리를 전한다.

담마파다는 '진리의 말씀'이란 뜻으로 한역으로 <법구경>을 말한다. '칸타타 담마파타'는 이 <법구경>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칸타타 담마파다' 공연은 160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으로, 준비기간 만도 1년 이상이 걸렸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의 야심작이 될 이번 대형 칸타타는 작곡 김대성, 작사 서공식 · 이인자, 오케스트라 지휘 최선용, 합창단 지휘 원영석이 맡았다.

강형진 단장은 "서양에는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바흐의 '카테수난곡', 헨델의 '메시아' 등 종교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곡들이 많다"며 "불교의 역사가 1600여 년이나 됐는데도 우리에게 쉽게 떠올릴만한 불교음악이 없다는 현실을 자각해 이 같은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칸타타 담마파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화적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현대적 감각으로 완성된 불교음악으로 40여분 연주된다. 칸타타는 40여 명의 스님이 만들어내는 독경 소리와 동서양의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법구경>의 진리를 전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이호신 화백의 천불수화설법의 일부가 무대에 올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이밖에도 행사는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를 초청해 상생과 화합이라는 부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02)718-4599 이은정 기자

묵향 배어난 선화 35점 일본에 소개

선화가 김양수 화백 日 안조갤러리서 개인전

선화가 김양수 화백이 5월 3~9일 일본 안조시민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나는 여기에서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바람'이라는 모임의 주관으로 이뤄진 초청전시이다.

'한국의 바람'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임으로, 서울 인사동에서 김양수 화백의 작품을 관람한 뒤 초청전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화백은 이번 일본 개인전에 대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갖는 개인전인 만큼, 한국의 선(禪)을 어떻게 작품에 녹여낼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중생들은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화두를 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주제로 작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양수 화백은 은은한 묵향에 고요하게 피어나는 선화 35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삼베훼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 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최연의 산 이야기 <8> 북한산 7

높은 것은 멀리 뻗친다


높은 것은 멀리 뻗친다던가. 수려하게 솟은 쪽두리봉(승리봉).

삼봉(三峰) 정도전과 무학(無學) 대사의 궁궐의 좌향(坐向)에 대한 논란은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한산(漢山)은 금국(金局)이라서 궁궐을 반드시 동향(東向)으로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쇠약해진다. 터를 고르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동쪽은 허(虛)하고 남쪽은 낮으니 북악산 아래 터를 잡지마라. 검은 옷을 입은 도적(倭賊)이 동쪽에서 쳐들어올까 두렵다. 도읍을 정하려는 자가 스님 말을 들으면 나라의 운수가 좀 연장된다. 그러나 만약 정(鄭)씨 성을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걸면 5대도 못가서 왕위를 뺏는 변고가 생기리라. 또 2백년 후에는 대환란이 닥쳐서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삼가 조심하라."

이처럼 <삼한산림비기>에서는 스님의 말을 따르라고 했건만 결국은 정도전의 주장에 따라 북악산 아래 남향으로 궁궐을 지었다. 그 결과는 예언한 바와 같이 되었다. 5대도 못 내려가 왕위를 찬탈하는 변고가 일어났고(세조가 단종을 내몰고 왕위에 올랐는데, 세조는 태조의 증손자이니 왕위로는 7대지만 가계로는 4대이다.), '200년 후의 대환란' 은 임진왜란을 가리키는데 한양으로 천도한지 198년만의 일이다.

북한산을 종산(宗山)으로, 북악(北岳)을 주산(主山)으로, 좌청룡을 낙산(駱山)으로, 우백호를 인왕산(仁王山)으로, 안산(案山)을 목멱산(木覓山)으로, 조산(朝山)을 관악산(冠岳山)으로 하는 지형은 풍수지리적으로 몇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종산인 북한산의 기운이 주산인 북악에 전해지는데 있어 그 길목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북악터널 위쪽이 너무 낮아서 병목현상을 이루는 것이고, 둘째는 좌청룡인 낙산이 우백호인 인왕산에 비해 무척이나 허약함이요, 셋째는 조산인 관악산의 화기(火氣)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보완해줄 묘책이 있기 마련이다. 풍수학에서는 너무 허(虛)한 기(氣)의 땅을 보완해 주는 것을 비보(裨補)라 하고, 너무 강(剛)한 기(氣)의 땅을 이완시켜 주는 것을 압승(壓勝)이라고 한다.

지세가 갑자기 좁아져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북악터널 위쪽 부분은 비보하기 위하여 매년 날을 정해 백성들을 동원하여 흙을 퍼다 날라 오목한 곳을 메우는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곳을 매년 흙을 더하는 고개라고 보토현(補土峴)이라고 불렀다.

좌청룡의 동쪽 산줄기가 허약한 것의 비보책(裨補策)으로 낙산의 산줄기를 조금 더 뻗어나가게 하기 위하여 동대문 역사공원 자리에 가산(假山)을 쌓았고, 사대문의 이름이 모두 세 글자인데 동대문만 흥인지문(興仁之門)이라고 네 글자로 이름 지었다.

관악산의 형세(形勢)는 화성(火星)으로, 예로부터 왕도 남방지화산(王都南方之火山)이라 하여 화기(火氣)의 산으로 보았다.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한 압승책(壓勝策)으로 남대문 밖에 인공 연못인 남지(南池)를 조성하였고, 관악산 옆에 있는 삼성산에도 연못을 설치하였다. 관악산 주봉인 연주대에는 아홉 개의 방화부(防火符)를 넣은 물단지를 놓아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서?북 대문의 현판을 모두 가로로 설치했는데, 남대문인 숭례문(崇禮門)만 세로로 썼다. 이것은 숭례문의 례(禮)는 5행(行)의 화(火)에 해당되고 숭(崇)은 불꽃이 타오르는 상형문자(象形文字)이므로 숭례(崇禮)라는 이름은 세로로 써야 불이 타 오를 수 있고 이렇게 타오르는 불로 관악의 화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불로써 불을 제압하고(以火制火), 불로써 불을 다스리는(以火治火) 셈이다.

그런데 매년 흙을 더 보충해야 할 보토현에는 아예 커다란 구멍을 뚫어 도로를 냈고, 가산을 더욱 높게 쌓아야 함에도 오히려 남아 있던 가산마저도 밀어버리고 운동장을 만들었다. 남지도 메우고 도로를 놓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관악의 화기를 잡아야할 숭례문은 그 기운이 다 했는지 불타 버렸다.

송악의 보부상이 개성인삼을 가득 지고 임진나루에 당도하여 도강을 기다리며 잠시 다리쉼하며 곰방대 빨며 지긋이 바라본 곳이 북한산이었다. 백년서생 날건달이 문전옥답 처분하여 말단관직 하나 돈 주고 얻어 차려고 한양가는 길에 과천현감에게 돈푼 꽤나 주고 도성 안 힘깨나 쓰는 대감 소개받고 남태령 비껴가며 우면산 돌아서서 처연하게 바라보았던 곳이 북한산이었을 것이다.

강원도 첩첩산골 금강송 베어내어 임금님 사시는 곳 다시 짓는 목재로 사용하려고 정선 아우라지 포구에서 땟목 엮어 한양 길 떠난 뗏목꾼이 양수리 지나 두물머리 어름쯤에서 불암산 너머로 아스라이 보았던 것도 북한산이었을 것이다.

하여, 북한산은 한양이 도읍으로 터를 잡은 이후 한양을 드나들던 백성들의 애환을 두루 포용하는 넉넉한 품을 지닌 으뜸 산(朝山)으로 역할을 다 해 온 것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우 산

점심 무렵, 하늘에 어둠이 번지며 무거워지더니 비가 내린다.

"비가 계속 내리면 현준이 올 때 우산 좀 갖다 줘요."

돈 벌러 나가던 아내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의 귀가를 염려한다.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와요."

현준이가 타고 들어오는 버스는 6시 30분경에 정류장에 도착한다. (버스는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시간에 맞춰 들어와 산 너머 마을에서 되돌아 나간다.) 정류장까지는 10분 정도 걸어나가야 한다. 그 시간 동안에 아들이 비에 젖을 걸 염려하며 일터로 나가는 아내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정도로 나는 심장이 튼튼하지 못하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집 앞을 가로지르는 전깃줄에 앉아 비를 맞으며 산 아래를 바라보는 산비둘기가 창밖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잡았다. 죽죽, 위에서 아래로 흔들림 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산비둘기는 움직임도 없이 앉아있었다. 산비둘기는 앞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뒤에 있었다. 등을 보이고 앉은 새의 앞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날개도 퍼덕이지 않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새의 뒷모습은, 고개를 돌렸다 다시 보아도 눈물을 닮았다. 웃음이나 분노로 일그러진 모습이 떠오르진 않았다. 산비둘기의 등을 적시며 비는 끊임없이 내렸다. 온몸으로 눈물을 흘리는 새가 있었다.

6시 20분이 가까워오자 나는 한손으론 우산을 받쳐 쓰고 다른 손으론 아들에게 줄 우산을 든 채 정류장을 향해 산길을 걸었다. 비를 맞아 반질반질 윤이 흐르는 시멘트 포장길을 걸었다. 며칠 간격으로 이어지며 내린 비에 불어난 골짜기 물이 내 몸 정도는 너끈히 휘감고 갈 수 있다며 묵직한 힘으로 산 아래를 향해 달린다.

> 문제는 우산이 아니었다
> 내가 아들의 우산을 들고나와
> 기다렸다가 건네준
> 그 행위가 문제였다

골짜기를 가로지른 다리를 건너 산등성이에 올라 정류장 비가림막 아래에 서니, 하루 내내 느끼지 못했던 차가움이 바람을 따라 다가와 몸 속 어딘가로 파고들고 있었으나 막을 방법도 그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을 나설 때는 몸을 적실 정도이던 빗줄기가 정류장에 가까이 갈수록 약해지는가 싶더니 우산을 쓰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게끔 빗발이 성겨지면서 가늘어졌다.

버스가 다가와 섰을 때는 버스 문 앞으로 다가갈 필요도 느끼지 못할 만큼 빗줄기는 약해져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아들이 나를 보고 다가왔다. 나는 말없이 우산을 건네주었다. 아들은 희미한 웃음을 머금으며 우산을 받아 머리 위로 올리며 활짝 펼쳤다. 그 순간, 한 아이의 모습이 어스름처럼 다가왔다. 우리 집에서도 10분 정도 더 걸어가야 하는 외딴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였다.

아이는 내 얼굴을 흘깃 훔쳐보고는 서둘러 앞서서 걸었다. 아이의 뒷모습에서 배어나오는 검은 그림자가 길게 내 앞에 드리워졌다. 아이와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으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아이와 나 사이에서 어른거렸다.

내 우산이라도 건네줄까? 나는 아들과 함께 쓰면 되지 않겠는가?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누구에게 우산을 건넨다는 것도 민망스런 비였다. 내가 쓰고 있는 우산을 준다는 것은 더욱 그랬다. 문제는 우산이 아니었다. 내가 아들의 우산을 들고나와 기다렸다가 건네준, 그 행위가 문제였다.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삶 속에서의 아이에게 내 행위는 폭력이었다. 비가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든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정류장에 나가지 말아야 했을까? 아들이 비를 맞도록 놔두어야 했을까? 아니면 아이의 우산까지 챙겨서 갖고 나가야 했을까? 아들과 함께 저무는 산길을 걸어 집으로 오는 길엔, 보이지 않게 밀려오는 어둠보다 우산이 더 무거웠다. '아들을 마중 나갈 시간이 됐는가?' 시계를 보는 사이에 눈앞에서 사라진 산비둘기의 모습이, 앞서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과 자꾸만 겹쳐보였다.

■ 유승도 (시인)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세로 동일 × 높이(뒷면) 6cm]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외곽 도시
- 법당 : 24평
- 요사 : 120평
- 부속건물 : 200평
- 부지 : 2,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경북 성주
- 법당 및 요사 : 35평
- 부지 : 400평
- 가액 : 6,500 (급안내임)

- 위치 : 경북
- 법당 : 50외 44평
- 요사 : 117평
- 부지: 3,000평
- 가액: 13억 (급안내임)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4,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1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 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무릉도원 토굴터

- 대지 평수 : 1만 3천평
- 관리지역 1천평(명지). 임야 1만 2천평
- 계곡 및 경관 아주 수려
- 좌우 청룡백호, 앞 안대, 전망 최고
- 가액 : 1억 6천

바다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2,500평
- 법당 32평, 목조(3포5포) 공양간 50평, 요사채, 대종각 외 건물 5동
- 주차장 300평, 텃밭 1,200평
- 총금액 : 15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군
- 평수: 480평
- 임법당, 교통편리
- 포교와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1억
- 통화가능시간 : 정오 12시~ 오후 18시까지

010-5226-153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종교부지 200평
- 임야 200평, 전체 400평
- 가액: 9천만원

054)336-9775
010-2407-5899
010-9396-0739

사찰 터 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대항면
- 답 1470평 중 대지 288평
- 건평 45평● 호두나무 54그루 중 34그루 수확중
- 사계절 물이 흐르고 있으며,
- 생수가 있음 ,직지사 근처
- 가액: 2억

010-4015-46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 2 억 (가격절충)전세가능

010-5430-3963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지방 국도변
- 평수: 약 200평
- 요사채 65평 1동(양옥)
- 법당 20평 1동(아미타 삼존불)
- 요양원 기도원 적합
- 스님, 법사님 적격
- 가액: 2억 2천만원(은행융자 7천만원포함), 전세도 가능(1억)

010-8675-8011

입법당 기도처 안내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 입법당 40평
- 땅은 종중땅, 1천여평 임대 중 (연 30만원)
- 산소 3기 관리
- 몸만 오시면 됨, 기도처로 최적 해외 불사로 인해 급 안내
- 가액: 3천 5백만원

010-9228-217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가액 :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조용한 토굴(급)안내

- 위치 : 공주시 정안면
- 평수 : 25평, 20평(등기필)
- 황금벽돌
- 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
- 가액 : 3천 5백만원정
- 중국 청도 이주로 급 양도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6-9711-8309
011-9570-830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주택빌라 아파트 밀집지역 4거리 코너
- 평수 : 30평 (3층 중 2층)
- 탱화10점, 소불100분, 인등 270등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새롭게 완벽 시설)

010-2446-2626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 전기시설 완벽, 단독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사 찰 안 내

- 250년의 도심지 최고의 포교지 고찰
- 위치: 부산시 중심가
- 평수: 200평, 법당 목조 30평,
- 산신각 목조단청완료
- 요사채 및 방사 7개
- 250년 된 소나무 두주
- 가액: 7억 5천만원

011-590-287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태화동
- 실평수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3,300만원 (조절가능)

010-9327-3410

작은암자안내

- 깔끔하고 아담한 암자
- 팔공산 뒷 갓바위 입구
- 대지 90평
- 건평 30평
- 가액: 1억 4천만원

010-3477-0010

사찰 터 안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 약 20평, 산신각,요사채,2동중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011-816-9104
011-815-9104

주택토굴안내

- 위치: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 밀양 자동차학원 북측 500m거리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농가주택(급)안내

- 사찰암자적지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23번지
- 장안산 덕산 계곡 상류
- 면적 1792㎡, 목조 79㎡×목조66㎡ = 2동
- 상담후 가격절충가능

011-644-2563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지하철 3분거리
- 3층 65평, 방 3, 공양간, 법당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400만원
- 계산시장 입구
- 해외유학관계로 급 양도

010-6478-77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포교원 임법당 안내

- 위치 : 양주시 백석읍내 주변 아파트 단지
- 의정부 10분, 서울 30분 거리
- 2층 20평, 스님방1, 주방 1, 욕실1(화장실)
- 삼존불 외에 지장보살, 신중 104위 탱화
- 무보증금 12달(선불) 200만원세
- 스님 사정상 양도
- 꼭 필요하신분은 직접오셔서 상담바랍니다

031)877-26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팔달동 마을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평수 대략 250평● 문중땅.
- 건물 시설비 6,900만원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원주 세말 IC에서 5분거리
- 대지 400평 ● 건평: 90평 (대웅전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55평)
- 계곡산세수려한기도도량 최고의명당
- 가액: 3억 5천만원

033)345-5597
011-771-5597

사찰터 및 공장안내

- 된장공장 인수하실 분
- 위치: 강원도 영월 근교 동강 앞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곳
- 땅 2,200평, 고급주택 1동
- 공장 1동, 시설완벽함
- 가액 : 5억 5천만원 (절충 가능함 _주인직접)

011-792-896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 2칸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 A급),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5535-6487
053)522-6487

포교원 안내

서울에서 포교원 꼭 하실분만

- 위치: 서울 서대문구
- 넓은 법당, 주지실, 주방, 화장실, 시설 훌륭함
- 집기 일체 양도, 즉시 법회가능
- 소임관계로 양도코저 함
- 가액 : 시설비 포함 4,500만원(조정가능)

011-274-385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와룡면
- 157평, 요사채 방5개,
- 주방, 화장실
- 법당, 산신각, 용왕단
- 가액: 9,500만원

010-6547-7142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북 진천
- 평수 30평
- 방3, 법당
- 보증금 3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상담

043)532-32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생림면
- 대지 220평, 텃밭 50평
- 법당 25평, 산신각 4평
- 요사채 20평, 방3, 화장실, 목욕탕 ● 공양간 17평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0-8327-3808
070-8809-38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최고 위치 울산
- 평수 5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 45평, 방사 4EA 산신각, 용왕당
- 대중공양실 30평, 공양실방1개
- 주차장 30대이상 가능
- 가액: 3억 5천만원

영주불사
010-9798-109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서동 407번지
- 평수 40평(3층 중 2층)
- 보증금 700만원 월 39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611-072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 대지: 350㎡ , 건평: 60평
- 구조: 법당 1, 거실 1, 방 3, 공양간 1, 창고 1
- 주변여건: 앞에는 큰 저수지가 바라보이고 뒤에는 낮은산 위치하고 있는 아담한 수행도량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4-124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포교원(급)안내

- 수원시 세류동 주택가 지하 45평 수원 시외 버스터미널. 밀레오레 300m
- 법당1, 방사2, 샤워실1, 세탁실1, 창고1
- 칸막이 시설 되어 있음 (시설비 의논 가능) 가액: 1억 1천 5백 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1-279-3538
010-3391-3538

단독건물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 평수 : 약 100평
- 법당, 방2, 화장실, 거실, 부엌
-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4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약 1,1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마당 텃밭 주차장 완비

010-4450-2858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포교원(임법당)적합 안내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대지 232평 , ●건물 60평 (신축4년)
- 스님거주 방 2개 ,거실 15평 ,부엌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낙동강 주변 경관이 좋아 포교당운영에 적합할 위치로 여겨 인연있는 스님, 뜻있는 불자분 환영합니다.
- 주차시설, 심야전기 시설완비
- 현 시세에 맞지않는 3억 2천만원

054)973-3899
011-803-7448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천구 신정 4동
-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거리● 대지: 254m²(80평)
-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시멘트 2층 사찰
- 1층 98.84m², 2층 86.94m², 지하 23.47m² 요사채 40평
- 2층 법당 30평, 지하 15평
- 주차장 완비, 실외화장실 2
- 시가 평당 1700만원 ● 가액 : 13억

011-236-6273

개 인 선 방 안 내

치악산 비로봉이 정면으로 보이는 전통적인 명당터. 산중은거 수행처

-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 평 수 : 총 979평 (대지 149평) 국유림이 이 땅을 둘러싸고 있음.
- 허름한 목조건물 2 동 (본채 55평, 별채 7평) 건물 볼품없음. (심야보일러, 현대식보일러)
- 가 액 : 2억 5천만원
- 산중은거 수행처를 만나고 싶은 분 연락바람.

011-9058-2264

위치좋은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원종동
- 4층건물중 3층 전체
- 평수 약 22평 법당 방1 주방 다용도실
- 삼존불 칠성 산신 신중 영단 조성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시설비 400만원
- 모든시설 완벽 몸만들어오셔서 즉시법회

011-9016-10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천시 중동대로 현대백화점 4거리(AA급)
- 부천신도시 중심가 대로변에 위치
- 실평수: 법당(50평이상) , 요사채(15평) 욕실별도
- 냉난방, 방음시설등 완벽 설비 (1억5천이상투자)
- 스님께서 큰절로 옮기게 되셔서 급하게 내놓니다.
- 보증금:3천만원 월세:105만원 권리금:합의

032)207-8012
010-6662-8012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⑮ 척추신경

모든 장기 질병은 뼈마디와 연결

척추 측만증은 24개의 척추 마디마디가 꽈배기처럼 좌우로 비틀어지면서 양쪽 어깨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증상입니다.

척추 측만증에서 비롯된 체형 불균형은 등판에도 나타납니다. 동시에 골반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면서 양 다리의 길이까지 달라집니다. 이것은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전신 골격의 기형적인 변화입니다.

이렇게 휘어진 척추는 주변의 심폐기관, 위장기관, 비뇨기관 등 장기를 압박합니다. 장기가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그 기능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척추 측만증은 체형 불균형 뿐만 아니라 장기 압박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그럼에도 척추 측만증은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아 일반인들은 자신의 허리가 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냅니다. 척추의 변형이 진행되면 등이 구부러지기 시작하고 어깨 · 골반의 양 높이도 달라집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한쪽 견갑골(어깨뼈)이나 둔부(엉덩이)가 돌출 된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는 휘어진 척추가 내장기관 및 심폐기관을 압박해 호흡곤란이 있거나 심장 장애, 내분비 장애, 통증 등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의 특성상 체중의 하중으로 한번 휘어진 척추는 계속 휘어지기 마련입니다.

척추 측만증으로 내원한 한 여학생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학생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 병원에서 위 내시경과 방사선 검사를 했습니다. 검진 결과 장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뜻밖에도 척추 측만증(30도)이라는 판정을 받게 돼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여학생은 어깨높이가 3cm이상 차이가 났고, 다리 길이도 달랐습니다. 이미 체형이 우측으로 편향돼 좌우 근육도 불규칙하게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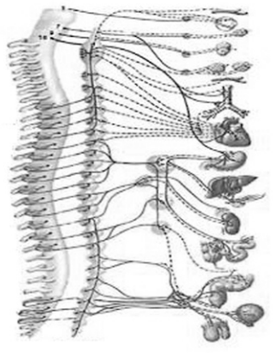
이 학생은 맞춤 체형 교정과 운동을 통해 장기 압박에서 벗어나 현재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생활 중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조기발견해 바른 자세와 운동 등으로 예방하는 것과 조기발견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뼈마디는 경추(목) 7개, 흉추(등) 12개, 요추(허리) 5개로써 총 24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각 뼈마디에 따라 그와 연결된 장기에 찾아오는 질병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추1번: 탈모, 뇌졸증, 뇌출혈, 신경과민, 불면증
경추2번: 눈, 시신경, 정맥, 혀, 이마, 눈 충혈, 눈 주위 통증, 귀앓이, 시력 장애, 귀먹음
경추3번: 뺨, 귀(외이), 얼굴 뼈, 치통, 여드름, 습진
경추4번: 코, 입, 인후, 편도선 경추5번: 성대, 인두 후두염, 인두 통증, 후두 통증
경추6번: 목 근육, 어깨, 편도선 뻣뻣한 목, 편도선염, 만성 기침
경추7번: 갑상선, 어깨, 팔꿈치 통증, 잦은 감기
흉추1번: 손, 팔 부분, 식도, 기관지, 천식, 기침, 호흡곤란
흉추2번: 손과 팔의 아랫부분의 통증
흉추3번: 심장, 부정맥, 협심증
흉추4번: 폐, 기관지, 유행성 감기, 늑막염, 기관지염, 폐렴, 황달, 대상포진
흉추5번: 간, 혈액순환 장애
흉추6번: 위 신경을 포함한 위장장애
흉추7번: 췌장, 위궤양. 흉추8번: 비장이상
흉추9번: 신장과 부신선 이상, 알레르기, 발진
흉추10번: 신장, 신장 장애, 만성피로, 동맥경화
흉추11번: 신장, 요관 여드름, 습진, 부스럼 따위의 피부상태
흉추12번: 소장, 임파 순환, 가스로 인한 통증(복통), 불임
요추1번: 대장질환 또는 탈장.
요추2번: 복부, 다리 경련, 호흡곤란
요추3번: 생식기, 자궁, 방광, 무릎이상, 방광에 생기는 질병, 심한 생리통 또는 생리불순, 식은땀, 무기력, 유산, 무릎통증
요추4번: 전립선, 요통, 잦은 배뇨
요추5번: 다리 아랫부분, 발목, 발 다리의 약한 혈액순환, 찬 발, 다리 경련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척추 신경과 연결된 내장기관.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❸ 으뜸이 되는 약

바른 섭생과 마음이 바로 공진단

〈拱辰丹〉

북극성을 공신(拱辰)이라고 한다. 인간의 길흉화복을 모두 담고 있다는 북두칠성은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도는 별들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다른 별들은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만 북극성(공신)은 움직이지 않는다. 북극성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지배하는 별이라서 영생을 상징하기도 하다.

모든 사람도 공신이다. 불성을 가진 개개인 모두가 법계의 중심으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공(拱)은 '공경하는 뜻을 표하기 위하여 두 손을 마주 잡는다' '두 팔을 벌리어 껴안는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신(辰)은 별 · 날 · 하루 · 때를 가리키는 말로 '진'이라고도 읽는다. 따라서 공신은 '뭇 별들을 껴안는다' '뭇 별들의 공경을 받는다' '세월을 껴안는다'는 공경과 불로장생의 뜻을 담고 있다.

이 공신이 약의 이름으로 쓰이면 공진단(拱辰丹)이 된다. 공진단은 '하늘의 모든 별들을 껴안듯이 모든 약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약', '천자의 덕화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고 귀의해 모든 이에게 이로운 약 중에서 으뜸 되는 약'이다.

약 이름에 단(丹)이 붙는 것은 도가의 신선술을 닦는 약임을 뜻한다. 공진단도 불로장수를 바라며 도를 닦는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던 약이다. 처방의 구성이 지극히 오묘해 공진단이란 이름이 붙었다.

공진단은 사향, 녹용, 당귀, 산수유로 이뤄졌다. 사향으로 면역력과 막힌 곳을 풀어주고, 녹용으로 생명의 원천인 신장의 양기를 돋운다. 당귀로 보혈해 피를 만들고 산수유로 폐와 심장을 돕는 원리이다.

이 네 약재는 생명의 원천기운인 신장을 보하면서 각기 맡은 바 오장을 상호 보완해 상승작용을 한다. 이 네 약재를 기본으로 웅담, 천마 등을 개인에 따라 가감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상품가치를 높이려 금을 입히기도 하지만 원래 녹두알로 만들어 복용하는 것이 좋다. 도가에서는 금을 불로의 성약으로 쳤지만, 금이 인체에 쌓이면 좋지 않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공진단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면역력 강화 수험생 스트레스 등의 질병을 앓는 이들에게 두루 처방된다. <동의보감>에는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타고 난 사람이라도 이 약을 복용하면, 하늘이 내린 생명의 원천적인 기운(天元一氣)을 굳건하게 해 수(水)를 오르게 하고 화(火)를 내려 100가지 병이 생길 수 없게 한다"고 적혀 있다.

인체에서 물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고 불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각각 따로 놀면, 몸의 순환이 안되서 뼈마디가 저리고 통증이 온다. 이 증상이 계속될 경우 몸이 뜨거워져 신경은 예민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결국 신장의 원기(水氣)가 모자라서 화기(火氣)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

하루가 바뀌는 자(子)시는 수기운이 수승한 때이다. 이때는 반드시 잠을 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람들 중에는 잠을 적게 자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자는 사람도 있다.

며칠 밤을 새워도 머리가 맑을 수 있다. 단, 몸이 가벼워지려면 언제나 수승화강(水升火降)의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기운 순환만 원활해서는 안 된다. 몸의 원기를 알맞게 보충해야 한다.

법계의 중심으로 부처님이 될 모든 사람들, 스스로 공신인 사람들은 언제나 공진단을 먹는다. 다만 공진단을 먹으면서 그것이 공진단인지를 모른다.

법계의 모든 것이 함축된 제철 음식, 다섯 가지 맛을 가진 주곡,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바른 가르침이 바로 공진단이다. 또 그것들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수승화강을 이루는 밑바탕이 된다.

그 바탕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약으로 된 공진단도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공신이고, 바른 섭생과 마음이 바로 공진단이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⑮

아무리 재주 좋아도 부처님 손 안

손오공은 중국 소설 서유기(西遊記)의 주인공으로 돌에서 태어나 신통력을 가진 원숭이 입니다.

이 서유기는 불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불교 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도교에서 수행승의 무능함을 풍자해 만들어진 책이라는 설이 더 유력합니다.

한 예로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멀리 날아가 표시를 한 기둥이 부처님 손가락이었는데(여기서 부처님 손가락은 오행을 의미함) 이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결국 부처님 손(오행의 기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소설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음양오행의 도교적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 손바닥의 음양오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양오행이란 음양의 변화가 5가지 행태(木火土金水)로 움직임을 말하고, 이는 우리의 손바닥 안에서 모두 설명이 됩니다.

손을 피면 네모난 손바닥은 땅을 닮아 음(陰)에 해당하고, 손을 쥐어 생기는 동그라미는 하늘을 닮아 양(陽)이라고 합니다. 엄지는 목(木), 검지는 화(火),



오방낭자(五方囊子), 1880년대 사용된 조선시대 오방색 주머니.

중지는 토(土), 약지는 금(金), 새끼는 수(水)에 해당됩니다. 또 목화(木火)는 양(陽)에 해당되고, 금수(金水)는 음(陰)에 해당됩니다.

엄지는 힘이 좋아 뻗어 오르는 기운인 목(木)에 해당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언가 지시를 할 때 두 번째 손가락을 사용하는 이유는 검지가 화(火)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중지는 만물을 키우며 또,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 토(土)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금(金)에 해당합니다. 약속의 의미가 있는 커플링은 누구나 약지에 끼게 됩니다. 금(金)의 기운은 모으는 기운인데, 모은다는 것은 오므려 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은 수(水)에 해당되며, 수(水)에서는 응축의 완성(모든 기운을 모음)이 이루어집니다.

수(水)는 손을 오므리면 다시 엄지와 맞닿아 다시 목(木)인 양의 기운으로 화하는데, 이는 세상이 돌고 도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세상이 부처님 손인 것처럼 음양오행사상은 오행을 색으로 나타낸 오방색으로 이미 우리 삶에 녹아있습니다.

음양오행 사상에 따르면 오방색 중 흰색, 황색, 적색은 양(陽)이고 청색, 흑색은 음(陰)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색이 지닌 의미와 상징에 따라 오방신장, 오방처용무, 관복, 오방낭자, 오색실, 색동옷, 오곡, 단청, 화문석 등으로 우리의 의식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오방색의 청색은 동쪽, 봄, 간장(肝腸), 신맛, 기쁨, 인(仁), 백색은 서쪽, 가을, 폐장(肺臟)과 코, 매운맛, 분노, 의(義)를 상징합니다. 적색은 남쪽, 여름, 심장(心臟), 쓴맛, 즐거움, 예(禮)를, 흑색은 북쪽, 겨울, 신장(腎臟), 짠맛, 슬픔, 지(智)를, 황색은 중앙, 비장(脾臟), 단맛, 욕심, 신(信) 등을 상징합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불자정보 780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 총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 20평
● 법회 즉시 가능
● 가액: 9,000만원
010-5001-5783
055)356-5322

바다가 보이는 토굴안내
●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삼천포 대교 인접
● 대지 126㎡ 텃밭대지 172㎡
● 방2, 입식주방, 아궁이방1
● 포교도 가능한 부자터
● 가액: 4300만원
010-9315-0189

작은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
● 평수 236평, 임법당 14평, 방2개
● 주차장 넓음, 주변 환경 수려하고 조용한 수행환경
● 스님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법회하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시설일체완비)
● 가액: 7천만원(조절가능)
033)682-4652

사 찰 안 내
● 참선기도도량
● 위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오정1구 광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250평, 텃밭 30평
● 기와집 30평, 황토집 20평, 차고와 벽돌 2층 25평
● 가액: 2억 5천만원
061)535-1090
010-2523-1090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비산동
● 평수: 약 30평
● 삼존불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300만원
010-5340-6357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8천 5백만원 (조정가능)
055)632-384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고흥군
● 평수 1천평, 대웅전 30평
● 산신각 1동, 요사채 2동
● 주차장, 종각, 노천미륵불
● 가액: 1억 5천만원
061)832-3136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시 풍동 종교시설
● 사찰 및 기도터 최적지임
● 대지 480평, 건평 50평
● 가액: 1억 5천만원
● 융자 3,200만원 포함
010-3472-5654

포교원하실분
● 현포교원(60평)인수하실분
● 위치: 시장입구 전망 체크 부산시 북구 구포2동 시장통입구
● 지하철 2호선, 구명,구남역에서 3분거리
● 가액: 전세 5천만원(월세가능)
주간 051)338-8607
폰 011-9515-8606
야간 051)338-8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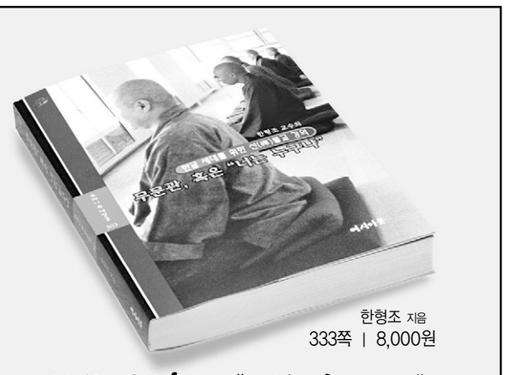
포교원안내
● 평수 35평
● 삼존불, 탱화 (지장, 칠성, 신중, 용왕)
● 주방1, 창고 1, 주차편리
● 가액: 시설비 합 천만원에 월 30만원
010-6414-5601

포교원안내
● 위치 : 전남 광양
● 모든시설완비
● 40평
● 책임지고 운영하실분
● 200만원
010-8315-2100
061)791-1053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천구 신월사거리
● 평수 70평 ● 법당, 요사채 3칸
● 창고, 방1개, 욕실, 주방
● 온수 보일러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시설비+보증금 6000만원, 월 100만원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7-586-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역세권
● 대지 23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각 40평
● 은행융자 3억원, 노인요양병원 적합
● 가액: 7억 9천만원(절충가능)
011-584-12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 총 1309평 중 종교용지 220여평
● 법당 1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42평
● 부곡온천 차로 7분거리 논리보건소 인근
● 가액 : 1억 5천만원
010-8675-4088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다구를 찾아서

10 금화오잔

차담 나누니 마음과 눈이 유쾌하다

조선 이전의 차문화를 연구하는 사료가 부족한 가운데, 송의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이하 고려도경)>은 고려의 차문화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려도경>은 송의 국신사(國信使) 일행이었던 서긍(徐兢, 1091~1153)이 고려를 다녀간 후, 휘종에게 올린 사행보고서(使行報告書)이다. 국신사 일행은 1123년 6월 고려에 도착해 한 달 남짓 머물면서 공식일정을 수행하고 돌아갔다. 국신사 일행이 한 달 여 체류 기간 동안 보고 들은 고려의 역사 · 정치 · 경제 · 문화 · 종교 등을 글과 그림으로 빠짐없이 정리한 것이 <고려도경>이다. 서긍은 예할인선예물관(提轄人船禮物官)으로 사절단의 인원 · 선박 · 예물 등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해서와 행서 및 전서에 능했고 특히 그림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고려도경>은 40권으로 구성됐다. 그 중 <관사(館舍)> <기명(器皿)> 편에 고려의 음다풍속과 다구의 유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관사>편에는 "항상 차를 마실 수 있는 도구가 상비돼 있었다. 정사(正使)와 부사(副使)가 여유 있는 날이면 언제나 상절(上節)의 관속들과 차를 끓여 마셨고, 향림정에서 바둑을 두며 하루 종일 담소하니 (이는) 마음과 눈을 유쾌하게 하고 더위를 물리치는 방법이었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고려 시대에는 차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고려에는 차가 전래된 지 300여 년이 넘었고 뇌원차(腦原茶), 유차(孺茶), 대차(大茶)등의 토산차가 생산되고 있었다. 차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불교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일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기명>에는 "탕호(湯壺)의 형태는 화호(花壺, 꽃꽂이 병)와 같고 약간 납작하다. 위에 뚜껑이 있고 아래는 받침이 있어서 온기(溫氣)를 뺏기지 않게 했다. 옛 보온기(溫器)의 일종이다. 고려 사람들은 차를 끓일 때 흔히 이 호를 사용한다. 호의 높이는 1척 8촌이고 그릇의 지름은 1척이며 용량은 두 말이 들어간다. 화호는 쓸개를 달아 매 놓은 것처럼 생겼다"라고 적었다. 탕호는 승반(承盤)과 한조로 구성돼 있는 주자(注子)를 말한다. 이것의 형태, 용량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고 가루 낸 차에 물을 부어 차 거품을 만들어 마시는 점다법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제법 좋아한다. 더욱이 고려 사람들은 다구를 잘 만드는데, 금화오잔(金花烏盞)이나 비색소구(翡色小甌), 은로탕정(銀爐湯鼎) 같은 다구는 모두 중국 것을 은근히 모방한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금화오잔이다. 고려도자 유물 중에서 금화오잔은 현존하지 않고 <고려도경>의 그림도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 금화오잔이 어떠한 찻잔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금색 꽃무늬가 그려진 검은 잔'으로 추정할 뿐이다. 당시 송에서는 건요와 길주요에서 생산한 흑유잔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천목잔이라 부르는 송의 흑유잔이 인기가 높았다. 고려와 송은 사행무역과 도당유학승을 통해서 차와 다구의 교류가 빈번했었다. 이를 통해서 고려에 송의 흑유잔이 전파 · 유입됐을 것이며, 당연히 그 특징을 파악하고 스스로 생산했으리라 짐작한다. 고려는 이미 세계 최고의 청자 생산 국가로 송과 버금가는 자기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유잔의 생산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은 고려 시대에 생산된 다른 형태의 도자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자철채음각 보상화당초문 완(靑磁鉄彩陰刻宝相華唐草文碗). 일본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입지름 10.8cm.

비색소구는 11~12세기 고려자기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인 청자 다완을 말하는 것이고, 은로탕정은 은으로 만든 화로와 찻물을 끓이는 세발 달린 솥을 말한다. 초기 고려청자의 가마터 조사에 따르면 다기류(茶器類)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 고려인들이 차를 얼마나 즐겨했었는지 짐작된다.

일본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에 소장된 이 완(碗)은 금화오잔의 유형으로 짐작하는 찻잔이다. 고려시대 12세기 전반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긍이 말한 금화오잔도 이러한 색과 모양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31 사명암 꽃비



통도사 사명암. 간밤에 꽃비가 내렸다. 비의 흔적은 문장 밑을 지나가는 밑줄처럼 대지 위에 남아있었다. 어둠 속을 흐르던 비의 궤적은 꽃잎 끝에 붙은 괄호 속으로 사라졌고, 문장 끝으로 다가온 아침 햇살이 꽃잎마다 마침표를 붙이고 있었다. 간밤에 꽃비가 내렸다.

아침은 꽃이 지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삼매에 들었고, 꽃이 살던 곳의 빛깔은 봄바람에 후드득 후드득 날아가고 있었다. 한 평 마당에 꽃비가 내렸을 뿐인데 계절은 목전에 와있고, 법당에 앉은 손바닥만한 마음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부처님의 입처럼 무겁기만 했다. 아침 목탁도 울었을 텐데 간밤에 꽃비 내린 뜻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법당 가는 스님 뒤로 산새만 지저귀며 날아간다.

옛 판화의 세계

반승의 공덕을 깨닫다 (飯僧瞶金)

송나라 때 거사 홍경선(洪慶善)이 강동절도사에 임명돼 부임하는 길에 지주(池州)에 묵게 됐다. 이 때 우구사의 종(宗) 선사가 홍 거사를 영접해 반승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홍 거사는 종 선사에 의해 반승공덕에 대해 깨달았고, 삽화는 이 장면들을 순서대로 판각한 것이다.

반승(飯僧)은 신도가 스님들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베푸는 것으로, 재승(齋僧)이라고도 한다.

홍경선은 종 선사에게 물었다. "반승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42장경>에 이르기를 '보통사람 100명에게 밥 공양하는 것이 착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밥 공양을 하는 것만 못하고, 착한 사람 1000명에게 밥 공양을 하는 것이 무주무작무증(無住無作無證)의 경지에 이른 한 사람에게 밥 공양을 하는 것만 못하다. 그 무주무작무증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바른 염을 지닌 홀로 해탈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밥 공양을 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은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같다. 선배들 가운데 이 뜻을 안 사람은 많았다'라고 했소."

"누구입니까?"

종 선사는 "진소유가 등주로 귀양 가면서 스스로 지은 만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위반황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동파가 진소유의 부고를 듣고, 범원장에게 편지와 은 다섯 량을 보내면서 진소유를 위해 스님들에게 밥 공양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소동파가 북쪽으로 돌아와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태학생들이 돈을 모아 동경 혜림사에서 반승을 했습니다."

이에 홍경선은 "지금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반승이란 것이 이와 같은 공덕이 있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침내 공경하고 믿는 마음이 일어나 해마다 선찰에서 스님들에게 반승을 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반승의 공덕과 반승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방에 대중공양을 올리는 불자들의 마음이 공양을 받는 안거 수행자들이 무상의 깨달음을 얻어 반승공덕이 회향됐으면 하는 옛 선인들의 마음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반승친금(飯僧瞶金).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자기 자신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없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있고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종교가 어떻고 어느 종교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양면을 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는, 우리가 나라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상점 상점이 간판을 가진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디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끊간 데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대로, 불교 그대로 생명이자 영원한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다 가톨릭교다 또는 불교다, 종파가 다르다,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끄달린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 자신의 행복도 자유스러운 삶도 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데 진짜로 이 도리를 알아야 생활 불교이고, 생활이 즉 참선이요 좌선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입니다. 이 하나하나 발자취 걸어다니는 것도 바로 한도량의 한발인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알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 각자 마음을 증득하라. 여러분 각자 사람부터 돼라. 부드러워라. 폭을 넓혀라." 하고 설하셨습니다. '폭을 넓혀라' 그 소리는 '지혜로워라' 하는 소립니다. "지혜로워라. 모든 것을 너의 소견으로만 살지 말고 남의 소견에 서서 좀 양보할 줄 알고 좀더 사랑할 줄 알고 지혜로울 줄 알아라. 과거에 살던 그 모두의 인연 소치들이 네 몸에 잔뜩 모여서 지금 고(苦)덩어리가 돼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덩어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체내에는 수많은 생명들과 수많은 의식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론적인, 학술적인 의학이 아니라 정신적인 의학이 돼야 하고 우리 생활도 정신적인 생활이 돼야 하고 노동도 정신적인 노동이 돼야 하고, 모든 게 정신적인 데서만이 현실로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전부 두루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만한 구석에서, 아니 지구가 한 항아리라면 항아리 안에서 살기도 뭐한데 지금 국내에서도, 세계 안에서도, 또는 내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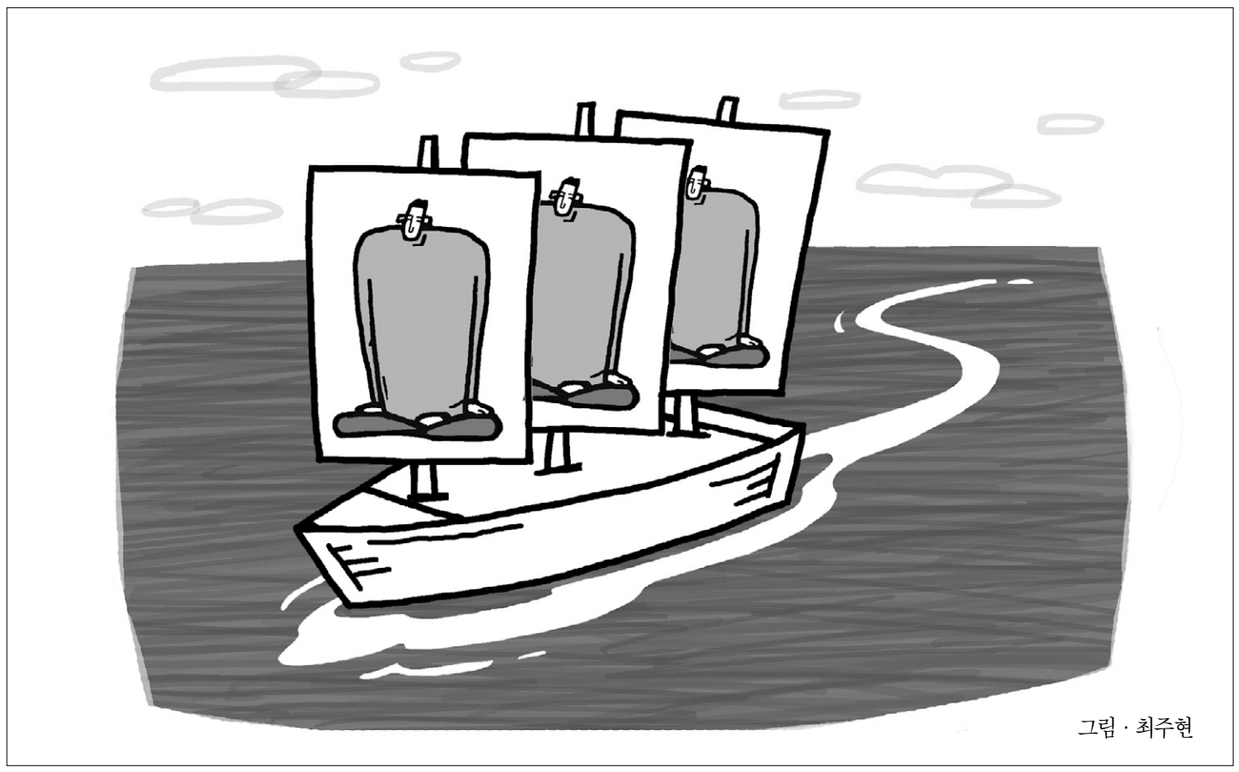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안에서도 나를 못 끌고 간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어떻게 불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체내에 있는 그 중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시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얼마나 많으냐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름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많은 것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거기서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그러는 반면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인과로 만난 인연들은 그 속에서 먼저 가서 안되게 하고, 벌써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먼저 가서 방해를 놓고 그러니 여러분 몸이 가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미래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 현실은 미래에서 볼 땐 과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自神)'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집을 빈집으로 만들지 말고 주인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주인이 없으면 온갖 것이 다 들락거리고, 세균성 영계성 또는 업보성 유전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빈집이 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온갖 것을 다 파괴를 시키고 이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파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안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야만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세계의 노예 생활이라 이 소립니다.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내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곤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화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태초가 어디냐?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고 거슬러 내려갈 것도 없죠. 여러분이 난 것이 바로 태초요 여러분 몸이 이 세상에 생긴 것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화두를 딴 데 가서 찾는다면, 딴 데서 받는다면 그건 부처님 당시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 후에 너무 선맥이 미약해지고 모두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약해지니까 큰스님들께서 화두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버릇이 되고 일과가 돼 가지고 항상 '이게 뭣고?' 이럽니다. 뭐긴 뭡니까? 이 세상에 난 것이 여러분 공한 그 몸뚱이, 그 자체 속에 중생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바로 혹성덩어리죠. 의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던 내 조상 부(父)와 지금 현재에 사는 자(子)와 상봉을 해야만이 스스로 의정이 터지고 스스로 의정이 나고 스스로 '그 뭣고?'가 돼서 '세상의 그 입자가, 원자에서 입자가 화해서, 수만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이 털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는구나! 이게 무엇일꼬?' 하고 그 의정이 터지는 거지 남이 줘서 의정을 가지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럼 의정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여러분 대신 똥 눠 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신 자 주는 사람 없죠? 아무리 친철해도! 먹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파 주는 사람도 없고 죽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왔다 혼자 걸어갑니다. 내 몸뚱이도 내가 갈 때, 그렇게 씻기고 입히고, 더울 때 시원한 옷 입히고 추울 때 더운 옷 입히고 만지고 씻고 바르고 이렇게 해 줬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아무리 많고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서 돈을 쫓아갔지 돈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쫓아다닙니까?

돈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또는 자식과 부부지간도 배웅이나 가면 갔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누가 갈까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주인공은 여러분을 형성시켰고 형성시킨 사대가 흩어질 때는 바로 주인공과 둘이 아니게 한뜻 한마음 한 행동, 바로 공식(共食)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미래세계에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미래의 세계에 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허공에서 떠돌거나 착이 있어서, 습이 있어서, 아집 아상이 있어서, 나라는 게 있어서 그 집 언저리에서 뱅뱅, 자기 아는 대로만 거기에서 돌다가 다시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습을 딴 걸로 태어나는 수가 많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어서 또 인간으로 세 번 태어나기가 극히 어렵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악도 놓고 선도 놔라. 선을 위주로 하면 악이 따르고 악으로 가면 선이 따르기 때문에 네 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이 불바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지금 과학으로 따지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바퀴를 말하는 겁니다. 삼천 년 전에도 불바퀴를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블랙홀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말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삼천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삼천 년 전만 아니죠. 단군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81자를 남겨 놨습니다. 인간이 왜 뒤쳐져서 맨 나중에 나왔느냐고 하신다면, 수많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오면서 진화되면서 다른 거는 다 빨리빨리 컸지만 인간은 인간대로, 그것이 커서 진화되면서 인간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인간이 됐다 합니다. 거듭거듭 진화를 해서 바로 인간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저 수박 겉 핥듯….

보세요! 작년 수박씨를 올해 심었는데 올해 수박이 싹이 났습니다. 싹으로 화했단 말입니다. 싹으로 화했는데 그 씨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예? 바로 그 씨가 화해서 싹으로 됐기 때문에 그 싹이 수박을 또 열리게 해 가지고 그 수박이 바로 씨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싹으로 나서 이렇게 여러 해 사시고 어른이 됐으니 수박은 벌써 무르익었다 이겁니다. 그대로 부처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 부처는 말로만 부처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서 여러분을 알아야 부처인지 부처가

☞26면으로 계속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박지원(객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법당 앰프 · PWA-110 320×230×270mm...8.5kg · PWA-730 430×275×275mm...4kg · PWA-3000 200×480×230mm...11kg



무선마이크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자신의 집을 빈집으로 만들지 말라

☞25면에서 계속

아닌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 바로 수박씨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기, 과거 자기를 찾느라고, 자기 씨를 찾느라고 온통 바깥으로 헤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수박 자체는 자기 안에 자기 씨가 있으니, 과거 씨가 자기 안에 있으니 자기 안에 있는 그 씨가 자연의 불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믿어라 이겁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박 겉과 안에 살과 씨와 같이 한꺼번에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정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갑니다. 과거 씨를 현재에 심고 현재의 씨를 미래에 심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도 오늘이요 미래도 오늘이요 오늘도 공(空)했노라.

오늘도 고정됨이 없죠? 여러분! 고정된 게 있습니까? 만남도 여러분이 아내를 만날 때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남편이 되고, 부모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바로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만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여하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시면서도 자동적으로 사시는 그 자체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림 속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연구하시고 실험하시고 그리고 체험하신다면 부처님의 그 뜻을, 골수를 아신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의 살을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골수를 믿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고깃덩어리를 믿으러 다닙니까? 고깃덩어리는 사대가 흩어지면 그뿐입니다. 누구나가 다, 부처님께서도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네 자신을 알면 내 자신과도 둘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연꽃을 들고 한 팔을 번쩍 쳐들었을 때, 가섭이 싱긋이 웃었을 때 어떤 경과가 있었을까요. 그 이심전심(以心傳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마음이었습니다. '모습을 보지 말라.' 하시고선 연꽃을 들고 여러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한 생명이며 한 자리이며 한 법이고, 바로 우리는 그 속에서 두 자리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두 마음이 아니다. 수억겁을 거치면서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 없이 전달이 되면서 같이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살고 있느니라.' 하는 그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다보탑(다자탑, 多子塔)에 반 자리를 내 주셨을까요? 한마음에서 바로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뜻을 가르치고 두 자리가 아니라는 뜻을 가르친 겁니다. 간단하게 비유해서, 아무리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대로만 고집해서, 지금 시대가 변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신 그 용어 그대로 써야겠습니까?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용어로다가 바꿔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에 감화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부처님을 숭상하는 일이고 진짜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신 그 뜨거운, 뼈저린 그 피 한 방울을 알 것입니다.

두 다리를 쑥 내민 거는 무엇입니까. 한도량 안에 한발이 되는 뜻입니다. 한발! 한발! 여러분이 이렇게 수많은 발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게 한 발, 한발, 평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깐 두 자리가 돼서 딛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 한발입니다. '너희들과 나와 한발 평등하니라.' 하고 평발이라고 했습니다. 발이 평발이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모두가 평등하고 여러분이 같이 한발로서 한마음으로서 한 행동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밝히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서 왔나.' 하고 있다면, '이건 뭣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며, 또 자기 자신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증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묘법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500년 후에는 어떻게 이 뜻을 중생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선 "500년 후에도 지금과 더불어 똑같이 그 뜻을 반영하고 그대로 알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길을 걸을 것이니라.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뜻을 생각해 볼 때, 말로만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뜻을 볼 때는 삼천년 전이나 오백 년 후나, 후도 없고 전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이상 부처님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부처 아닌 게 부처이지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닙니다. 화두를 들었다 하면 벌써 그건 안 든 겁니다. 내가 좌선을 한다 그러고 앉았으면 좌선이 아닙니다. 일어나면 벌써 생각부터 하고, '밥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고 '일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고 '똥 눠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니 그 선은 항상 도루묵이 되는 거죠.

회양 선사가 마조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도 미약해서 머리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하루는 기왓장을 가지고 그 앞에서, 좌선하는 앞에서 갈았습니다. 가만히 좌선하면서 내려다보니깐 엉뚱하게 선사가 기왓장을 갈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하시려고 그렇게 가십니까?" "나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느니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말씀을 지금 내가 되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마조 스님은. 저건 무슨 일일까 하고 "그래, 그것이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양으로 그렇게 앉았느냐?" 하니까 부처를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놈아, 일어나지도 말고 똥도 누지 말고 먹지도 말고 오줌도 누지 말고 일어나지 말아야 선맥이 끊어지질 않지, 일어나면 선맥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난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우리한테는 거름입니다, 거름!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실의, 지금 이 자리의 거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을 내놓으라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 앞에 있던 목탁을 탁 치고선 나가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동당 서당에서 네 고양이 내 고양이 하고 싸우니까 한마디 하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도 못하니까 고양이 모가지를 딱 쳤죠. 나중에 저녁에 들어오신 스님한테 그 말씀을 여쭈니까 아무 소리 없이 짚신을 벗어서 머리 위에 이고선 그냥 슬그머니 나가시더랍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어서 이 지구 바깥을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원자에서도 입자가 그렇게 많이 있고 이 허공에도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비행기를 띄우려고 그러는데 양쪽에 통이 터져서 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이 허공 안에도 그냥 생명들이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뜨면 강하니깐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터지니까 슬그머니 해서 이렇게 뜨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연구해 낸 거죠.

정신세계에서 뜨는 비행기는 무엇일까. 앞으로는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다가 하던 것을 마음으로, 지금은 단추만 누르면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없다면, 여러분의 불성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연구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어디로 갔든지 우리 생활부터 알아야 하고 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바로 이게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기 무전전화기를 놓지 않고 어떻게 무전을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각자.

예수도 말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부터 믿어라.' 했는데 쓰는 사람들이 그 도리를 모르니까 예수만 믿으란다고 한데로 모은 거죠, 그게.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모두 나부터 알고 나부터 믿어라.' 이러니까 편집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 길을 걸어 보고 그 속을 알아 봐야 알지 자기가 그 속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물질세계에서만 살았으니 표현을 하기를 그럴 수밖에. '예수만 믿으란다' 이렇게 썼던 거죠. 하하하….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잘못됐을 거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도 '아이구, 이거는 참 죽을 꿈이고 이거는 안 되는 꿈이야. 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꿈이 꿔지나?' 요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꾸릴 하고선 '아이고, 새 달엔 언짢대. 석 달 있으면 뭐가 재앙이 온대.' 요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안의 모든 의식들이 고렇게 따라 주는 겁니다. 따라 주니 그 재앙이 안 오고 배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의식 자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배인이 돼야 됩니다. 한생각이면 한마음으로 따라 주는….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잘 못 꾸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누가 꿈을 잘못 꿨다고 말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습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더라. 그렇게 꿈을 꾸면 나쁘다더라.' 요런 생각에서 오는 관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의식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배인이 돼야 됩니다

이성계가 꿈을 안 좋게 꾸었는데도 무학 대사가 그렇게 대답을 잘했지 않습니까? 왜냐? 그게 진리니까. 색경이 와르르 깨졌다 하니까 "좋은 소식이, 국민이 전부 다 소리를 높이겠구나! 좋은 꿈이로다." "스님! 꽃이 폈다가 와르르 다 졌습니다." "야! 꽃이 다 졌으니 열매가 맺히겠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 한마디 대답이. "아휴, 스님! 까마귀가 그냥 까욱까욱하고 울고 가는 거를 또 보았습니다." "아이구, 참 좋겠구나! 가옥가옥이니까 지금 시쳇말로 말해서 청와대에 들어갈 꿈이로구나!" (대중 웃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스님, 더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 대문에, 그 들어가는 대문에다 허수아비를 목을 졸라서 딱 매 놓고는 뒤룽뒤룽하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흉한 꿈입니까?" 하니까 "그런 말 말게. 만인이 다 우러러보는 꿈일세." 이랬거든요. 안팎이 우러러본다고 했어, 나오며 들어가며. 허, 이렇게 좋은 그 꿈.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도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이익한 생각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어떤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꿈을 꾸었죠. 예전에도 내가 얘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스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저께 밤 꿈에 소쿠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야, 오늘 초대를 받아서 잘 먹겠구나. 그저 나쁘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부터 사람이 돼야 되느니라." 하시고선 대답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옆에서 친구가 들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날 누가 초대를 해서 자기도 따라가서 무척 잘 먹었거든요. '나도 한번 스님한테 그렇게 해야겠다.' 하곤 꿈도 안 꿨는데 며칠 후에 가서 "저도 꿈을 꿨는데 소쿠리를 얻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얘! 조심해라. 나가면 몰매를 맞을 꿈이로다." 이랬단 말입니다. (대중 웃음)

똑같이 소쿠리를 얻었다는데 글쎄 그렇게 말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저지르고 누가 몰매를 맞게 됐습니까? 그건 왜냐? 꿈도 안 꾸고 스님을 우롱하면서 고렇게 말을 했으니…. 그래 매를 맞고 사흘을 일어나질 못하다가 나흘 되던 날 너무 궁금했습니다. '꿈도 안 꾸고 가서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가서 말을 했죠. "스님, 제가 사실은 꿈도 안 꾸고 스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몰매를 맞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놈아! 네가 생각을 해낸 것도, 간교스럽게 생각해 놓은 것도 꿈이다. 그것도 꿈이지 꿈이 아닐 수가 있느냐. 그러니 너무 간교한, 어처구니없는 꿈을 숭상했기 때문에 네가 해 놓고 네가 맞았느니라." 이러더랍니다. 소쿠리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문제였죠. 그러니 그 버릇을 그렇게 톡톡히 가르쳐 놓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빼놓고는 절대로 이 공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49년 설하면서 나오셨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신 거지 육신의 병을 고쳐 주고 육신의 뭐를 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 한 가지만 있다면 모든 걸 사고 모든 걸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얘깁니다. 마음 하나만 고쳐 주면 일체 모든 게 자기 거 아님이 없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선 마음 병만 고쳐 주면, 한 가지만 고쳐 주면 다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마음 병을 고쳐 주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아주 그걸 진실하게 믿고 그렇게 한 구멍에 다가 봤다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그 도리를, 우리는 부처님 도량의 그 정신, 손바닥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손바닥 속에서 헤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겠다 하고선 정진을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 아는 범위 내의 그릇이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4월 2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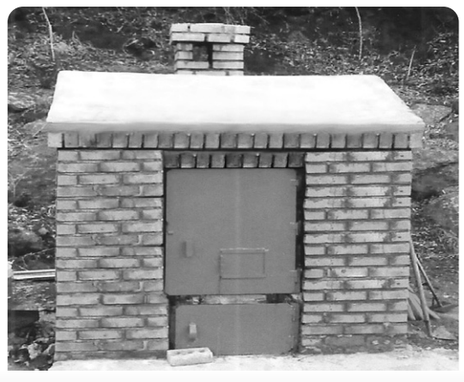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유기간
전문반 1년 / 속성반 6개월
과 목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다라니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까지 (4시간)
강 사 진
영남범음범패(무형문화재 제9호) 이수자
• 교육원장 : 우암 스님
• 승무단장 : 성애 법사
교육장소
해동성취사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문 의
☎ 051)727-0859.0809 / 010-3004-0859

그을음 없는 소각장과 구들장 없는 황토 온돌방 개발
소각장의 매연으로 불편하십니까?
항상 신경 쓰이는 그을음!!
그을음을 해소 하고 연소시켜 그을음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소각장!!
◆반 영구적인 화연대.
◆가로 1200㎜ × 세로 1300㎜의 부지만 있으면 설치가능.
◆내부에 황토로 마무리 작업을 하므로 불의 열기에 의하여 내부가 튀지(깨어지지) 않는다.
◆사찰 및 공장, 도심속의 포교원 및 일반 가정집의 필수 요건.
◆8년의 수행 생활 속에서 온돌 방의 단점을 보완한 구들장 없는 황토 온돌방!!
환경 오염과 에너지 절감을 생각하는 마음과 매연가스가 일체 없는 황토 온돌방 : 한번 지핀 불로 24시간 열 유지. (스님의 수행 및 선방에 꼭 필요한 온돌방)

산청군 시천면 공 덕 암
문의전화 055)972-0338, HP 011-895-2258



불자 세상보기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

4대강사업 목적의 허구성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많은 논란거리가 돼 왔다. 많은 시민 ·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근래에는 불교, 천주교, 일부 개신교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대강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대는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4대강사업의 목적으로 보면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 등등 다양한 것을 내세우고 있고, 심지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 중이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분야는 하상정비(준설) 5.7억㎥, 보 건설 16개소(낙동강 8, 한강3, 금강3, 영산강2)이다.

4대강 사업과 홍수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다. 홍수 혹은 침수는 4대강이 아닌 지천, 특히 지천의 상류 혹은 산골짜기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도심지 침수는 하수관거나 배수펌프장 용량 등 부족에서, 농경지 침수도 농경지 배수로 부실과 배수펌프장 용량 부족 등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방재협회 자료 중에서 1999~2003년의 5년간 하천등급별 홍수피해액의 비율을 보면, 4대강 등 국가하천 3.6%, 지방하천 56.7%, 소하천 39.9%로 4대강 본류에서는 거의 홍수 피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홍수예방을 위해서 하천을 정비해야 한다면 지방하천(지류)나 소하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대강사업 목적 중에서 가뭄해결을 위해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홍수와 관련지어서 논의할 수 있다. 가뭄은 4대강 본류 인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뭄피해 지역을 보면 산지, 도서(섬)지역, 연안(해안가)지역이 대부분이다. 가뭄이 극심할 경우라도 우리나라 대도시(대도시는 4대강 본류 인근에 있음)에서는 용수공급에 지장 없게 돼 있고, 문제가 되는 지역은 상수도시설이 빈약한 몇몇 중 · 소도시(4대강 본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 뿐이다. 따라서 가뭄해결을 위해서는 산지지역이나 용수공급체계가 빈약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수자원 확보계획을 추진하면 된다.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4대강에 보를 건설해서 물을 가두는 저수지를 만들게 되므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4대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무시하고, 수질이 좋아진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규모 하상굴착(준설)로 모래 · 자갈 등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하천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4대강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는데, 요즈음 토목건설업은 대부분 중장비가 하고 인력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으로 35만6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현재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보더라도 공구당 몇 백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4대강사업이 정부에서 주장한 대로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수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내세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치수사업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의 하천사업 관리체계를 무시했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졸속으로 수행했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해 관련법을 손질해 하상굴착이나 보 건설사업은 애초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많은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있고,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면서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운하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 "내 임기 중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4대강살리기사업을 운하로 연결하는 사업은 차기정권에서나 검토가 가능할 것" 등의 내용을 다시 음미해 보고 4대강사업을 유추해 보면, 이 사업이 운하사업의 전단계 사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 설

봉은사 토론회와 개혁의 기회

조계종총무원과 봉은사, 불교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새 전기를 맞았다.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키로 한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 넘도록 폭로와 반박으로 이어졌던 격한 상황이 차분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30일로 예정된 토론회에서 총무원, 봉은사, 불교단체 3자는 각자의 입장을 털어놓을 것이다. 총무원은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한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고, 봉은사는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다. 상대의 잘잘못을 명쾌하게 지적하면서도 종도들이 크게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총무원과 봉은사가 주장한 내용들의 간격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한 번의 토론회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3자가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2차, 3차 토론회로 이어져 반드시 화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봉은사 직영' 사회적 관심사 되었다
조계종단 고질적인 문제점 드러났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동안의 논란의 과정에서 조계종의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 번째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자주성 문제이다. 총무원에서는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의해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자주성 훼손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이며, 특히 조계종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에게 했다는 점에서 상식 이하다.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또 청정승가대중결사에서 지적했듯, 문화재 유지 보수 등 불교와 관련된 정부예산 편성이 타당성이 있음에도 자칫 선심 쓰듯 책정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불교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두 번째는 총무원장 선거 후 뒤따르는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직영 · 직할 사찰 주지 인사 후 나오는 '나눠 먹기'라는 뒷말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계파 안배도 인사의 한 원칙이 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적재적소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 폐해가 너무 크다. 당선자 측은 종권을 획득했다고 하겠지만, 종도들은 위임했을 뿐이다.

셋째는 종책결정과정의 절차적 합법성과 함께 당사자와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우리 불교는 대중공의를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받들고 있으며, 중앙종회가 대중공의의 원칙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대의제라는 한계로 인해 의사 공백이 있는 만큼 종회 결의가 곧 종도들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논란이 많은 사안의 경우에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방법을 활용해 의사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조계종단의 고질적인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개혁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사부대중 칼럼

무관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부산 안국불교대학장

부처님과 에어리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나타난 예수의 초상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빈치는 프로렌스의 거지를 모델로 삼아 예수의 초상을 그렸다고 한다. 반면 법당 안의 부처님은 현실과 너무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존상을 취하고 있다. 탱화 앞에 모셔진 부처님은 더욱 외계인 같은 분위기이다. 우리가 절에서 예불할 때 보는 불상이나 탱화는 인간미가 없는 것 같다. 부처님은 "일체 존재는 나와 평등한 존재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거룩한 부처님을 조성해 놓으니 우리들은 괴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너무나 신적이어야 할 예수는 인간적으로, 보다 인간적인 부처님은 우리에게 신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10여 년 전 알고 있던 초등학생이 있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닌다. 어린이 법회에서 알게 된 그 학생은 부처님 오신 날에 내게 "스님, 부처님은 에어리언이에요." "왜?"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뚫고 태어나셨다면서요." 라고 말했다. 당시 '에어리언'이라는 영화가 한참 인기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초등학생이지만 바르게 설명을 해줘야겠다 생각했다. 나는 장시간 리그-베다에 나타나는 카스트(caste)제도부터 본생담(本生譚)까지 한참을 설명한 기억이 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카스트가 크샤트리야라서 우협(右挾)으로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후대의 제자들이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말까지 정확하게 전달했다. 초파일이 지나고 그 주 일요일 어린이 법회에 그 초등학생이 와서 또 질문을 했다. "스님, 처음 태어난 아이가 걸음도 걷고, 말도 합니까?" 그날 그 학생을 방으로 불러서 장장 2~3 시간을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학생을 보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가 너무 에어리언적인 불교를 가르치고 있지 않나?"

2600여 년 전, 히말라야산 기슭의 작은 왕국 카필라에서 탄생하신 부처님은 45년간 형이상학(形而上學)적인 내용의 말씀은 하지 않았다. 경험 가능한 존재와 대상에 대해서 진리를 설파하셨다. 영혼, 신, 우주의 끝과 시작 등의 형이상학(形而上學)적 물음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침묵했다.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담은 글이 <마하파리닙바나경>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처님의 모스이 더 신앙적이고 존경스럽다.

"아난아, 나는 이제 늙고 지쳤다. 인생의 기나긴 길을 걸어와 어느 새 노령에 이르렀다. 여든이 되니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치 수레가 가죽끈의 도움으로 간신히 움직이는 것과 같구나….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하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자기 자신과 부처님이 남겨놓은 법 밖에 없다는 말씀은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준다. 이러한 솔직한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이 더 인간적이고 종교적이지 안는가? 우리의 외부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실제(신)가 있다고 허망하게 말 하는 것 보다 더 종교적인 것이다.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많은 종교도 존재할 것이다. 종교들은 절대자에게 기도할 것을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각자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실체(절대자)도 인정하지 않았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고 설(說)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의 말씀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분인가! 잘못된 망념을 깨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에어리언적인 불교에서 좀 탈피해 인간종교로써 거듭나길 바란다. 부처님 오신날에는 산과 들에 피어나는 새싹들 처럼 불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 늘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방법으로 포교와 신행을 가르치지 말고, 좀 더 세련되게 정말 부처님 법에 맞는 가르침을 홍포하는 부처님 오신날이 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새로운 滴天髓풀이
[제❶권 · 제❷권] 완간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적천수천미와 적천수징의를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여 그 동안 밝혀내지 못 했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한글세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쉽고 매끄럽게 번역했다. 그리고 풍부한 해설을 곁들였을 뿐 아니라 천미와 징의에 예시된 수많은 명조마다 사주의 구조와 운의 좋고 나쁨을 일일이 명쾌하게 해석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독학(獨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천미나 징의에 나오지 않는 자평 명리학의 이론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폭넓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제❶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756쪽 / 정가 40,000원
제❷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728쪽 / 정가 4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이제 당신도 점술가가 될 수 있다!
◆ 한국별점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
이 학문은 고대 중국의 진희라는 사람이 기도 중 천기를 받아 창안한 성리학이다. 특히 천지조화를 터득하고 인간의 부귀빈천과 길흉화복을 예지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정확성이 뛰어나며 귀신도 울고간다하여 금기된 적도 있다. 인연있는 후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 지금의 자미두수로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운명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高山 엄창용 지음/4×6배판/양장본/45,000원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제품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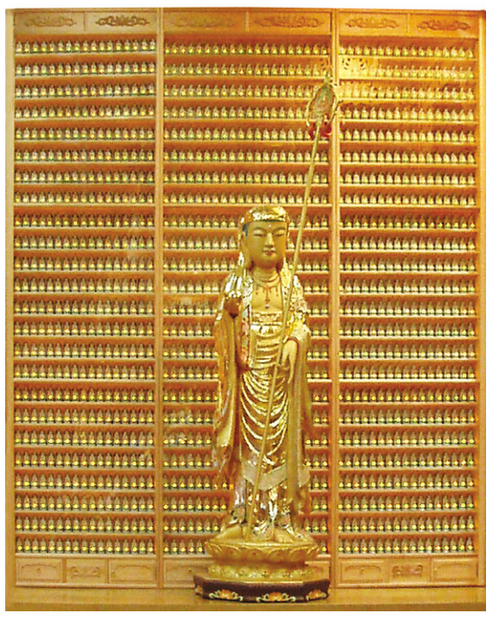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아름다운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앙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천수경 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민족사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